

교육사회학의 발달 1 / 1주차 1차시

1. 서론 : 교육의 사회성 및 교육사회학의 이해

1) 교육의 사회성에 대하여

■ 인간과 학습

① 인간은 학습동물임

- 인간이 학습하는 이유

-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임
- 인간은 지속적인 학습을 수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임

② 학습

- 지적, 기능적 행동능력을 확장하고 판단 능력을 향상시켜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임
- 따라서 인간이 환경을 조성하고 조정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학습은 인간의 필수적 행위임
 - 인류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이유 : 뛰어난 학습능력

■ 인간의 학습활동

- 자율적 학습

- 인간은 생존과 자아확대를 위하여 스스로 관찰하고, 정보를 통해 사유하고,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여 궁극적인 지혜를 깨달음

- 타의적 학습

-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가르침을 제공받아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여 깨달음에 이를
-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전체의 학습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보편적 현상)
즉, 학교제도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교육은 학습에 대한 관리행위임)

■ 교육을 통한 학습에 대한 관리 : 교육과 사회

- 학습에 대한 관리로서의 교육은 그 자체로서 사회성을 띠고 있음

-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임

- 교육은 사회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됨

- 교육관계는 사회적 토대 위에서 성립됨

☞ 정치, 경제, 문화, 가족 등의 모든 관계도 역사적으로 강화된 사회관계에서 비롯된 것

☞ 엄격한 의미에서 이 모든 관계는 사회관계와 하나로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이 모든 관계가 독립적으로 보이는 이유

★ 각각의 관계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표현방식이 다르기 때문임

- 즉, 사회관계망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 의식 등은 각각 요구하는 사회적 무대
- 무대에서 외형상 다르게 표현될 뿐, 그 본질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 특정한 사회적 가치관을 소유한 인간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공간에서 외형상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슷한 반응을 함
 - 교육은 사회 속에 놓여 있으며 사회관계에 의해 형성됨
- 예를 들면,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에서 시작됨
 - 정치, 경제, 문화, 가족 등의 모든 관계도 역사적으로 강화된 사회관계에서 비롯된 것
 - 사회인과 사회인으로서 만남임
 - 사회관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관계는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사회관계의 여러 가지 요인과 결합하여 나타남
 - 교육관계는 사회관계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교육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임

2) 교육사회학의 이해

■ 교육사회학의 성격

- "교육에 관한 연구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 '무엇이라도 능률적으로 잘 가르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는 연구자들이 있는 반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가르치는지,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인지 등을 밝히는 데 큰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도 있다. 교육사회학은 후자 쪽이다.'
- 교육사회학
 - 교육의 사회적 제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설명·해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문
 - '사회적 맥락 속에 교육'을, '교육적 맥락 속에 사회'를 밝히는 과학적 학문
- 교육사회학이 추구하는 과학의 개념은 자연과학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과학이 추구하는 것
 - 자연과학 연구
 - ☞ 물리적 세계에 대해 자명하면서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
 - 사회과학 연구
 - ☞ 물리적 입자가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
 - ☞ 불규칙적이면서 무정형적인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
- 사회과학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 축적된 일련의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밝히는 것
 - 교육사회학은 이론적 기반 위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과 사회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학문임
- 교육사회학은 교육의 사회적 제 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그 분석대상은 매우 광범위함
 -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관계가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범위에 속해있기 때문임
 -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영역은 교육의 사회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사회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학관계를 살펴봐야 함

■ 교육사회학의 이해 : 교육학의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학문

- 교육사회학의 성격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교육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고 관계를 이해해야 함
 -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발달은 다른 학문체계에 많이 의존하여 발전해 왔기 때문임
- 교육사회학은 그 이면에 내재하는 교육의 사회관계에 대한 독립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음
 - 교육철학, 교육사학, 교육행정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학습, 교육공학 등의 교육적 사실을 바탕으로 함
 - 교육학이라는 한 유기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임
- 교육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의 해석방식을 탐구해야 함
 - 교육학의 분과학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교육 사회학적 해석 영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함
- <교육학의 분과학문과 교육사회학의 관계>

교육학 영역	교육사회학과의 관계
교육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곧 인간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침 ex) 성선설, 성악설⇒인간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 성립가치관- 교육철학의 인간존재에 대한 접근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근거가 됨
교육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학은 제한된 주제에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함 ⇒ 사회학은 역사학의 학문적 성과아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역학관계에 초점을 둠- 교육의 사회과학은 과거의 교육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분석하면서 현대사회의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교육행정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학<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화 학문- 교육행정학<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제도적 활동•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서 교육적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직화• 사회의 이념적 측면의 변화는 교육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요구와 동시에 교육행정의 변화를 수반해야 함
교육심리학 (교육사회심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학<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과의 관계를 배제한 개인에게 초점(교육심리학)- 현대의 심리학<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자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는 '마음의 병'에 초점 (교육의 사회심리학)• 무의식(욕망)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구성됨• 인간의 심리구조는 사회적 관계망의 파생체• 학생에 대해 개인 심리적 특성보다 사회구조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교육과정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표의 성취를 위해 교실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사회관계가 반영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학생-사회 -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가치관과 관습, 시대적 흐름을 포괄 ⇒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는 사회적 특성을 반영해야 함(교과서의 지식은 사람에 의해 선발되고 구성됨) - 교육과정사회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 숨어있는 사회적 역학관계 분석
교육평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학문과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임 - 평가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구성원들을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분류 - 평가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이해관계 조절, 효과적인 사회적 경쟁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선발(선발의 사회학)
교수-학습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적 측면 강조 - 교육평가와 밀접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영향력 하에 있음 - 시대적 흐름은 항상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의 전환을 요구함
교육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 도구적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회학적 접근 요구(지식기반사회의 사이버 교육)

■ 교육사회학과 교사 :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사회학이 왜 필요한가?

-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 유능하게 적응하기 위해 교실 밖에 대한 인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교육학적 배경이 필요함
- 교육사회학이 필요한 학문적 이유
 - 학생의 심리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
 - ☞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부적응하는 원인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더욱 근원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음(부적응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해석을 가능하게 함)
 - 학생의 재능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음
 - ☞ 학생의 재능을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지능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님
 - ☞ 음악, 미술, 예술 취향 등의 사회적 능력의 범주 속에 포함하는 인재에 대한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줌
 - 학교교육의 능력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줌
 - ☞ 학업성취와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깊은 사회학적 이해를 도모함
 - 학생문화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 ☞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학생들의 가치체계 이해
 - ★ 교육사회학은 시대적 흐름과 이에 따른 인간관계의 변화 속도에 대한 적응을 도모
 - ★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고양시킴

- 교실수업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도모함
 - ☞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의 이면인 사회적 역학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됨
- 교사의 사회적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줌
 - ☞ 교사는 사회관계에서 교육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교육을 거시적인 사회적 틀 아래에서 해석해야만 함
 - ☞ 교육의 사회적 역학관계의 정체를 이해하면 교사의 사회적 위치와 정체감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도모함
 - ☞ 교육의 사회적 현상은 교육에 대한 인간관계 방식에 의해 나타남
 - ☞ 교육사회학은 교육의 사회적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궁극적 이해와 복잡하게 얹혀있는 교육의 사회적 역학관계를 명료하게 함
-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통한 단위학교에서 교사의 역할범위를 넓게 함
 - ☞ 교육정책은 단위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미래 교육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를 도모함
 - ☞ 교육사회학은 미래교육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의 변화와 교사의 새로운 적응에 대한 역할의 질을 도모함

교육사회학의 발달 2 / 1주차 2차시

1. 미국과 유럽에서의 발전 – 초창기

1) 교육적 사회학

- 사회학의 지식을 교육실천에 응용하려는 목적 1) 교육사회학의 태동
 - 스잘로(1907년)
 -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교에 'Educational Sociology' 강좌개설
 - 그 이후, 1916년에 교육사회학과 창설
 - 미국교육사회학회(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Sociology) 창립
 - 전문학술지 「Educational Sociology」 창간
- 실천지향적 교육사회학: 1930년대~1950년대 중반
 - 1940년대 이후
 -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 운동 또는 사회중심교육(SocietyCentered Education)운동의 영향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높아짐
 - ☞ 교육사회학의 연구과제가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실천지향적 교육학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사회학자들의 개입을 초래하게 됨
 - 1940년대 말경에 교육사회학 강좌 급감현상

2) 교육의 사회학

- 교육사회학을 교육현상에 대하여 사회학적으로 탐구하려는 학문(1950년대)
 - 사회학지향적 교육사회학 등장: 1960년대
 - 「Educational Sociology」를 「Sociology of Education」으로 제호 변경(1963년)과 동시에 미국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의 간행물로 편입
 - 제호 변경 이후
 - ☞ 실증적 자료와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설명지향적 논문에 중점을 둠
 - 유럽의 사회학지향적 교육사회학의 발전
 -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실천지향적 교육사회학과 사회학지향적 교육사회학이 경쟁을 벌이면서 발전하였음
 - 영국
 -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 분야에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기울 지 않았고 교육학자들이 교육 문제의 해결에 사회학적 지식을 산발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이었음
 - ☞ 2차 대전 이후 사회학자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교육사회학의 영역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사회학의 영역으로 자리를 굳혀 감
 - ☞ 1964년 런던대학교 교육학대학에 교육사회학 석사과정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됨
 - ☞ 1980년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창간: 전문학술지 발간

2. 학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확대

1) 초기의 교육사회학: 뒤르켐(Emile Durkheim) 중심

- 교육에 관한 활동 구분(뒤르켐, 1925)
 - 교육에 관한 과학적 연구
 - 교육의 실제적 방법을 위한 교수학
 - 교육실천과 교육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연결하는 실천이론(=교육방법의 원리)
 - 교육의 실천적 활동
- 교육학을 실천지향적 교육학 vs 학문지향적 교육학으로 나눔
 - 학문지향적 교육학
 - 뒤르켐(1922)
 - ☞ 교육을 사회적 사실로 인식하고, 사회구조의 한 부분으로서의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밝히는 것이 교육학 연구의 핵심이라고 주장함
- 교육
 - "한 사회가 자세의 존재조건을 의도적으로 재창조하는 수단"
 - 이 핵심은 "새로운 세대의 체계적 사회화"라고 함
 - 교육의 목적은 사회체계를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데 있음
- 교육사회학의 연구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 교육에 관한 사회적 사실들과 그것들의 사회적 기능을 밝히는 일
 - 교육과 사회 및 문화 변화 간의 관계를 밝히는 일
 - 교육체계의 여러 유형을 비교문화적 및 비교학적으로 연구하는 일
 - 살아있는 사회체계로서의 학급과 학교를 탐구하는 일
- 앤젤(Robert C. Angell)과 월러(Willard Waller)
 - 교육사회학은 순수 사회과학의 한 영역이다(앤젤, 1928)
 - 교육사회학자들의 교육의 과정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
 - 「학습지도의 사회학」 저서 출판(1932)
 - 교육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해야 함을 강조

2) 2차 대전 이후의 교육사회학

- 1950년대부터 사회학지향적 교육사회학의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 교육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 2차 대전 이후 교육연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증대
 - 일상생활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 ☞ 학문적 인정도가 높아짐
 - 미국 교육사회학의 연구경향(1979년대 중반까지): 브루코버(Brookover, 1975)
 - 3가지 연구경향이 나타남
 - 브루코버(Brookover, 1975)

- 2차 대전 직후 : 학생의 학업성취와 태도형성에 미치는 가족, 이웃, 사회의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
 - ☞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학생의 자아개념, 가치관,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연구 다수 출현
- 1950년대, 1960년대 :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밝히는 연구
 - ☞ 발전교육론(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의 기능)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연구 다수 출현
- 1960년대 이후 : 사회조직체로서의 학교에 관한 연구
 - ☞ 학교 내의 인간관계, 역할, 사회적 풍토, 학교문화에 관한 연구 다수 출현

3) 이론적 동향: 기능이론 vs 갈등이론

- 1970년대
 - 교육사회학의 새로운 동향이 나타남
 - 현재까지의 연구를 비판하는 갈등이론 등장 →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의 양립화 현상
- 1980년대 후반
 - 기능이론과 갈등이론 대립이 줄어듦
 - 두 이론은 학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함
 - 두 이론은 교육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을 도구적 기능으로 파악함

3. 교육내용에 관한 영구의 등장 : 신교육사회학의 출현(1970년대)

1) 신교육사회학의 연구관점

- 기존의 교육사회학 비판
 - 교육기회 분배와 계층구조 유지에 사회구조기능적 접근에만 몰두함
 - 학교내부의 교육과정과 수업 진행과정 및 교사, 학생관계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2) 신교육사회학자

- 번스타인
 -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시작하여 교육내용 이론 형성을 위한 연구 범위의 확대에 기여함(1973-75)
 - 교육내용의 연구가 교육학, 특히, 교육사회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함
- 영(1971)
 - 교육사회학의 새로운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였음
 - 「지식과 통제 - “교육사회학의 새 방향”」편집
 -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의 사회성에 집중
 - 교육사회학과 지식사회학이 하나의 학문임을 강조함

■ 고버트(1972)

- '신교육사회학' 명칭 최초사용
- 교육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문동향을 '신교육사회학'으로 명명
 - 교육사회학의 "대안적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함

3) 사회평등의 수단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그 현실

- 사회평등을 위해 분배상황과 기회분배의 결정요인을 학교교육기회로 찾고자 함
- 그러나 교육은 여전히 사회적 지위를 상속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교육사회학 연구 :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교육구조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치중함
 - 교육의 불평등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있기 때문
- 영국의 교육사회학 연구 : 교육내부의 문제에 관심을 둠
 - 교육내용의 성격과 그것이 전수되는 과정을 명백히 이해해야 하는데 치중함

4) 신교육사회학의 연구주제

- 교육과정
 - 지식의 사회성
 - 학교교육내용
 - ☞ 사회적으로 결정된 문화전수의 한 방편
 - ☞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님
 - 교육과정은 사회적, 정치적 산물임(Eggleston, 1977)
-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 관계는 사회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항상 교육적이지만은 않음
- 교육과정사회학
 - 교육사회학의 연구범위를 넓혀줌
 - 교육 외에 사회구조적 문제에만 편중된 교육사회학의 연구관심을 교육내부의 문제로 끌어들임

5) 교육과정사회학의 약점

- 지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설부른 과장
 - 학교지식을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규정함
 - 지식의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져있음
- 학생들의 범주화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라고 규정함
 - 범주화 : 우등생, 열등생, 모범생 등
 - 범주화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장래의 진로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을 간과함
- 교육과정, 교사, 학생에 대한 관심이 치중되어 있어서 사회구조를 경시하는 경향

4. 현대의 교육사회학 현상

1) 영국의 번스타인

■ 연구문제

- 사회언어학의 문제로 출발하여 교육과정문제로 관심을 가지며 발전시킴
- 교육과 경제적 생산체제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을 구상하고 교육에 관한 사회과학적 담론구조를 정교화하였음(1996)

2) 미국의 애플과 웨슬러

■ 재생산이론 비판

- 재생산이론 : 신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교가 재생산 하는 곳

■ 교육에 관한 논의를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생산과 유통, 기득권 집단 문화와 주변집단 문화의 경쟁, 문화정치학 등에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교육에 관한 담론을 문화에 관한 담론과 접근시킴

- 학교교육이 지니고 있는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열의를 보임
- 사회학을 포함하여 문화전체에 대한 교육사회학 연구가 확대하는 데 기여함

3) 교육사회학의 다극화 시대

■ 정보혁명

- 정보화에 의한 교육의 변화

■ 교육사회학의 주제 확대

-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교육연구
- 신자유주의 교육론에 관한 논쟁
- 각국의 교육개혁에 관한 논쟁

5. 교육사회학의 발달 : 한국 교육사회학의 전개

1) 교육사회학의 출발

■ 한국의 교육사회학의 학문적 동향 및 문제점

- 현대 교육제도는 유럽에서 200여년 전에 형성된 학교중심 공교육제도에 전이
- 분단 이후, 남한은 미국의, 북한은 (구)소련의 영향을 받음
- 해외 유학과 연구가 미국에 편중되었으므로, 학문 전반이 미국 학문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어 학문적 편향성이 높은 현실임
- 학문적 편향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과제
 - 고등교육, 특히 고급 연구인력과 학자를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문연구의 하부 구조를 발전시켜 학문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학문의 자립능력과 주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과제임

■ '교육사회학' 교과목의 흐름

- 최초 강화개설

- 1952년 9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선택 과목으로 개설됨 (진원중 담당 : 교수)
- 일제강점기로 인해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가 허용되지 않아서 교육사회학 교과 개설이 매우 늦어짐

- <교육사회학의 발전-시간순>

년도	내용
1952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선택과목으로 최초 등장
1954년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필수과목으로 지정
1955년	• 중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 교과목으로 지정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세칙 : 문교부령제39호)
1961년	• '교육사회학' 제목의 대학교재 출판: 번역서 포함하여 총 3권
1963년	• 교육사회학 세미나 개최
1967년	• 「교육사회학연구회」창설: 한국교육학회 내 분과학회

- 교육사회학 연구는 주로 교육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짐

- 한국의 교육사회학의 성격은 실천지향적임

- 교육자가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거나 행정가로 학교를 운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사회학적 지식을 모은 것들임
- 교육자들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회학적 지식을 체계화한 것

- 최초 개설강좌에 사용된 교재내용

- 교육사회학 원론(진원중, 1962년, 범문사)

1. 교육사회학의 학적 성격
2. 교육사회학의 연구방법
3. 문화와 교육
4. 사회통제와 교육
5. 사회계층과 교육
6. 사회집단과 교육의 예비적 분석
7. 가족집단과 교육
8. 유희, 오락집단과 교육
9. 지역사회와 교육
10. 학교사회와 교육
11. 경제사회와 교육
12. 국가사회와 교육

2) 학교와 지역사회

■ 지역사회학교운동

- 1952년

- 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회와 유네스코 사절단이 한국 교육의 재건을 위하여 '지역사회학교'의 건설을 건의함
- 지역사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지역사회가 학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기존의 학교를 통해)

- 1950년대 말
 - 전국의 많은 학교가 참여함
 - 1960년
 - 4·19에 의하여 집권한 민주당정부는 지역사회개발을 주요 정책으로 채택
 - ☞ 지역사회개발 추진의 일환
 - ☞ 지역사회학교운동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함
 - 1970년대
 - 지역사회개발을 새마을 운동으로 체계화
 - ☞ 농촌에서 도시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확산함
- 1970년대 교육사회학의 변화
- 1972년
 - 문교부령을 개정
 - ☞ 교원양성을 위한 교직과정의 필수과목을 '교육사회학' 을 '학교와 지역사회'로 변경(정부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교육사회학의 내용이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하는 학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원리와 지식 위주로 바뀜
 - 관련 교재의 수록내용 및 특성
 - 지역사회개발사업인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데 학교를 활용하기 위한 지역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내용이 중심
 - ☞ 실천지향적 내용으로 구성됨
 - 학교와 지역사회(이규환, 1973)
 - 제1장 학교의 사회성
 - 제2장 교육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
 - 제3장 농촌의 학교와 도시의 학교
 - 제4장 지역사회학교
 - 제5장 지역사회개발과 교육
 - 학교와 지역사회(박용현, 이상주, 김영찬, 1979)
 - 제1장 인간과 사회, 문화적 환경
 - 제2장 교육의 사회적 성격
 - 제3장 교육의 사회학적 접근
 - 제4장 지역사회의 성격
 - 제5장 농촌사회의 특성과 교육
 - 제6장 도시사회의 특성과 교육
 - 제7장 지역사회의 변동과 개발과정
 - 제8장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 제9장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교교육

3) 교육사회학의 부활

■ 교육사회학 부활의 배경

- 1985년 '학교와 지역사회' 강좌 폐지 ⇒ '교육사회학'으로 변경
- 기존의 교육사회학과의 차이점
 - 실천지향적 성격이 약화되고 사회학지향적 성격이 강해짐
- 학교교육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가 강조됨(1980년대 민주화 운동 결과)
- 1980년대 사회운동에 있어서 사회과학 이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동시에 사회과학도 실천적 운동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음 ⇒ '사회구성체' 논쟁

■ 사회구성체 논쟁

-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 단체들이 운동의 방향과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이론정립과 정에서 한국사회의 역사적 현실적 성격을 놓고 벌인 논쟁
- 운동권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마르크스주의적 성향을 띤 젊은 사회과학도들의 한국사회연구 경향에 큰 영향을 미침
- 교육사회학에 반영되어 한국교육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연구모형으로 활용됨

■ 교육사회학의 이념적 관점 : 한국교육의 비판적 여론

- 1980년대 이후 폭넓은 이념적 관점이 형성됨
- 체제 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에서 마르크스 및 막스베버의 갈등론적 관점이 소개되어 자본주의 체제의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 출범으로 한국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장됨(1980년대)
-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하의 학교교육의 모순에 관한 연구
 - 이규환(1987), 이건만(1994)
- 제3세계의 식민주주의 또는 종속이론적 시각에서 한국교육의 과거와 현재의 조망
 - 제3세계연구소(1988)
- 새롭고 다양한 이념적 관점을 가진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한 한국교육의 모든 부면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 활발
 - 김기석(1987), 김신일(1989), 한국교육문제연구회(1989), 한국교육사회학연구회(1990)
- 한국의 교육문제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한국의' 연구임

■ 교육사회학의 연구활동 및 교육개혁

- 1980년대
 - 교육사회학에 대한 교육학도들의 관심이 높아짐
 - ☞ 전공과 무관하게 교육사회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1990년대 이후
 - 교육개혁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됨(본격적인 개혁작업이 진행됨)
 -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1995, 5~1997.5) 발표
 - ☞ 교육제도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임
 - ☞ 특히, 대학 입시제도의 개혁과 학교의 자율화와 경쟁원리의 도입은 세계적인

교육개혁에 관한 논쟁과 더불어 많은 이슈를 초래하였음

- 2000년대

- 교육개혁이 가속화됨
 - ☞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방안'(1995)의 주요내용을 수용하고 추진함
 - ☞ 그에 따라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에 논쟁이 확대되고 갈등양상이 나타남

- 2010년대

- 정치권의 보수·진보 간의 논쟁의 주제로 교육정책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교육담론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있음)

■ 현재 교육사회학연구의 연구범위

- 평생교육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는 미비하고 학교교육에 치중되어 있음
- 최근에 학교 외 교육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음
- 교육사회학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젠더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 이론에 관한 연구, 초중등 교육제도와 정책, 고등교육문제에 관한 연구, 학교효과와 교육 격차에 관한 연구 등
- 최근에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경쟁하는 이론들 1 / 2주차 1차시

1 기능이론의 대두 배경과 이론적 특징

1) 대두배경

- 사회적 혼란 상황
 -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사회적 혼란으로 사회학이 출현됨
 - 19세기 보불전쟁으로 사회적 정체감 상실
 -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경제와 사회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됨
 - 위와 같은 시대적 상황은 사회불안과 혼란으로 인해 사회적 위기의식이 팽배하였음
 -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사회가 안정이 필요성을 느낀 사회학자들이 많아짐
- 유럽의 대표적 사회학자
 - 꿩뜨(Auguste Comte: 1789~1857-프랑스)
 - 사회질서 유지와 개선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회에 관한 이론적 과학의 필요성을 인식함
 - 새로운 사회질서와 개선을 통해 사회가 보다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사회 이론을 체계화시킴
 - 사회질서는 자연법칙과 비슷하며 구성원들의 지지와 보편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봄
 - ☞ 기능주의 사회학적 이념을 지탱해 주는 이론적 기반이 됨
 - 스펠서(Herbert Spencer: 1820~1903-영국)
 - 적자생존과 진화의 법칙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균형을 강조함
 -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도덕을 강조함
 - ☞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에 영향을 끼치고, 미국의 주류 사회학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함
- 미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 파슨스(Talcott Parsons: 1902~1979-미국)
 - 파슨스 중심의 기능주의 사회학
 - ☞ 1960년대 후반까지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으며 학문적 주류를 형성하였음
 - 기능주의적 인식
 - ☞ 사회적 개선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음
 - ☞ 개인의 능력에 의한 사회적 보상을 정당화하였음
 - 미국의 기능주의
 - 근대화론, 인간자본론과 이론적 맥락을 함께 하면서 사회안정과 진보를 위한 학교교육의 역할을 강조함
 - 학교교육은 사회질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임
 - ☞ 이런 관점에서 사회는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부여해야 한다는 관점

- 기능주의는 학교교육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사회적 전망을 가능하게 함(보수주의, 자유주의와 유사)

2) 이론적 특징

- 기능이론은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함
 - 유기체처럼 사회의 여러 부분도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서로 상호의존적임
 - 사회는 항상 안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충격에 의하여 안정이 깨뜨려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속성이 있음
 - 한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 간에는 우열 이 있을 수 없으며 각기 수행하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
- 파슨스의 기능이론 : 구조기능주의에 입각한 사회체계(Social System) 이론
 - 파슨스 : 기능이론을 체계화하였음
 - 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기능상으로 상호의존적임
 - 한 체계의 구성요소들은 체계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작용함
 - 한 체계는 다른 체계에 영향을 주며, 이 체계들은 한층 높은 수준의 체계(상위체계와 하위체계)로 구분됨
- 기능주의 교육관 : 학교교육의 기능
 - 학교는 아동에게 필요한 가치, 규범 등을 내면화시켜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기능'을 함
 - 학교는 복잡하게 분화되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위할당 기능'을 함
 - 학교는 효과적인 지위할당 기능의 수행을 위해 학업성취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별하는 '선발기능'을 함

2. 뒤르켐의 교육 사회화론

1) 사회적 실재론

-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사회를 움직이는 외적인 규칙인 사회적 사실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사회적 사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행위의 외적 실체

2) 사회관

- 사회구성원 간의 결속력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였음
-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는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구분됨
 -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
 - 사회구성원들의 강한 공동 의식과 집단내의 강한 결속을 견지하는 집합의식을 강조함
 -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
 - 공동 의식보다 사회구성원들의 개성적이며 이질적인 성격을 존중함

☞ 그러나, 유기적 연대로 사회의 분화수준이 높더라도, 전문화된 집단 간과 개인 간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호의존적임

3) 교육관

- 논리적으로 사회관과 연장선상에 있음
 - 교육은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기여하는 제도적 수단임
 - 교육은 개인의 욕구보다 사회의 욕구에 먼저 기여해야 함
 - 교육은 아동에게 그가 속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육체적 상태와 정신적 상태를 신장시켜야 함
 - 또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전수해야 함
 - 따라서 교육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해야 하는 것
- 사회화로 함축됨
 - 사회화는 교육의 핵심개념임
 - 보편적 사회화는 사회 전체의 기반이 되는 지적, 도덕적, 신체적 특성 등을 아동에게 내면화시킴
 - 특수적 사회화는 산업화가 됨에 따라 사회적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각 직업에 필요한 지적, 도덕적, 신체적 특성을 마련해 주는 것
-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도덕교육'을 강조함

4) 뒤르켐의 교육관의 이론적 한계

- 사회를 구성하는 각 집단 간의 갈등과 불일치를 과소평가하여, 교육적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음
 -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은 경우에 따라 사회의 긴장감과 갈등을 조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였음
- 학교의 교육내용을 보편적인 합의를 지닌 사회적 가치로 단정하였음
 - 교육내용은 시,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가치라는 것을 간과하였음
- 도덕교육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
 - 현대사회에서 도덕교육은 필요하지만, 방법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국가중심의 도덕교육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함
 - 국가중심의 도덕교육 : 전체주의와 이데올로기의 획일화

3. 파슨스의 학습-사회화론

1) 구조기능주의

- 사회체계를 유기체 또는 생존체계로 비유함
 - 사회체계를 상이한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관계망으로 파악
- 제도화
 - 사회체계를 통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과정
 - 제도화의 대표적인 기관 : 학교

2) 학급사회화론

- 학교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적 장소는 학급임
 - 학급은 사회화와 사회의 분류와 배제라는 일차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곳임
 - 분석의 초점을 초등학교에 두고, 학급 사회화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를 '인지적 학습'과 '도덕적 학습'으로 구분함
 - 초등학교는 학습 사회화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
 - 인지적 학습 : 경험적 지식 및 기술
 - 도덕적 학습 : 품행과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책임 있는 시민의식의 고양
 - 초등학생의 선발기능을 강조함
 - 학급은 사회적 선발 기제로써 성취 평가를 가치 있게 여기게 함
 - 개인이 내면화할 적절한 가치체계를 제공하여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
- 학급사회화 이론의 한계점
 -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강조하여 교육갈등을 도외시함
 - 학교교육 평가체계의 공정성에 대해 지나친 신뢰감을 가짐
 - 학교교육의 평가체계에 의한 사회적 분배의 기능을 정당하게 보상하려 함
 - 학교교육의 학업성취에 의한 사회적 지위 배분의 정당성은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움
 - ☞ 계층에 따라 아동의 교육적 출발점이 다르므로 같은 평가체계로 지위 배분을 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함
 - 성적 우수학생이 인지적 학습과 도덕적 학습 모두에서 성취능력이 우수할 것이라는 생각

4. 기술기능주의론

- 1962년 클락(B. Clark)의 「전문가 사회와 교육」 저서에 의해 대두됨

1) 기본관점 및 교육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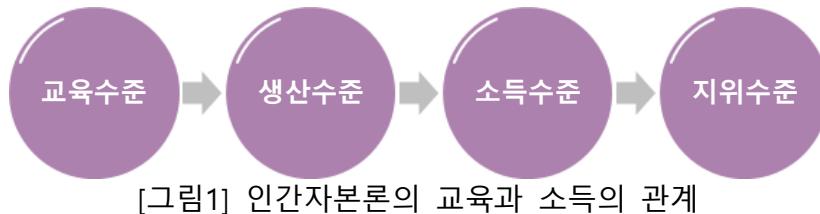
- 기본관점
 -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초점을 둠
 - 사회의 양적, 질적 변화
 - ☞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 ☞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임
 - 학력
 - ☞ 개인의 상승이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매개체
 - ☞ 높은 학력일수록 개인의 지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교육론
 - 각 개인은 학교교육을 통해 원하는 지위 구조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기회는 그들의 성취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콜린스(Collins, 1970)의 교육적 관점
 - 산업사회에서 직업이 요구하는 교육적 조건은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높아짐
 - 학교교육은 특정한 기능 또는 일반적인 능력 면에서 보다 고도의 기능적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함
 - 취업을 위한 교육의 요구조건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점차 더 많은 학교교육을 받도록 요구함
 - 트로우(M. Trow)의 교육확대과정과 직업구조
 - 미국에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확대과정을 직업구조와 관련하여 설명함
 - 1910년~1940년: 중등교육이 대중화된 시기로 사무 및 관련 직업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함
 - 1940년~1950년: 전문기술직이 급격히 증가
 - 1940년대 이후: 산업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고등교육의 확대로 이어짐
- 2) 현대사회의 다양한 교육현상 측면에서 기술기능주의의 한계
- 학력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함
 - 학력과 직업세계가 구조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 학교교육은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능력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함

5. 인간자본론

- 1) 대두 배경
 - 종래의 교육적 관점은 철학적, 도덕적 규범으로 인해 교육을 통한 인간을 자본으로 간주하지 않았음
 - 2차 대전 이후, 사회 제반 조건의 급속한 변화와 자본주의 사회의 발흥, 공교육의 팽창으로 인해 종래의 관념적 교육론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남
 - 엄청난 규모의 공 교육비 지출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대두됨
 - 경제성장의 원인 규명에 있어서 종래의 경제학적 설명을 갖는 한계가 있음
 - 경제학계에서 인간자본에 대한 관심이 커짐
 - 교육기회의 민주화로 인한 고등교육 확대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 출현
 -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확대과정을 직업구조와 관련하여 설명함
 - 1970년대까지 제3세계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침
- 2) 관점
 - 인간에 대한 투자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생산력을 증대시킴(신고전 경제학의 근거)
 - 신고전 경제학
 - 노동시장의 완전경쟁 상황에서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한계 생산력의 정도에 따라 노동임금이 결정된다는 이론

- 교육을 실물자본과 같은 투자재로 봄
 - 인간에 대해 교육, 실습, 건강, 등에 투자하면 생산성과 관계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여 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킴
 - 인간자체에 투자하는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로서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인간자본 투자 중에서 가장 큰 투자는 교육임(슐츠)
 -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간자본의 질과 경제력 생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
 -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함



[그림1] 인간자본론의 교육과 소득의 관계

3) 인간자본론의 한계

- 교육수준과 생산수준이 일치한다는 과학적 근거 부족
- 학력 인플레이션의 대두
- 고용주가 노동자를 선발할 때 대부분의 정보를 교육수준에 의존함
-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의 차이는 시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경쟁하는 이론들 2 / 2주차 2차시

1. 갈등이론의 대두배경과 이론적 특징

1) 대두배경

- 1960년대 전후, 기능주의의 사회구조적 모순이 노출되면서 등장함
 - 새로이 등장한 정치사회적인 신세대는 계급, 인종 등의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짐
- 신좌파운동
 - 비인간화 경향, 사회적 소외감, 배금주의, 관료주의 경직성 등의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향문화를 창출함
 - 배금주의
 - 재물(財物)을 지나치게 숭배하여,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재물에 두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나 태도
- 흑인민권운동
 - 1969년 마틴루터 킹목사의 암살을 계기로 인종 갈등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됨
- 사회학자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회갈등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적 구조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함
 - 따라서 새로운 이론적 대안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갈등주의 사회학에 주목하기 시작함

2) 이론적 특징

- 학교교육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콜먼보고서」, 콜의 「개방교실」, 코졸의 「자유학교」, 일리치의 「탈 학교사회」,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
 - 학교의 비인간화 교육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학교교육과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관련시킴
 - 학교교육은 사회적 평등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라고 봄
- 1960년대~1970년대 재생산론, 지위집단이론, 저항이론 등의 갈등주의 교육사상 출현
 - 갈등주의(Conflictism)는 인류의 사회적 재화는 한정되어 있지만, 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사회적 경쟁과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봄
 - 모든 사회집단은 각각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이해관계를 점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립할 수 밖에 없음

3) 갈등주의 사회관

- 지배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의 경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남
- 사회가 살아있으면 갈등은 끊임없이 진동할 수 밖에 없음
 - 갈등이 사회를 이루는 속성임

4) 학자별 사회적 갈등을 보는 관점

- 마르크스

- 자본주의의 사회의 모순과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의 경제를 둘러싼 계급갈등으로 파악하였음

- 베버

- 지위와 권력, 부를 차지하기 위한 집단 간의 갈등으로 파악하였음

- 공통점

-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임
-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불평등한 구조에서 기인함

2. 마르크스의 사회이론

1) 역사적 유물론

- 생산관계 필요성

- 어느 사회나 존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물리적 생활수단을 생산하기 위한 관계를 형성해야 함
-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관련되어 있으며, 생산물의 분배방식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것들은 총체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규정지음(계급관계 형성)
- 이를 통해 사회의 경제적 구조에 상응하는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짐

- 하부구조 vs 상부구조 (= 물질 vs 정신)

- 하부구조: 경제적 구조
- 상부구조: 정치, 종교, 문화, 교육 등에 관련된 제도와 그 운영 및 가치관, 관념, 이념 등
-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주장함
 - 경제적 결정론, 결정론(인간의 주체적 의지 부정)

2) 자본론(저서)

-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연법칙

-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현상의 하나임

- 갈등과 변화는 사회이론의 핵심

- 변화를 역설하면서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필연적임

3) 사회과학의 두 가지

- 정치경제학

-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 비판하는 것-갈등이론

- 마르크스를 해석하고 그 실현원리를 탐구하는 것

-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

3. 갈등주의의 교육적 관점

1) 마르크스 교육론의 특징

- 교육의 개념을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
 - 교육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으로 간주
- 교육은 사회개혁의 핵심적 수단임
 - 적절한 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하여 사회적 조건의 개혁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조건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체계의 수립이 필연적임(1869년, 제1 인터네셔널)
 -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정치적 활동과 동일시하고, 교육의 목적을 사회주의적 인간형성으로 명시하는 근거가 되었음
- 교육과 생산노동을 연계시킴
 - 사회의식과 사회적 존재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함(자본론)
- 교육과정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비판함
 - 교과목의 자치중립성에 관한 주장을 반격함
 - 이러한 생각은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이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4. 경제적 재생산론

1) 관점

- 자본주의 사회는 성격상 불평등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계급적 갈등이 불가피함
 - 학교교육은 계급적 갈등을 완화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적 수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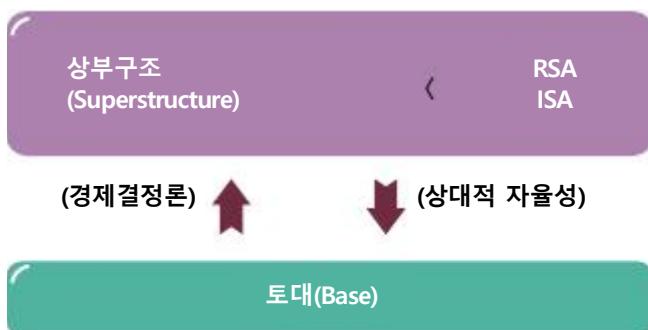
2) 대응이론 : 보울즈(Samuel Bowles)와 진티스(Herbert Gintis)

- 「미국 자본주의 사회와 학교교육」을 발표하여 경제적 재생산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1976년)
- 대응이론 개념
 -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불평등한 사회적 위계관계를 정당화, 합법화함으로써 지배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사회적 이익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
 - 자본주의적 생산의 위계관계를 학교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거울이론
 - 기업의 생산관계와 교육의 위계관계는 구조적으로 서로 마주보고 일치함
- 비인지적 특성 강조
 - 학교교육
 - 개인에게 사회의 생산관계에 필요한 인성을 내면화시킴으로써 지배계급이 요구하는 불평등한 위계의식을 반영함
 - 업적원리와 관계된 인지적 특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관계에서 필요한 비인지적 특성을 강조함

☞ 그 이유는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의 위계화를 공고히 하여,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함

3)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 알튀세(Louis Althusser, 1971)

- 학교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반영하는 가치, 규범, 태도 등을 아동에게 전수하여 변화하는 생산관계에 적응하도록 하였음
- 대응이론과 비교
 - 공통점
 - 학교교육이 아동에게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적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을 내면화함
 - 차이점
 - 경제구조에 대한 교육의 상대적 영향력을 인정함
- 사회구성체의 형성요건
 - 학교교육과 생산관계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실천 단계를 설명함
 - 사회구성체는 토대와 상부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 토대 :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나타내는 경제적 토대를 의미함
 - 상부구조 : 정치적, 법적 상부구조와 이데올로기 상부구조로 구성됨



[그림1]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

- RSA(Repressive State Apparatus)
 - ☞ 억압적 국가기구, 강제적 힘을 행사하는 경찰, 군, 행정부, 교도관 등으로 구성됨
- ISA(Ideological State Apparatus)
 - ☞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교육, 종교, 가족, 법, 정치, 무역, 미디어, 문화적 ISA로 구분
 - ☞ 자발적 동의를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알튀세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ISA기능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음.
자본주의적 모순을 은폐할 수 있는 기능이 교육적 ISA라고 하였음
 - 교육적 ISA
 - ☞ 노동의 재생산의 필수 요인인 기술의 재생산과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복종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이데올로기 실천의 재생산에 기여함

4) 이론적 한계

- 학교교육을 경제적 모순구도에 국한시킴으로써 정치, 문화, 역사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간과하였음
- 학생의 의식체계를 경제구조에 구속시킴으로써, 인간을 기계적이며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였음
- 교수-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간과하여 학교 내부를 검은 상자로 취급하였음

5. 문화적 재생산론

1) 관점

- 자본주의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이유를 문화 영역과 계급구조에 초점을 두어 밝히고 있음
- 학교교육은 상류층의 문화가 보편적 가치 기준이 되어 지배계급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불평등을 은밀하게 재생산하고 있음
- 문화에 대한 정의
 - 문학과 예술, 종료, 과학 등의 모든 상징체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의미
 - 절대적, 보편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에 따른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는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
-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적 자본은 어떤 자본보다 중요한 역할을 함

2) 문화적 자본의 역할

- 경제적 자본 : 금전, 토지, 임금 등의 화폐요소
- 사회적 자본 :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자본, 학맥과 정치사회적 연줄 등
- 문화적 자본 : 특정 문화에 계급적 가치가 부여되어 자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 상징적 자본 : 경제적 자본+사회적 자본+문화적 자본의 결합에서 파생되어 얻어진 신뢰, 위신, 명예, 존경, 명성 등

3) 문화적 자본의 구분 : 부르디외(Bourdieu)

- 몸과 마음속에 오랫동안 지속적인 상채로 남아 있는 성향들의 형태인 아비투스적 자본(Habitus Capital), 내면화된 지각, 인지, 행위, 습성, 성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3가지 중 가장 중요한 자본임
- 책, 그림, 사전, 도구, 기계와 같은 형태의 객관화된 자본
- 학위, 학력, 자격증과 같은 제도화된 자본

4) 이론적 한계

- 문화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외부적 요인을 간과하였음
- 문화구조에 인간의 특성을 제한함으로써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였음
- 문화적 자본의 핵심인 아비투스적 자본의 개념이 내우 모호함
- 교수-학습장면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도외시하였음
- 학교교육을 지배계급의 문화를 재생산하는 도구적 수단으로만 봄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저항의식을 약화시켰음

6. 지위집단이론(=지위경쟁이론)

1) 관점

- 사회적 이해관계가 지위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이런 이해관계는 지위집단이 선호하는 문화 양식에서 영향을 받음
- 지위에 대한 정의
 - 한 개인이나 집단이 유지하고 있는 신분, 직업, 학력 등에 따른 일정한 사회적 명예와 위신의 수준
- 현대사회에서 지위집단의 문화가 반영되는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는 학교교육임.
 - 학교교육은 특정 지위 집단이 요구하는 문화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이를 가치 있는 상징체 계라고 주입시키고 있음

2) 콜린스(R. Collins)

- 학교의 지위집단문화와 사회의 지위집단문화의 합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 학력의 선발 지표 기능이 높아짐
 - 학력은 지위집단의 문화적 수단을 나타내는 지표
- 지위집단의 학력은 단순히 특정 문화적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에 불과함
 - 학력이 실제 직업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지는 못함
 - 대학의 학업성적은 직업적 성공과는 무관함
 - 단지, 특정 지위구조에 들 어갈 수 있는 문화적 자격증에 불과함

3) 이론적 한계

- 학력의 문화적 자격증 기능을 부인할 수 없지만, 현대사회의 교육은 특정 생산적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음
- 고등교육 확대의 원인은 개인적 요구보다는 국가와 사회구조적 요구와도 많은 관계가 있음
- 학력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교육적 요인보다도 산업사회의 구조적 요인과 관계있음

7. 저항이론

1) 관점

- 재생산론의 인간관
 - 경제와 문화라는 구조에 인간을 한정시킴으로써 지배계급에 종속되는 구조적 존재로 봄
 - 기존의 구조적 이론과는 다른 인간관에서 출발
 - 인간은 사회구조가 규정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꼽두각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거부하며 저항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됨
-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철저한 의심과 비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자신과 사회의 해방을 위해 의식화 교육을 통한 현실 참여적인 실천을 중요시여김

2) 지루(H. Giroux)의 저항이론

-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의 간파를 통해 한계 인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거부, 비판, 저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생성론과 차이가 있음
- 보수주의 교육관은 대항 행위를 개인의 심리적 문제 즉, 일탈행위로 보고 있으며, 단순히 사회 병리학적으로 치료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
- 저항이론은 이러한 일탈행위가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사회구조적 불평등 등에서 기인한다고 봄

3) 이론적 한계

- 성(sex)과 인종문제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함
- 학생들의 저항행위에 대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 저항을 요구하는 사회 모순적 실체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 미흡
- 사회의 불평등 체제가 학생의 인성 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불명확함

경쟁하는 이론들 3 / 3주차 1차시

1. 신교육사회학의 대두 배경과 이론적 특징

1) 대두배경

- 교육을 통해 사회적 평등화를 도모하려는 인식에서 출발한 기능주의의 문제점 대두
 - 목적
 - 교육을 통해 인간의 삶의 질과 자아실현을 도모
 -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
 - 공동체적 삶을 향상시키고자 함
 - 교육은 사회의 기능적 효율성과 안정화를 추구하는 장치임
 - 오히려 학교교육이 계급 간 위계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
-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지배한 구조기능주의는 교육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하려 했으나 문제점이 대두됨
 - 교육기회의 균등을 증진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 교육적 일탈을 통제하는 일에 부작용 초래
 - 지식과 교육과정의 선발과 조직의 원리를 무시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제도적 장면과 상호작용의 특성을 무시하는 과오를 범하였음(Bernbaum, 1977)
- 학교 외부에서 교육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종래의 관점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등장
 - 기존의 교육사회학은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사회적 역학관계를 간과 하여서, 교육문제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함
 - 학교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 내부의 역학관 계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대두됨
 - 영(M. Young, 1971)
 - 「지식과 통제」 발표하면서, 신교육사회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
 - ☞ 교육내용 지식의 사회적 성격과 교사와 학생의 사회적 역학관계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
 - ☞ 학교 내부에 숨어있는 사회적 불평등 체계를 밝혀야 함을 요구함
 - 로버트(D. Gorbutt)
 - '신교육사회학'으로 명명하고, 교육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대안이라는 의미에서 '대안적 패러다임'이라고 함
 - ◆ C f: 기존의 교육사회학-'규범적 패러다임'
 - ☞ 교육과 사회의 관계를 거시적 수준에서 분석하여, 학교의 사회적 기능에만 초점을 두었음. 따라서 거시적 수준에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해석하였음
- 해석적 패러다임
 - 학교의 내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미시적 수준을 분석
 - 인간의 상호작용 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일정한 틀보다는 상황에 따른 해석적 과정을

요구함

2) 이론적 특징

■ 기본관점 : 해석적 패러다임

- 교과내용의 지식 구성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관계에 주목함
- 미시적 수준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 방법론을 주로 해석적 패러다임에 의존함
- 해석적 패러다임
 -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 일어나는 해석과 의미 부여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납적 설명의 해석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해석적 패러다임의 특징 : 번스타인(Brenstein, 1973)

- 사회 세계의 창조와 구성, 그리고 의미 창조자로서 인간관
- 거시적-기능적 사회학에 반대함
- 사회질서의 제반 가정들을 의문시함
- 객관적 범주의 사용과 양적 연구에 대한 불신
- 해석적 절차의 습득과 전달 강조
 - 거시적 방법의 일정한 틀에 의해 부여된 정형화된 해석에 반대를 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과정적 해석을 강조함

■ 해석적 패러다임의 중요한 개념 : 블랙키지와 헌트(Blackage & Hunt, 1985)

- 일상생활 : 일상생활은 사회적으로 구성됨
- 자유 : 일상생활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의해 이루어짐
- 의미 : 일상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그들의 행위에 부여되는 의미를 파악해야 함
- 상호작용 : 일상생활은 여러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짐
- 교섭 : 행위자는 서로의 이해와 해석을 공유하며, 이는 지속적인 의미의 교섭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신교육사회학의 다양한 연구방법

- 지식사회학

- 만하임(K. Mannheim)
 - 관점
 - ☞ 지식의 상대성
 - 지식
 - ☞ 역사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구성됨
 -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성격에 의해 그 가치가 규정됨
- 계급적 배경에 따라 지식의 사회적 구속성을 주장함

- 인본주의 마르크시즘
 - 루카치(G. Lukacs), 사르트르(J. Sartre)
 - 인간의 자유로운 주체 의지 강조
 - 자본주의의 물신화(物神化)로 인해 계급의식이 생기는데, 인본주의에서는 이러한 계급의식을 고양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체계를 극복하고자 함
 - 인간의 자율적인 대자적(對目的) 계급의식을 통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 함
 - 대자적(對目的) : 다른 것과 관계하여 자기를 자각하고 자기 자신과 대립하는 것
- 상징적 상호작용론
 - 미드(G. H. Mead), 호먼스(G. C. Homans), 블라우(P. M. Blau)
 -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서로 접촉하며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에 초점
 - 인간 상징을 매개로 일어나는 상호작용 속에서 사고와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사회적 현실이 생성, 유지, 변화됨
 - 인간은 일상생활의 상호작용 속에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적 존재임
- 현상학적 사회학
 - 슈츠(A. Schutz)
 - 인간의 의식에 초점
 - ☞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창조되었다는 의식의 구성을 강조함
 - 의식의 근원을 알기 위해 사회적 질서와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
 - 인간의 주관성
 - ☞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 주관성에 의해 사회질서를 구축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은 정형화됨
 - 세계를 한 개인의 창조물로 이해하며, 각 개인은 전기적 상황에 따라 정형화된 해석의 범주를 가지게 됨
 - ☞ 각자 자신만의 정형화된 해석범주를 가지고 있음

2. 교육과정의 사회적 구성

1) 교육과정의 특성

- 사회적 특성과 계급적 불평등 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 기능
 -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음
 - ☞ 학교교육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때문
 - 계급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합법화
 -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구성물임

■ 애플(M. Apple)의 관점

-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평등을 분석하면서 교육과정의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통제 형태에 초점
- 교수-학습과정의 일상생활 규칙 속에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자연스럽게 강조되고 있음
 -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한다고 봄
- 학교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창출하는 기관임
 - 헤게모니
 - ☞ 자본가 계급이 그들의 지배적 가치관, 규범, 문화체계 등의 우월성을 일상생활을 통해 은연중에 사회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켜 자신들의 지배적 위치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과정
- 학교는 헤게모니의 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 등을 자연스러운 사회적 결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함

■ 번스타인(Brenstein)의 관점

- 교육과정은 사회적 위계 원칙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임
- 사회의 권력과 통제 원칙에 따라 지식의 분류화와 구조화가 이루어짐
 - 이를 기반으로 교육적 지식이 만들어져 교육과정에 반영함
- 학교지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교육과정(Curriculum), 교수(Pedagogy), 평가(Evaluation) 체계를 구체화하였음
 - 교육과정(Curriculum) : 타당한 지식
 - 교수(Pedagogy) : 타당한 지식의 전달
 - 평가(Evaluation) : 지식의 실현
- 지식을 집합형 코드와 통합형 코드로 구분하였음
 - 집합형 코드
 - ☞ 교과목 간의 전문성 강조
 - ☞ 교과내용의 경계선이 뚜렷함
 - 통합형 코드
 - ☞ 교과목 간의 내용 경계선이 구분되지 않음
 - ☞ 교과목의 통합으로 인한 수평적 관계와 이데올로기적 합의가 내재됨
-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분류화와 구조화를 제시하였음
 - 분류화 : 내용 사이의 경계 유지 정도
 - 구조화 : 교수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통제력 정도

3. 교과내용의 사회적 구성

1) 교육과정의 특성

■ 교과내용의 특성

- 푸코(M. Foucault)
 - 지식은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식과 권력을 동일선상에 있다고 봄

■ 교과내용의 기능

- 사회의 계급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기능
- 지식 구성
 - 지배계급에 유리하게 편성
 - 계급적 불평등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제공함

4. 교수-학습의 사회적 구성

1)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 전기적 상황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의식체계의 만남

- 교사 : 자신의 전기적 상황에 의해 세계관을 구축
 - 이를 통해 사회적 해석을 함
- 학생
 - 자신의 고유한 의식체계를 가지고 있음
 - 교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세계관과 사회관을 구성함

2) 교수-학습과정의 특성

■ 역동적인 사회적 산물

-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세계를 조정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사회관을 만드는 탄력적인 관계임

■ 사회적 차별화

-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의 범주화된 규정
 -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무의식적으로 교사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 이루어짐
- 교사의 범주화
 - 계급적 위계성이 반영된 사회적 편견에 불과함
- 학교의 현실
 - 보이지 않는 계급적 관계가 스며 있음
 - 이러한 내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자연스럽게 수용함

경쟁하는 이론들 4 / 3주차 2차시

1. 교육사회학의 연구주제

1) 교육사회학의 연구범위

■ 교육사회학 연구의 관심

- 연구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함
 - 교육사회학은 교육에 대한 인간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 어느 사회에서나 교육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 교육 자체에서 교육사회학의 영역이 폭넓게 해석되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음
 -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사이버 교육 등
- 교육사회학은 인간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둔 학문적 성격으로, 대다수의 교육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해석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
 - 교육사회학의 연구주제는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임☞ 경쟁적 이론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새롭게 출범하는 이유

■ 교육사회학 연구주제에 대한 영역구분

- 교육사회학의 독립적인 연구주제 : 사회학의 이론적인 영역에 초점
 - 교육과 평등
 - 교육과 사회이동
 - 교육과 사회계급
 - 교육과 사회변동
 - 교육과 재생산
 - 교육과 사회적 지위
 - 교육과 사회적 이해관계
 - 교육의 사회적 기능
 - 교육과 사회화
 - 교육과 선발
 - 교육과 문화
 - 미래 교육의 변화
 - 교육정책
 - 학교풍토와 조직
 - 학업성취와 IQ검사

- 교육사회학의 학문 간 연구주제 : 교육학의 분과학문과 관련된 연구에 초점
 - 교육과정
 - 교실수업
 - 교과지식의 선발과 구성
 -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 교사와 학생의 사회학적 이해
 - 교육의 사회사
 - 사이버 교육
 - 교육행정의 사회문화
 - 교육과 평가
 - 학교입시제도
- 교육사회학의 사회현상적인 연구주제 :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교육의 현상에 초점
 - 학력, 학벌주의
 - 교육문화
 - 교육열
 - 교육정책
 - 대학입시교육
 - 학교의 비인간화 교육
 - 사교육비
 - 과외교육
 - 조기교육
 - 교육의 양극화
 - 학교의 촌지
 - 강남 8학군
 - 조기유학
 - 기러기아빠
 - 대학수학능력시험
 - 고교평준화
 - 반값 등록금
 - 무상급식
 - 3불정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3불정책

 - ★ 대한민국 대학입시제도-1999년 도입
 - ★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에의 3가지를 금하는 정책

2. 교육사회학의 연구방법

1) 연구방법의 개념

■ 연구방법의 조건

-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연구결과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시도할 때, 다양한 관점과 인식의 틀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함
- 학문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면서 체계적인 접근을 갖춘 모든 인식 틀은 연구방법 이 될 수 있음

■ 연구방법의 해석적 틀

-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
 -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의 틀
 - 새로운 대상과 현상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관점을 의미함
- 사회학적으로 보면, 뒤르켐, 파슨스, 마르크스, 베저 등의 사회학적 분석 방법의 틀이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사회학적 해석을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연구방법을 접근
 - 니체, 하이데거, 프로이트 등의 특정 인간관과 세계관에 의존하는 현상학적 분석도 해당될 수 있음

2) 연구방법의 구분

■ 인식론적 연구방법

- 인간관에서 출발한 사회관을 중심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적 해석방법
- 구조와 행위의 접근방법
 - 구조주의 :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
 - 행위주의 :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간주
 - ☞ 양극단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은 모든 사회적 현상을 '구조와 행위'의 인식론적 전략 틀을 고려함
- 대다수의 사회과학적 영역에서는 구조와 행위의 인식론적 연구방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
 - 구조와 행위의 틀 속에는 모든 인간관계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
- 구조와 행위의 정의
 - 구조 : 사회구조,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등을 포함
 - 행위 : 사회의 최소단위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개인적 행동
 - ☞ 인간의 행위는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도 함
 - ☞ 따라서, 구조와 행위는 분리될 수 없는 상호관계 속에 놓여있음

- 구조주의와 행위주의의 연구 방법론(이론과 비교)

구조주의 연구방법	행위주의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주의 교육이론 • 갈등주의 교육이론 • 뒤르켐 방법론 • 마르크스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학적 사회학 • 상징적 상호작용 • 해석학적 방법론

- 구조와 행위의 학문적 통합의 한계

- 구조와 행위가 현실적으로 상호 영향력을 교류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이러한 현상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체계가 마련되지 못했음
 ↗ 현재 사회과학적 이론들은 구조와 행위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

- 구조와 행위의 교육사회학적 해석

- 사회는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됨
- 사회는 구조에 해당되고 교육은 개인 행위의 변화를 유도하므로 행위에 속함
- 구조와 행위는 학문적으로 사회와 교육과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음
- 구조와 행위의 학문적 관계 속에 사회와 교육을 해석하는 것이 교육사회학임
- 사회와 교육은 상호 간의 영향을 미치나, 학문적으로 구조와 행위처럼 인식론적으로
상호관계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움
 ↗ 구조와 행위의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여 사회와 교육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이고
명확한 해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됨

■ 도구적 연구방법

- 객관적이며 수단적인 과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해석의 설득력을 높이는 연구방법
 -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있음
- 양적 방법
 - 통계적·실증주의적 연구방법
 - 모든 현상에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방법
 - 모든 분석대상과 현상을 수량화, 개량화함
 - 한계점
 - ↗ 인간의 복잡한 심리구조와 사회현상과 같은 수량화할 수 없는 대상을 수량화하고 있음
 - ↗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는데, 이와 반대로 수량화된
객관적 틀에 고정시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질적 방법
 - 인간의 주관적 행위와 관계에 초점
 -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유연한 해석적 관점을 위하는 입장
 - ↗ 주관적 해석

- 관찰, 면담
- 한계점
 - ☞ 개인의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므로, 사회적으로 객관화하기 어려움
- 삼각법, 녹음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사회적 상황에 따른 주관적 해석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인류학, 현상학, 민속방법론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 양적 방법의 객관성과 질적 방법의 주관성에 대한 방법론적 장점을 통합하여 연구방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통합적 방법

3. 교육사회학과 패러다임

1) 이론과 패러다임

- 이론의 목적과 중요성
 - 이론
 -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용이하게 하는 특정관점
 -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틀과 통찰력을 제공해 줌
 - 이론의 목적 : 현상간의 관계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틀을 통해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방식과 '인식의 안경'을 끊임없이 닦을 수 있는 사고의 기반을 제공해주므로, 이론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함
- 이론의 본질
 - 어떤 이론도 완벽하지 않음
 - 이론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함
 - 이론은 당시의 사회현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가진 설득력 있는 설명의 틀을 제시할 뿐임
 - 사회현상이 변화하면, 기존의 이론이 한층 발전하거나 새로운 이론이 나타남
- 이론분류의 틀-패러다임
 - 정의
 - 과학철학자 쿤(T. Kuhn)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그의 저서에서 과학의 발전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신조어임(1962년)
 -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임
 - 과학적 인식 틀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된 것이 점차 발전되어서 다른 학문 차원에서 이론과 인식의 구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사회과학에서 패러다임
 -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에 대한 인식 틀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규범적 패러다임, 해석적 패러다임, 기능주의의 패러다임, 갈등주의의 패러다임

한국교육제도의 변천 1 / 4주차 1차시

1. 근대적 학교제도의 도입

1) 개화기 이전의 교육

■ 유학중심의 교육

- 관리의 양성과 선발이 주목적으로, 지배계급을 대상으로 교육
- 교육내용
 -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비롯한 유학과 중국의 고전 중심 (초급교육 : 한문위주)
- 교육기회
 - 소수의 지배계층의 남자에게만 허용됨
 -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의 배움의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시킴

■ 조선시대 교육기관

- 관학(官學)

- 중앙정부와 지방관서를 설립하여 운영함

- 사학(私學)

- 민간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왕조초기에는 관학이 흥하고, 왕조의 안정기에 접어들어 사학이 흥함

- 성균관

- 최고 교육기관
- 관리임용제도인 과거제도를 관할함

- 교육이 관리임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하에 학생의 선발,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수임용 등을 엄격히 통제하였음

■ 교육지배방식

- 국가가 직접 국민을 교육하지 않고, 시험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학습활동을 조장하였음
단, 학습내용은 철저히 관리함
- 과거제도의 의미
 - 과거시험의 출제내용을 국가가 결정함
☞ 교육의 주도권을 국가가 가짐
 - 국민들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과거시험의 출제내용을 스스로 학습해야 함
- 서당과 서원
 - 국민들이 스스로 공부하거나, 지역별로 사설 교육을 통해 공부하도록 하기 위한 사설교육조직(소수의 국가 설립교육기관만 존재함)

- 교육내용
 - 유학을 중시함
 - 의의 : 교육이 그 사회의 이념을 유지시키는 국가기구라고 할 때,
한국의 교육은 역사적으로 이념의 재생산에 매우 충실한 역할을 하였음을 반증
- 조선왕조 후기(18세기)
 - 교육제도에 대해 비판이 일어나고 개혁론이 제기됨
- 2) 개화기의 교육: 교육의 근대화
 - 원산학사(元山學舍)의 설립
 - 원산학사(元山學舍) 정의
 - 주민들의 근대화의 요구로 1883년에 설립된 국가가 인정한 정식학교
 - 개항지에 필요한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는 근대적 학교
 - 배경
 - 개항으로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상인들로 인해 근대적 경영방식, 국제무역, 외국어, 새로운 학문,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이 유입됨
 - 교육과정
 - 문반과 무반으로 구분
 - ☞ 문반(文班) : 상업과 해외무역 및 행정중심
 - ☞ 무반(武班) : 치안유지를 위한 군사훈련중심
 - 특징
 - 주민과 개화된 지방행정관료가 주도
 - 전통적 교육기관인 서당을 근대화시킨 것
 - 외래의 근대적 교육기관의 모방이 아니라, 자생적 근대교육기관임
 →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화된 교육제도를 발전시킬 역량을 갖추었다는 반증
 - 육영공원(育英公院)의 설립
 - 1886년 6월 조선정부가 최초로 설립한 신식학교
 - 정부가 이용후생을 위한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을 도입하기 위해 설립함
 - 교육법규 제정
 - 한성사범학교관제(漢城師範學校管制)와 10여 개의 교육법규
 - 국·공립 초등학교 설립
 - 배재학당 설립
 - 1885년에 설립된 외국인 학교
 - 공교육에 의한 근대적 국민교육제도를 수립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함
 - 소학교령
 - 한성사범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관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하였음

- 민간의 학교설립운동
 - 민간이 자체적으로 학교설립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1908년-1,217개교 설립)
- 교육의 근대화(개혁)의 의의
 - 19세기 말에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
 - 군주제도를 벗어나 시민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의 결실
 - 폐쇄적 은둔국에서 개방적 국제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
 - 서구의 새로운 과학주의를 받아들임
 - 외부 침략세력으로부터 독립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력배양의 노력의 결실
 - ➔ 이미 100여년 이전부터 실학자들이 교육을 개혁하여 국민교육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누적되어, 19세기 말의 시대적 상황에 이르러서 교육개혁운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음

2. 일제(日帝)강점기

1) 식민지 교육

- 우민정책
 - 교육기회를 제한하여 한국인의 우민화를 획책함
 - 소학교령 공포(1905년)
 - 모든 사립학교로 하여금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탄압함
 - 조선교육령(1911년)
 - 한국인을 충성스런 일본인으로 개조시킴
 - 일본어를 사용하게 함
 - ☞ 일본문화의 주입과 한국의 민족문화를 말살함
 - 식민지의 효과적 경영을 위한 초보적 실업교육으로 제한함
- 식민정책을 위한 교육의 악용(제국주의의 산물)
 - 교육을 통해 식민지 주민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민족의식을 말살함
 - 식민지의 민족적 정체의식과 고유문화를 파괴하고, 민족과 개인의 정상적인 발전을 왜곡시킴

2) 민중 교육의 발발

- 야학과 학술강습회
 - 민족교육자들에 의한 새로운 교육의 판로를 열기 위한 노력
 - ➔ 일본이 「사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의 법령을 제정하여 탄압함
 - 일본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1920년대 말에 급격히 축소됨
- 서당(개량서당)
 - 서당의 형식을 빌어 근대적 민족교육을 수행함
 - ➔ 일본이 「서당규칙」(1918년)을 만들어 탄압을 강화하고, 「규칙」을 개정하여 말살정책을 펼침

3) 교육 독립투쟁

■ 교육투쟁의 4가지 목표

- 일본 총독부 교육정책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학교설립확대를 요구
 - 1919년 3·1운동 이후에 더욱 강화됨
- 사립학교를 통한 투쟁으로 식민정부의 휴교와 폐교를 막기 위함
- 지하에서의 비밀 민족교육
- 만주, 중국, 연해주 등 해외에서의 민족교육운동

■ 상해임시정부의 활약

- 교육방침: 1923년 5월 10일 공포
 - 교육종지(宗旨)는 조국광복의 정신 아래에서 건전한 시대적 인물을 양성하는 일
 - 교육방침은 최신교육의 원리를 응용하여 우리 민족에 적합하도록 보편과 특수의 양종(兩種)교육을 병행하는 일
 - 교육제도는 현대의 실용제도를 채용하되, 소학은 남녀 만 7세부터 13세까지 의무제도로 할 일
 - 교과용 도서는 중앙교육기관에서 최단기간 내에 편찬, 발행케 할 일
- 건국강령 제정 : 1941년 11월(주교재 152쪽 참조)
- 의의
 - 독립투쟁과정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독립 후의 교육에 대한 이념과 제도를 분명하고 자세하게 제시하였음
 - 남북이 통일 후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 교육제도를 구상하는 지침서

한국교육제도의 변천 2 / 4주차 2차시

1. 분단하의 교육제도 : 남쪽 중심의 교육상황

1) 미군정기 : 해방 후 3년간

- 미국식 교육체제 구축
 - 교육원조추진위원회(1945.10) 설치하고, 미국으로부터 교육조사단을 내한토록 함
 - 교육조사단의 권고
 - 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교사 양성 및 미국식 교육이론과 방법을 소개하는 교사재교육을 실시함
 - 조선교육위원회, 조선교육심의회 등의 자문기구 설치
 - 친일인사들을 교육주도세력으로 양성해 나감
- 교육원조의 본격화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 물적 원조 : 전쟁으로 피폐된 학교시설 재건 및 교육용품 제공 등의 긴급구호
 - 기술원조 : 미국과의 교육파견 및 유학을 통한 교육철학과 교육체제를 전수
 - 교육사절단 내한 : 1952~1961
- 교육행정원 설립
 - 사범대학 및 사범학교 등의 교사양성기관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 중앙교육연구소(1953. 3. 9)설립
 -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주도하여 한국교육의 성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
- 3차 교육사절단
 - 제1차 교육과정 제정(1955)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교육과정 지침」보고서 제출: 제1차 교육과정의 기본원칙에 반영된 생활중심, 아동중심교육과정 이론인 진보주의 교육철학에 입각한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한국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2) 국민교육제도의 수립과 전개

- 학교중심의 국민교육제도
 - 학교
 - 법적 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득해야 함 (유치원과 대학 및 대학원 포함)
 - 교육법 제정(1949) : 학교중심 공교육제도 확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법 또는 가른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경영하며,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한다(제6조)

-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의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한다(제7조)

→ 학교의 설립과 경 영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권력기구로 한정함

- 학교 외의 모든 교육기관이 공공권력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규정

■ <교육법>의 의의

- 새로운 교육법체계에 따라 1977년 <교육기본법>을 제정할 때까지 약 50년간 한국의 교육제도의 법적 토대로 기능하였음
- 국가주의적 국민교육제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됨
- 현재 한국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본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지속되고 있음

■ <교육법>의 내용

- 학교의 종류 구분: 정규학교조직 vs 비정규학교조직
 - 정규 : 학력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학제를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곳=기간학제)
 - 비정규 :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기관으로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등(방 계학제) → 최근에 학력인정 학교가 증가하고 있음

3) 새로운 교육방식의 학교들의 출현 : 1970년대 등장, 1980년대 확대, 1990년대 감소

■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 1970년대

- 교수매체를 교실수업에서 방송과 통신을 활용하여 교실 밖에서 진행하게 함
 - 매일 학교에 출석할 필요 없이 개별적으로 방송강의를 청취하고 우편으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방식 → 원격교육 산업체부설 특별학교: 1970년대
- 산업체내에 근무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립한 학교
-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에 맞춰서 학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 개방제 대학

- 3·4학년 과정을 위한 대학
 - 전문대 졸업자 대상으로 취업 후에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고안한 대학제도
 - 학생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학과 직업세계 간의 유대를 강화함
 - 최근에는 여러 대학이 일반대학교로 전환하였음

■ 새로운 교육방식 출현의 의미

- 교육인구의 대중화에 대한 학교제도의 변화
- 교육인구가 증가함
 - 학교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졌음
 -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조적 분화가 불가피하게 됨
- 앞으로도 분화를 통한 지속적인 학교의 다양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 교육단계구조(기간제 중심)

- 기본적으로 6·3·3·4제

- 초등학교 6년
- 하급중등학교(중학교) 3년
- 상급중등학교 (고등학교) 3년
- 고등교육(대학교) 4년으로 구성

단, 의과대학 6년, 석사, 박사과정, 2·3년제 전문대학과정 등이 등장하였음

- 의무취학제도

- 초등학교 6년 과정~중학교 3년 과정 (총 9년)

- 학제

- 단선형(기간학제 중심)
- 참고

☞ 미국은 대중평등주의(Egalitarianism)

→ 중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진학반과 직업반의 뚜렷한 구분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

☞ 유럽은 정예주의(elitism)

→ 중등교육단계에서 대학진학준비와 직업준비를 뚜렷이 구분하는 편

→ 대학진학준비 과정에 엄격한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학생 수를 제한하고 있음

→ 오늘날에는 대중평등주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

4) 몇 가지 특징과 변화

■ 철저한 국가관리 공교육 제도

- 원인

- 식민지 시대의 전제주의적 교육제도를 극복하지 못함
- 남북분단 하에서 교육이 체제경쟁과 안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옴
- 교육은 이념대결의 핵심적 장치가 되었으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이게 됨
→ 이념과 관련된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내용 등을 엄격히 통제함

한국교육의 민주화 및 교육자치실현의 목표

-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자율의 범위 확대
- 교사의 전문적 자율권을 존중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정권 확대
- 학교의 책무성과 교사의 윤리 정착화
 - 5·31 교육개혁방안(1995)
☞ 학부모, 교사, 시민들의 교육운동(교육시민운동)

- 교육의 중심부 국가로 도약을 위한 노력
 - 중심부 국가 vs 주변부 국가
 - ① 중심부 국가
 -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계속 창출하여 주변부 국가에 나누어 주는 국가
 - ② 주변부 국가
 - 교육시설, 도서관, 교육비 등의 부족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역량이 낮으므로, 고급인력과정과 석·박과정은 중심부 국가에 의존하는 국가
 - 자국의 고급교육체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초·중등교육에서도 민족문화가 경시되고, 외래문화가 존중 받음(교육적·문화적 종속이 심화됨)
 - 우리나라
 - 해방 이후부터 대학원 수준 이상의 고급교육을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 의존함
 - 학문적 자립과 교육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시급함
 - 2000년대에는 정부와 대학들이 고등교육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5) 교육개혁

- 교육개혁안 발표(교육개혁위원회, 1998)
 - 정부차원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서 발표하였음
- 방향과 목표
 - '열린교육사회' 공표: 교육개혁위원회 첫 번째 발표한 교육개혁방안
 - 교육개혁 목표 천명
 -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 → 신교육 체제
 - 신교육 체제의 특징
 - 학습자 중심 교육
 - 교육의 다양화
 -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 교육의 정보화
 - 질 높은 교육
 -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과 참여권 도입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
 -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율과 책무성
 - 자율화
 - ☞ 교육체계의 전 영역에 걸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강화, 교육기관의 자율확대,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 확대

- 책무성
 - ☞ 학교와 대학, 교사와 교수들의 역할수행에 대한 책임감(대학의 사회적 책임)
 - ➔ 교사들은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도 뒤따름
- 개혁과제 내용
 - 총체적 개혁을 지향함(5·31 개혁안)
 - 교육의 개념 확대
 - ☞ 학교중심교육에서 벗어나 배우는 활동에 비중을 둠(수요자중심 교육)
 - 교육법 체계 구축
 - ☞ 교육관련 핵심법안 전면 개편(교육법 개편)
 - 교육운영의 기본 철학 변화
 - ☞ 학교와 대학의 운영을 자율화하고 교육관련 집단의 참여 확대
 - 대학입시제도 개혁
 - ☞ 학교생활기록부를 필수전형자료에 포함
 - 학생들 간의 경쟁중심의 체제 변환
 - ☞ 교육기관과 교사, 교수들 간의 경쟁강화
 - ➔ 이러한 개혁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학적 관점(수요자중심 교육, 학습자 권리 등)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의 필요함

학교교육의 확대와 원인 1 / 5주차 1차시

1. 학교교육의 확대

1) 국제적 동향

-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전 식민지 국가)
 - 성인을 위한 문해(文解)교육 시급
 - 1980년까지의 중등학교 취학률 : 17.2%
 - 2005년까지 평균 문해률은 불과 55.2%임
 - <출처 : 유네스코, 2000, 2008>
- 유럽지역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 정예주의 교육제도
 - 초등교육은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중등교육은 그렇지 않음
 - (초등학교 졸업자격시험 실시로 소수의 합격자에게만 중등학교로의 진학 허용)
 - 종전 후
 - 중등교육의 대중화 시작
 - ☞ 초등학교 졸업자격시험 폐지 또는 완화
 - ☞ 중등학교 과정을 복선제에서 단선제로 전환
 - ➔ 대학진학의 가능성 확대
 - OECD의 대다수 회원국들의 의무취학기간 연장(15~16세까지)
 - 미국 : 17세
 -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 18세
 - 1970년대부터 대학의 문호 확대로 10% 내외이던 고등교육취 학률이 2006년에는 70%에 달함
- 미국
 - 20세기 전반기
 -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중등교육이 확대
 - 2차 세계대전 이후
 - 고등교육이 확대됨(고등교육 취학률이 90% 이상에 달함)
 - 학교교육의 단계적 확대로 각 교육단계의 기능을 변화시킴
 - 미국 중등교육의 변천과정 : 트로우(Martion Trow, 1977)
 - ① 소수의 대학준비기능단계
 - 1870년 이전의 중등교육시기
 - 중·상류층의 소수에게만 제공됨
 - 인문중심 교육내용으로 대학준비를 위한 교육

② 직업준비교육단계

- 1870년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실업중등학교의 설립 증가
- 대부분의 중등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 직업생활에 들어감

③ 대중의 대학준비기능단계

- ☞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교육현장으로 대학교육이 개방되어 대중에게 직업준비 교육 중심에서 대학준비 교육중심으로 바뀌게 됨
- ☞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던 실업학교나 취업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기피현상이 일어남

■ 우리나라

- 다른 나라에 비해 고등교육 취학률이 급격히 증가
 - 학구열은 높아졌으나,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함
-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입시과열을 초래함
 - 실업계 고등학교가 존폐위기에 놓임
- 대학교육의 성격의 변화
- 정예주의적 고급전문교육에서 대중주의적 일반교육으로 바뀌고, 고급 전문교육은 대학원이 담당하는 새로운 체제로 바뀌고 있음
 - 학부중심에서 대학원 중심체제로 전환: 학교의 기능변화

2) 한국의 학교팽창

■ 취학률

- 20세기의 세계적 동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인구도 급증함
- 2007년을 기준으로
 - 초등학교 99.3%, 중학교 96.0%, 고등학교 91.3%, 대학 69.4%로 선진국의 평균을 능가함

연령	한국 취학율	OECD 평균 취학률
15~19세	85.6%	81.5%
20~29세	27.3%	24.9%

- 한국의 취학률이 연령대별로 구분하였을 때도 OECD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음
-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학력상승을 가져옴

연령	1975년	2010년
대졸이상	5.8%	35.7%
고졸	13.9%	36.9%

2. 학력상승의 원인

1) 학습욕구이론

■ 아리스토텔레스

- “모든 인간은 천성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학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해지는데, 그러한 교육을 제공해주는 곳이 학교이고, 이것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임

■ 매슬로우(Abraham Maslow, 1965)의 동기이론

-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타고난 가능성과 소질을 실현하려는 욕구와 사물의 뜻을 알고 이해하려는 욕구,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
 - 인간의 일곱 가지 욕구를 제시하였으며,
 - 그 중 ‘알고 이해하려는 욕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음
- ‘인간이 우주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소박한 호기심과 사물을 알고, 설명하고, 체계화하고, 이해하려는 욕망이 존재한다. 지적 욕망의 충족은 그 자체로서만족 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 인간이 생물적 및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존만 확보되면 곧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학습욕구임
- 오늘날 학교의 팽창의 원인은 인간의 학습욕구와 경제적 성장에 있음

■ 현대사회의 학교교육의 비판적 관점 : 일리치(Ivan Illich, 1971)

- 학교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인간이 원하는 참된 교육을 되찾을 수 있음
- 「The Deschooling Society」
 - 현대산업사회의 여러 모순, 즉 비인간화, 물질주의, 소외, 빈부격차를 기르고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적 제도를 분석함
 - ☞ 강제로 취학시키는 공교육과 지나치게 제도화된 학교를 비판하였음
 - ☞ 학교를 넘어 새로운 교육문화와 제도인 ‘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제안
 - ➔ 개개인이 상호 의존하면서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교류가 가능하다고 봄
- 학교의 기능을 보호, 선발, 교화, 학습의 4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이 가운데 학습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비판함
- 오늘날의 현실 : 한국 중심
 - 진정한 학습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교육을 받고, 고학력을 추구하는 현상
 - 중고등학교
 - 지적, 인격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아닌, 상급학교 입학준비에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음

2) 기술기능이론

■ 기술기능이론의 개념

- 기술기능이론

- 산업사회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직업기술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학력이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는 이론
- 학교제도와 직업세계가 상호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학교는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장치이며, 직종수준에 따라 학교제도도 발달하게 됨
 - 학력 사회는 고도산업사회의 당연한 결과임

■ 클락(Burton Clark)의 「전문가 사회의 교육」

- 유능한 기술자와 전문가를 요구하는 현시대에,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가 충실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콜린스(Randall Collins, 1971)의 기술기능이론 정리

- 산업사회에 있어서 직업의 기술요건이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높아짐에 있어서 두 가지 과정을 거침
 - 낮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비율이 줄어들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증가함
 - 동일 직업 내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높아짐
- 학교교육은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직업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일반능력을 훈련시킴
- 취업을 위한 교육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더 오랜 기간 학교교육을 받는 인구가 증가함
- 과학기술의 변화가 학교교육의 장기화 및 학력상승을 가져옴

■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천 : 한국

- 지난 50년간 1차 산업중심에서 2차와 3차 산업중심으로 이해하였음
- 이러한 산업중심의 변화는 학력상승을 유발하였음
-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취업 인구가 급증함
(1955년 3.7% → 2013년 20%로 증가)

■ 오늘날의 현실

- 교육과 고용의 불일치 현상은 기술기능이론의 입장을 반론하고 있음
- 고등실업자의 누적으로 인해 사회불안요소가 야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교육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전공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직업기술수준과 학력수준이 일치한다는 기술기능이론과 반대되는 현상

학교교육의 확대와 원인 2 / 5주차 2차시

1. 학력상승의 원인

1) 마르크스 이론

■ 보울즈와 진티스(Bowles & Gintis, 1983)의 주장

- 상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Morrow & Torres, 1995)에 근거하여 미국교육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팽창에 관해 연구함
- 상응이론
 -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학교교육은 상응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에 따라 학교교육도 확대된다는 이론
- 미국 학교제도의 발달은 교육 그 자체, 즉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교육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의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자본가계급에 의하여 발전함
- 미국의 학교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회규범을 주입시키는 핵심적 장치라고 주장함
- 초기 의무교육제도는 노동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실시한 것임
 - 따라서, 미국의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육제도의 주장을 부정함
- 미국의 초등교육은 지적 내용보다 규범적 내용을 강조함
 - 이는 노동자들에게 태도적인 측면을 교육시킴으로써, 상급계층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교육을 이용한 것임
- 단계별 교육의 목적
 - 초등교육 : 하급노동자들의 훈련을 위하여
 - 중등교육 : 기능직과 초급 사무직의 훈련을 위하여
 - 고등교육 : 중견 기술자와 관리직의 훈련을 위하여

■ 미국의 중등교육의 변화

- 20세기에 들어와서 중등교육이 급속히 확대됨
 - 산업화의 결과로 생산체제가 대량생산체제로 바뀌어 새로운 종류의 인력이 요구됨
- 종합고등학교 등장
 -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와 직업훈련을 위한 실업계를 통합하여 운영
 - 인문계 진학계열은 중 상류계층이, 직업계열은 하류계층이 속하여 계급차이에 따라 차등적 사회화를 통한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함
- 학교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편리하므로,
 - 미국사회는 중등교육을 보편화하고 의무교육으로 발전시킴

- 대학교육의 확대도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산물임
- 신마르크스 주의의 의의와 문제점
 - 학교교육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에 일침을 가하고,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학교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있음을 지적함
 - 교육을 자본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단정시키고, 교육의 다른 측면 즉, 학습자 자신의 이익 등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문제점 발생
- 마르크스 이론 vs 기술기능이론

	마르크스 이론	기술기능이론
차이점	갈등이론에 근거	기능주의에 근거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수단적 기능의 관점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실히 가르침 - 기술수준의 향상이 학교교육을 확대시킴 • 학력상승의 설명에 있어서 모두 성공하지 못하는 이론임 	

2) 지위경쟁 이론

- 개념
 - 지위경쟁 이론
 -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는 탓으로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는 이론
 - 상급학교로 진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
 -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기 위한 경쟁에서 학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
- 지위경쟁이론의 대두 및 학교의 등장
 - 현대 시민사회에서 귀속주의 대신 업적주의가 등장하였음
 - 업적주의
 - 개인에 대한 평가를 그가 속해있는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질과 능력으로 평가함
 -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
 - ★ 학교가 해결책으로 등장함
 - 학교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적을 매기고 진급시키는 업적주의의 효과적 장치로 등장하여 모든 나라에서 학교제도를 통해 사회적 선발장치로 이용함
 - 학교는 사회적 지위획득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함
 - 막스 베버의 이론을 반영함
- 한국의 현실과 지위경쟁 이론
 - 모든 사회생활영역에서 학력은 결정적으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교육수익률을 비교할 때, 학력과 경제적 수준이 비례함

- 교육수익률
 - 학력차가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수입과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비교하는 방법
(=교육투자수익률)
- 지위경쟁이론은 한국의 현실과 매우 유사함
- 학력상승의 연쇄현상
 - 학력은 개인의 경제적 소득과 높은 관계가 있지만, 직업지위에 더 높은 관계가 있음
 - 학력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침
 - 학력상승의 연쇄현상
 - 지위획득 수단으로 학력이 작용하며 진학률 상승 → 졸업생 증가 → 학력의 가치 하락
→ 새로운 학력상승 등장 → 반복현상 → 학력의 평가절하현상 발생 → 교육인플레이션
 - 교육의 질적 상태는 나빠지고 양적 확대현상만 일어남
- 지위경쟁이론의 단점
 - 학력상승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학교교육 확대를 경쟁의 결과로만 생각함
 - 학교교육의 내용적 측면에 관심을 두지 않음
 -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고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킴

3) 국민통합 이론

- 개념
 - 국민통합 이론
 - 교육팽창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설명하는 이론임
cf) 기능이론과 마르크스 이론은 경제적 요인에 지위경쟁이론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교육팽창을 설명함
 - 국가의 형성과 이에 따른 국민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이 팽창되었다고 설명함
 - 교육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기제
 - 또한 국민들에게 일체 성을 형성하는 제도
- 교육체제의 정치적 통합수준 : 라미레즈 외(F. O. Ramirez et al, 1979)
 -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교육제도에 대한 국가통제의 정도가 높으며,
 -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강함
 - 교육의 정치적 통합수준은 국가가 교육을 규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7가지를 측정한 것임
 -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 수준
 - 교육에 대한 일반적 통제 수준
 - 학생입학을 통제하는 정도
 - 교육과정을 통제하는 정도
 - 시험을 통제하는 정도
 - 학생에 대한 재정의 원천
 - 학교에 대한 재정의 원천

- 국민형성모형
 -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인 교육팽창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
 - 국가권력의 팽창과 국민정신교육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학교교육이 수행하는 역할을 강조함
 - 국가권력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을 제도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학교교육이 팽창되었음
- 국민통합이론의 의의
 - 국가의 이데올로기 통합과정에서 교육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을 새롭게 강조하였음

2. 논의 - 한국의 학교팽창 원인 탐구

1) 학교팽창의 원인에 대한 총체적 관점

- 러빈스과 랠프(Rubinson & Ralph, 1984)
 - 특정 역사적 시점과 특정 지역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학교팽창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요구됨(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
 - 학교팽창의 구체적 특성과 양상은 사회적 조건과 교육체제의 성격을 달리하는 국가나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남
- 아처(M. Archer, 1982)
 - 기존의 학교팽창 이론들이 주장하듯이 학교팽창은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님
 - 학교팽창
 - 정치·경제 등의 사회적 조건과 교육체제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현상임
 - 학교의 다양한 현상
 - 학교를 중심으로 안팎의 집단 간의 경쟁과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짐
- 이혜영(1992)
 - 아처와 같은 관점으로 한국의 학교팽창의 메커니즘을 분석함
 - 1961년~1980년까지의 대학정원의 변화과정, 대학정원 결정에 관여하는 사회세력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 연구결과, 대학정원의 억제와 확대는 대학정원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인 학생, 학부모, 대학, 산업체, 정부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
 - 학교팽창의 원인
 - ① 한국 학부모들의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
 - ② 학교와 대학들의 학교교육 확대 유도
 - 사립학교 중심
 - ③ 기업을 비롯한 경제계의 학교교육 확대에 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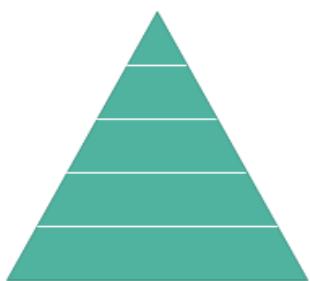
- 인력의 풍부한 양성 공급을 학교로부터 제공받기 위함
 - 산업계 내의 인력선별 장치가 발달하지 못하여 인력양성과 재교육기능도 취약함
 - 학교와 대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기업주도적으로 상위학력을 요구한 결과, 학벌사회를 조장하는데 영향을 미침
- ④ 정부의 방임 또는 조장, 학계의 무책임
- ⑤ 배타적 학교중심 교육제도
- 한국의 학교팽창의 원인
- 해방 직후 학교설립이 절실하였으나,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되었음
 - 사립학교의 재정확충을 위한 학생 수 확보에 관심이 높아짐
 - 사립학교의 '학교 기업화'가 심화되면서 교육의 질을 엄격히 관리하지 못함
 - 신분제도의 단기간 내 붕괴로 인해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 장치로 등장하게 됨

교육과 사회평등 1 / 6주차 1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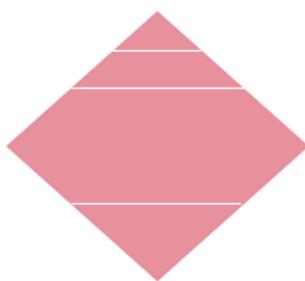
1. 계층과 사회이동

1) 사회계층의 개념 및 특성

- 사회계층, 사회계급, 계급사회의 개념
 - 사회계층 (Social Stratification)
 - 개인들이 지니고 있는 갖가지 사회적 요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층
 - 사회계층은 사회계급(Social Class), 또는 계급과 같은 의미
 - 계급사회
 -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계층상의 위치를 의식하고 있고, 각 층에 속한 사람들이 동일한 정치적, 경제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계층상을 각기 다른 동류의식을 자진 집단들의 구성)
- 사회계층의 형성요인
 - 사회에 따라, 시대에 따라 형성요인이 다름
 - 현대사회에서는 직업, 교육, 소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계층구조의 형태



전통 농경사회형



현대 산업사회형

- 전통적 농경사회형
 - 삼각형태
 - 다수의 하층민과 소수의 상층민으로 구성
 - 평등하지 못한 사회구조
- 현대 산업사회형
 - 마름모형태
 - 소수의 하층민과 상층민, 다수의 중간층으로 구성된 구조
 - ☞ 삼각형태보다 평등해진 사회구조
 - 평등사회로 접근할수록 삼각형이나 마름모의 높이가 줄어들면서 중간층이 확대하게 됨
 - ➔ 계층구조의 평등화

2) 한국의 계층구조

■ 1955년~1995년

- 하층계급이 급속히 축소되고 중간계층이 빠르게 성장하였음
 - 하위직업인들이 대폭 감소하는 반면, 중위직업인들과 상위직업인들이 크게 증가함
- 1990년대부터 상위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대폭 증가함
 - 한국 사회의 계층구조가 평등사회 방향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함
- 1990년대 이후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3) 계층구조의 변화과정 이해

■ 사회이동과 계층구조 관계

- 계층이동(=사회이동)
 -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계층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
 - ☞ 상향이동 & 하향이동
 - ☞ 세대 간 이동 & 세대 내 이동
 - 사회이동이 이루어지면 계층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됨
 - 사회이동
 - 비교적 안정된 계층구조 내에서 일어나거나, 계층구조 자체의 변화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일어나게 됨
 -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계층구조변화와 동시에 사회이동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음
- ### ■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과 교육의 관계
- 사회이동과 계층구조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 혁명이나 전쟁 등의 사회변혁, 신기술개발에 의한 직업세계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 사회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교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임
 - 교육을 통한 개인의 지식과 능력향상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해 교육사회학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임
 -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과 교육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계층구조의 파악이 필요함

2. 교육의 기능

1) 사회적 평등에 관련된 교육정책의 5가지 관점: 글렌어스터(Glennerster, 1979)

■ 구시대 관점

- 각 신분계층마다 다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계층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
- 교육은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능력주의적 관점: 평등화론

- 학교는 사람들의 능력을 선별하여 각자에 알맞은 수준의 교육을 시켜 유능한 자는 높은 사회적 지위에 배치하고, 무능한 자는 낮은 지위에 배치하는 역할은 담당한다는 관점
- 교육이 능력주의 사회의 핵심장치로서 기능함

- 평등주의 관점: 평등화론
 -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기존 계층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관점
 - 불우계층을 교육을 통하여 상승 이동시켜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함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불평등재생산론
 -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집단에 봉사하므로 혁명에 의한 사회변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사회의 평등화는 불가능하다는 관점
 -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은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주장함
- 현실적 평등주의: 무관계론
 - 교육은 여러 사회제도 가운데 하나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주어야 하나, 평등교육이 반드시 평등사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

2) 평등화론

- 평등화론
 - 프랑스 혁명 아래,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학교가 모든 사람의 삶의 기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함
 - 1960, 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불우한 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한 대대적 보상교육 프로그램도 평등화 신념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음
 - 호레이스 만(Horace Mann)
 - 19세기 미국의 초등 의무교육운동
 - 교육을 '위대한 평등장치'라고 칭함
 -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함
- 사회평등을 위한 장치로서의 학교에 대한 두 가지 관점
 - 평등주의
 - 교육을 통하여 불평등 구조 자체를 없애거나 축소시키는 것(계층구조의 평등화)
 - 계층구조 자체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
 - 한 사회 내의 불평등구조, 계층격차를 줄이면 평등해짐
 - 능력주의
 -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능력본위로 결정한다는 것(사회이동의 능력주의)
 - 계층구조는 그대로 두고, 개개인의 계층이 능력본위로 이루어지면 사회불평등이 해소된다는 것
 - 사람들의 계층을 능력에 따라 결정하면 그만큼 평등해짐
 - 학교교육 기회가 능력에 따라 분배되고 있을 때 가능함

■ 학자별 평등화론에 대한 탐구

- 해비거스트(Havighurst, 1961)

- 교육은 그들의 부모의 계층으로부터 상향이동시킴으로써 사회평등화에 이바지함
- 상향이동 요인은 교육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촉진됨
- 교육
 - ☞ 다음 세대의 상향이동을 촉진하므로, 교육의 보편화는 평등사회에 이르는 촉진체가 됨
 - ☞ 소득분배구조를 재편성하고 직업구조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평등사회를 이르는 데 기여함
 - ☞ 사람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사회는 점차 평등해짐

- 블로 & 던컨(Blauw & Dancan, 1976)

- 「미국의 직업구조」에서 사람들의 직업결정에 교육이 실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실시
- 직업지위 획득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적·분석함으로써 세대 내 사회이동의 과정을 밝히려고 함
- 지위획득의 결정변수를 4가지로 도출함
 - ☞ 아버지의 교육
 - ☞ 아버지의 직업(사회적 배경)
 - ☞ 본인의 교육
 - ☞ 본인의 첫 번째 직업(교육정도와 경험)
- 개인이 받은 교육과 초기경험은 그의 직업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력을 계층배경요인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함
- 개인의 첫 번째 직업지위에 미치는 학력의 영향은 다른 요인보다 큼
- 한 개인의 직업지위는 본인이 받은 교육수준과 그 교육에 의한 첫 번째 직업의 영향을 크게 받음

■ 경제학자들의 교육과 소득의 관계연구

- 교육을 소득분배 평등화의 중요장치로 여김

- 교육에 의한 저소득층의 생산성 향상이 이들의 소득을 향상시킴

- 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미숙련자노동자의 공급이 줄어듦으로 그들의 희소가치 때문에 소득이 향상됨

- 교육받은 기술인력의 공급증가가 고액 소득자의 소득증가를 둔화시킴

- 소득분배의 평등화

-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소득을 결정하는 가장 뚜렷한 요인이라고 주장함

■ 후속연구를 통한 결론

- 교육은 직업지위 획득에는 명백한 영향을 주지만, 소득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함

- 상위직업일수록 높은 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직업지위와 교육수준의 일치도가 높음

- 소득은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의 교육수준 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음

교육과 사회평등 2 / 6주차 2차시

1. 교육의 기능

1) 불평등재생산론

■ 기본입장

- 마르크스주의자를 비롯한 갈등론자들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이론
- 교육은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계층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재생산하며, 때로는 불평등을 더욱 조장한다고 주장함
- 교육은 지배층에 봉사하는 장치로서,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는 통로임

■ 보울즈

- 미국의 교육역사는 사회평등화의 역사가 아님
- 교육이 사회불평등을 재생산하고 합리화해 온 사실에 대하여
 - 미국의 학교는 평등의 추구를 위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기술인력을 자본주의 기업자들에게 공급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한 사회통제의 장치로 필요하기 때문에 발전한 것임
 - 기술을 갖춘 교육받은 인력의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계급구조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재생하기 위하여 학교제도의 불평등이 더욱 중요해짐
 - 미국의 학교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계급불평등에 물들어 있음
 - 학교위원회나 기타 교육정책결정기수에 대한 관리가 불평등하지만 이것만으로 교육제도의 불평등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 교육불평등의 원천은 학교제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의 계급구조를 발생시킨 자본주의 경제체계에 있음
- 교육은 사회불평등을 지속시킴
 - 그렇게 함으로써 기득권을 지닌 계층에게 봉사하는 행위임
- 학교교육이 능력주의에 따라 실시되며 교육수준에 따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처럼 위장함
 - 불평등구조의 존속을 정당화하기까지 함

■ 카노이(Carnoy, 1972)

- 교육수익률의 교육단계별 변화에 대한 연구
 - 교육수익률
 - ☞ 학교발달의 초기에는 낮았다가 취학률이 높아지면서 교육수익률이 상승하였음
 - ☞ 그러나 취학이 보편화되고 상급학교가 발달하면서 다시 교육수익률이 낮아졌음
 -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 때(=교육수익률이 높을 때)에는 중·상류층이 다니면서 그 이득을 취하고, 하류층은 이득도 없이 뒤만 따라다니게 됨

- 르아트 & 페론(Wright & Perrone, 1977)
 - 교육이 사회평등화에 아무런 이바지도 하지 못하고 기존의 소득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기만 한다는 연구
 - 교육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직업집단별, 성별, 인종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과 계층구조와의 관계에 대해 밝히는 연구
 - 기존의 연구들보다 매우 체계적임
 -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계급, 직업, 지위, 교육수준, 경력의 영향력과의 연관성 분석
 - 소득과 교육의 비례관계가 가장 높은 계층은 고용주 계급임
 - 상층계급일수록 학력이 소득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침
 - 계급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변수로 작용함
 - ☞ 계급이 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과 소득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하며, 이러한 계급 간의 차이는 직업, 지위, 연령, 경력, 성, 인종 등의 변수를 통제하여도 같음
 - 연구결과 정리
 - 교육의 수익은 노동자 계급보다 관리자 계급에 있어서 더 크다.
 - 관리자와 노동자의 계급차이는 백인여성과 흑인남성에게는 작은 반면, 백인남성에서는 크다.
 - 교육, 직업지위, 연령, 경력을 모두 통제해도 고용주는 관리자나 노동자보다 많은 소득을 차지한다.
 - 미국처럼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인종 간에 층이 형성될 수 있고, 각 인종집단 내에 계층이 형성되는 다중사회계층구조를 갖게 됨
 - 교육기회의 불평등 분배& 인종 간의 불평등 분배
 - 교육은 상위계층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위계층에게 억압과 불평등 정당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2) 무관계론

- 기본입장
 - 교육은 사회평등 또는 불평등과 관계가 없음
- 앤더슨(Anderson, 1961)
 - 학교교육의 사회평등에 대한 무관계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 미국, 스웨덴, 영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과 사회이동수준의 관계는 매우 낮음
 - 교육수준이 지위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부동(Boudon, 1977)
 - 앤더슨의 연구를 체계화시킴
 - 교육기회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교육의 차이가 지위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능력주의 가설적 상황을 통해 모의분석을 하였음
 - 연구결과, 교육은 사회평등화와 무관함

- 버그(Berg, 1971)
 - 교육수준이 개인의 직업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치스위크 & 민서(Chiswick & Mincer)
 - 1950년~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소득분배 상황과 교육분배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힘
- 써로우(Thurow, 1972)
 - 미국의 소득분배와 교육분배상황을 분석한 결과 서로 관련이 없음을 밝힘
 - 따라서,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학교교육에 기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함
- 젠크스(Jencks, 1972)
 - 가정배경, 지적능력, 교육수준, 직업지위를 모두 동원하여도 개인 간의 소득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 “학교는 평등화에 관한 한 별 관련이 없다”

2. 논의

- 1) 틴토(Tinto, 1977)의 논평 '교육과 사회평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교육과 사회평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교육은 기존 계층구조를 존속시키는 기능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과는 무관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다 해도 이 분야의 연구는 연구방법과 연구설계를 더욱 발전시키면서 전반적 이론을 재검토하는 일이 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 2) 종합 논의
 - 평등화론에 대한 논의
 - 사회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분리적 접근을 하였으므로 교육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사회학적 관점
 - ☞ 직업지위와 교육의 관계
 - 경제학적 관점
 - ☞ 소득수준과 교육과의 관계
 - 직업과 소득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면 교육, 직업, 소득을 통합된 연구모형을 가지고 분석해야 함
 - 교육과 직업의 관계는 국가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학교에 대한 논의
 - 사회의 평등화 또는 불평등재생산에 학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는 일은 의미가 있음
 - 학교교육이 사회의 평등 또는 불평등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해도, 사람들의 지적, 인격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돋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을까(저자 평) <출처: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교육평등론 1 / 7주차 1차시

1. 교육기회 분배와 결정요인

1) 교육기회의 개념 및 교육사회학자들의 연구관심

■ 한국의 학교단계별 교육기회

- 초등학교와 중학교

- 거주지 중심으로 취학할 학교가 배정됨

- 고등학교

- 일반계, 전문계(실업계), 특수목적고에 따라 취학할 학교가 다르게 결정됨

☞ 일반계 :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에 따라 학교배정절차가 다름

☞ 전문계와 특목고 : 본인의 지원을 받는데, 특목고는 선발절차를 거침

- 대학

- 좀 더 복잡한 선발절차를 거쳐 입학이 결정됨

■ 교육기회의 정의

-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한 것

- 오늘날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학교교육기회'라고 함

- 학교교육기회

-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수용능력을 의미함

☞ 수용능력은 학 학교가 각 과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수(=정원)을 의미함

☞ 한국의 경우

→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 정원은 교육청에서 관리

■ 교육사회학자들의 연구관심

- 한정된 교육기회를 누가, 어느 집단이 차지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임

- 학교는 초, 중, 고, 대학 등의 단계화로 인한 상급학교 기회가 누구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음

- 특정계층이 대학교육 기회를 어느 정도 차지하였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심이 높음

- 교육기회 분배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교육의 실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임

2) 교육기회 분배상황의 측정

■ 교육단계

- 교육기회는 교육단계와 단계 내의 학교종류로 구성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교육단계는 일반적으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세분화되고 확장되어 있음

- OECD의 '국제교육표준분류' : 국제비교연구에 활용됨
- 단계 내의 학교 종류
 - 학교계층은 동일한 종류 내에서도 존재함
 - 사람들이 인식되는 교육조건과 교육결과를 포함하는 요인들의 격차에 의해 결정되는 학교 간의 상대적 위치의 구조로 계층화됨
 - 학교 간의 계층화는 교육기회의 계층화를 만들어 입학경쟁이 생겨나고, 학교계층의 폭이 확대됨
 - ☞ 입학경쟁의 강도가 높아짐
 - 우리나라처럼 교육의 기회가 대학까지 대폭 확대된 사회
 - ☞ 학교계층이 교육기회분배문제의 중심을 이루게 됨
- 교육기회분배상황
 - 관련된 각 집단의 교육기회점유수준을 비교하여 알 수 있음
 - 교육기회의 점유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는 취학률, 진급률, 탈락률, 교육선발지수 등이 있음
 - 취학률
 - ☞ 학교급(級) 또는 학년의 취학 해당 인구 가운데 실제로 취학하고 있는 학생 수의 비율
 - 진급률
 - ☞ 입학 당시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학년마다 진급한 학생수의 비율을 비교하려는 집단별로 계산한 것
 - ➔ 교육기회 점유의 시계열적 경향을 알아보는 데 편리함
 - 탈락률
 - ☞ 기준년도의 학생수에 대한 각 학년별 낙제자와 퇴학자를 합한 수의 비율
 - ➔ 탈락률의 크기를 가지고 집단 간의 교육기회 점유상태를 예상할 수 있음
 - 교육선발지수
 - ☞ 전체 학생에 대한 집단별 학생 구성비의 전체 인구에 대한 해당 집단 인구의 구성비의 비율
 - ➔ 인구비례 점유율
 - 예)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학생이 전체 학생 중 20%인데, 전체 인구 중에 전문직 직업이 10%일 경우, 200%가 선발지수가 됨

3) 교육기회의 분배구조

- 한국의 분배구조
 - 지역별 고등교육 분배상황
 - 시도 간의 격차가 큼
 - ☞ 대도시로 갈수록 고교졸업자 구성비에 비하여 대학정원 구성비가 높고, 입학자 구성비도 높음

-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크고, 도시 내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큼
 - ☞ 서울의 경우
 - ➔ 강남구는 학생 100명당 2.1명, 서초구 1.5명, 송파구 0.8명, 구로구와 금천구 각 0.2명(아파트 매매가 차이와 일치함)
 - 성별 고등교육 구성비
 - 대학교육기회의 남녀 간의 점유비율
 - ☞ 서서히 균형을 지향하고 있으나 속도가 매우 느림
 - 남성에 비해 구성비가 낮았던 여성의 구성비가 상승하여 균형을 보이고 있음
 - 사회계층별 고등교육 분배
 - 사회적 계층배경은 교육기회 분배에 강한 영향을 미침
 -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이 보편화되어 계층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대학에서는 차이가 남
 - ☞ 대학이 계층화되면 대학의 유형에 따라 학생의 계층배경에 차이가 남
 - ➔ 상위계층의 대학기회를 사회적 상류층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음
 - 교육기회 분배에 있어서 사회계층의 영향
 - ➔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
 - 취학구조를 분석한 결과, 계층 간 불평등분배가 뚜렷함
 - ➔ 이를 통해 교육의 계층화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이 표면에 나타남
 - 학교의 계층화와 분배구조
 - 학교와 대학교육이 대중화되면 학교 간, 대학 간에 계층화가 형성됨
 - 학교가 계층화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한 분배가 지속됨
 - 상급학교일수록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많이 작용하여, 상위층의 고등학교로의 진학의 기회를 점유하여 새로운 교육 불평등현상이 발생함
 - ☞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가 대학교육의 평등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새로운 연구과제
 - 교육기회는 학교와 대학만이 제공하는 것은 아님
 - 오늘날 사회현상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평생교육기회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함
- 4) 교육기회의 분배의 결정요인
- 초기 연구
 - 교육기회의 분배요인은 개인의 지적 능력으로 봄
 - 지능과 교육에의 욕구가 중요하고, 가정의 재력은 영향력이 낮다고 봄
 - 그러나, 초기연구의 주장은 연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후속연구에 의해 반박을 받음

- 펜샴(Fensham, 1975)의 교육기회분배의 결정요인
 - 가정요인
 - 사회경제적 지위, 수입 등
 - 지역사회요인
 - 지리적 위치, 지역사회의 문화특성 등
 - 인종요인
 - 종교요인
 - 학교요인
 - 학교시설, 교사수준 등
 - 교유요인
 - 친구의 학교에 대한 태도 등
- 매도노 & 환(McDonough & Fann, 2007)
 - 1973년부터 2004년 사이에 미국의 사회학 및 대학에 관한 논문들을 분석하여, 대학입학 결정요인을 종합하였음
 - 개인차원 요인 : 사회계층, 가정환경, 주거지역 등
 - 학교차원 요인 : 고교정책, 수업활동, 진학지도 등
 - 대학차원 요인 : 입시, 학비지원정책, 입시산업 등
 - 지역사회 요인 : 지리적 위치, 지역사회의 문화특성 등
- 교육기회의 분배의 결정요인의 구분
 - 능력요인과 배경요인으로 구분
 - 능력요인
 - ☞ 개인의 지적능력, 개인의 노력
 - 배경요인
 - ☞ 가정환경(부모의 경제력, 부모의 직업), 인종, 성별 등
 - 교육기회분배는 능력요인과 배경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배경요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여성집단의 경우 더 뚜렷함
- 부르되(Bourdieu, 1977)
 -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교육기회분배에 강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어떤 기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 교육기회 분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보모의 지위와 소득 자체보다 상층계급이 가지고 있는 문화
즉, '문화자본'이라고 주장함

- 콜맨(Coleman, 1988)
 - 교육기회 분배에 영향을 주는 기제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제시
 - 가정배경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요소라고 주장함
- 학교 밖으로부터 학교 안에서 교육기회의 분배요인을 찾는 관점
 - 계층요인이 학교에 어떻게 반영되는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학교내부에서 진행되는 교수과정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등에 반영되어 있는 계층요소를 분석하여 계층구조가 교육에 작용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함
 - 학교를 계층요인의 매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체의 구조적 성격(학교급별 구조, 인문계와 실업계의 문화구조 등)이 지니고 있는 불평등적 성격에 관심을 기울임

교육평등론 2 / 7주차 2차시

1. 교육평등론의 전개

1) 교육평등

■ 교육평등의 정의

- 성, 인종, 종교, 지역, 계층, 경제적 상태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받는 상태를 의미함
- 교육기회의 평등문제는 교육전체의 평등문제의 한 부분임

■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 옥슨햄(Oxenham, 1997)의 11가지 요인

- ① 개인의 타고난 능력과 특성

- ☞ 능력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선호하는 특성의 차이

- ② 사회계급

- ☞ 교육의 가치, 교육의 필요성과 용도 등에 대한 차별적 인식

- ③ 교육의 제공에 관한 정부, 사회집단, 개인들의 정치적 권력

- ④ 교육의 제공을 위한 국가자원과 사적자원

- ⑤ 교육수준 간 자원의 배분

- ⑥ 지역 간, 집단 간 교육기관 설치의 차이

- ⑦ 교육기관 간 자원, 효율, 성과의 차이

- ⑧ 교사능력의 차이

- ⑨ 각 가구의 직접 및 간접 교육비 지출 수준

- ⑩ 교육수준 선택의 차이

- ⑪ 자원의 세대 간 분배

■ 교육평등에 관련된 대규모의 체계적 분석연구

- 콜맨(Coleman, 1968)

-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의 변천을 네 단계로 정리함

- 산업화 이전의 단계

-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육은 가정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학교교육의 평등문제는 관심 밖이었음

- 산업혁명 이후의 초기산업화 시대

-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이 발전하였음

- ☞ 민중을 위한 초등교육 기회확대에 그침

- 제2차 세계대전 전후: 평등관 등장

- ☞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임

- ☞ 무상의무교육 필요성 대두

- 1950년대 이후: 평등교육의 필요성 대두
 - ☞ 교육의 목적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데 있으므로, 누구나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평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 교육결과의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주장함

■ 교육평등모형

- 화렐(Farrell, 1997)
 - 접근의 평등
 - ☞ 각 사회집단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일치하는 수준
 - 존속 또는 재학의 평등
 - ☞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과 같은 각 사회집단이 퇴학, 제적 등으로 퇴출당하지 않고 계속하여 재학할 수 있는 확률의 일치성
 - 결과의 평등
 - ☞ 각 사회집단이 각급 학교에서 교육받는 내용과 그 수준의 일치성
 - 결실의 평등
 - ☞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획득하는 교육의 결실(직업, 수입, 지위 등)이 일치하는 수준
 - ➔ 일치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평등하고, 일치수준이 낮으면 불평등한 교육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2)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 허용적 평등관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
-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으로 특정 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금지되어야 함
-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신념
- 교육의 양은 개인이 타고난 능력에 비례해야 함
- 교육기회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선발을 통해 주어져야 함
 - 인재군(pool of ability)
 - 재능인재군(reserve of talent)

■ 인재군에 관한 연구

- 영국
 - 1920년대부터 연구가 가장 먼저 시작
 - ☞ 그 이후에도 많은 연구성과가 있음
 - 매킨토시(McKintosh, 1959)
 - ☞ 4,4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졸업 이후까지의 종단적 연구
 - ➔ 각 연령 집단마다 11.1%의 인재군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음
 - ☞ 인재를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수준으로 선정하였음

- 미국
 - 헤른스타인과 머레이
 - ☞ 인재구성을 지능지수(IQ)에 기초하여 분석함
→ 미국이 대학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낮은 지능소유자도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교육 수준을 떨어뜨렸으므로 대학입학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미국에서 인재군의 개념은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일에 자주 동원되었음
 - 각 연령 집단 내의 인재군의 비율을 사회계층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음
☞ 상층계급이 대학교육 기회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초래

■ 허용적 평등관의 한계점

- 교육받을 기회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교육평등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남
 -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용받아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 자녀들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음
☞ 취학을 보장해주는 대책이 요구됨

3)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 영국의 「1944년 교육법」(1944 Education Act)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의 보장적 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제정하였음
- 중등교육을 보편화하는 한편 무상화하고 불우층의 자녀들에게는 의복, 점심 학용품 등을 지급하였음
- 중등교육의 복선제를 단선제로 전환함

■ 보장적 평등의 한계점

- 중등학교의 무상화와 대학입학의 개방정책으로 취학자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지만 취학자들의 사회 계층구조에는 변화가 거의 없음
- 결국,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지만, 계층 간의 분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음
-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것과 분배구조가 평등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한 결과
 - 교육기회의 새로운 증가분이 상위계층부터 채워져 내려가기 때문임
 - 학교계층화로 인하여 교육기회 분배가 사회계층 요인이 영향을 받기 때문임

4) 교육조건의 평등

■ 콜맨(Coleman, 1966)

-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함
- 모두 학교에 다니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이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한 것임
-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등하게 되지 않으면, 교육평등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관점

■ 콜맨보고서에 의한 교육조건의 평등에 관한 이슈

-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제반 교육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이들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대규모 분석을 실시하였음
- 연구결과
 - 학교 교육조건의 차이는 학생들의 성적차와 관련이 적고,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친구집단이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드러남

■ 교육조건의 평등에 대한 연구자세

- 교육조건의 평등화는 학생들의 성적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상관없이, 교육에 있어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것임
 - 누구나 같은 교육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5) 교육결과의 평등

■ 주요내용

-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것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형성

■ 롤즈(Rawls)의 「정의론」(1971)

- '보상적 평등주의' 주장: 환경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므로, 불리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제공해야 함
 - 능력주의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음

■ 결과의 평등을 위한 교육

- 저소득층 취학전 어린이를 위한 보상교육
 - 미국의 헤드스타트 사업 (1965)
 -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우선지역 사업
 -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6) 사회개혁에 의한 교육평등

- 교육의 평등화는 사회체제를 변화시켜야 가능하다고 주장함
- 교육은 사회구조의 반영체일 뿐이므로 교육의 평등은 교육체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주장함[마르크스 주의]
- 사회구조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교육평등화 방안이라고 주장함

2. 교육평등정책

1) 교육평등정책의 시사점

- 현대사회의 교육은 전반적으로 많이 평등화되었음
 - 선진국들이 20세기 후반부터 평등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임
- 우리나라도 초·중등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화가 현저하게 향상되었음
 - 그러나 진정한 교육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유아교육, 평생교육의 평등을 향상시켜야 함
- 평등교육의 실현을 넘어서 평등정책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교육선발과 시험 1 / 9주차 1차시

1. 학생흐름과 선발

1) 학생흐름

■ 교육과정 속의 학생흐름

- 교육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과정 속에 학생이 흘러감
- 실제로 학교교육의 과정은 '학생의 흐름'을 의미함

1996년 초등학교 입학자 학생흐름

학교단계	학교유형	학교이탈자	학교이탈자 누계
'05 고등학교 입학 (61만 4,900명)	일반계 45만 6,594명 전문계 15만 3,493명 기타 4,813명	비진학 1,599명	2만 3,954명
'05 중학교 졸업	61만 6,499명	비졸업 1만 2,824명	2만 2,355명
'02 중학교 입학	62만 9,323명	비진학 864명	9,531명
2002 초등학교졸업	63만 187명	비졸업 8,667명	8,667명
1996 초등학교입학	63만 8,854명		

신형식대학 : 원격대, 산업대 등 / 학교이탈자 : 비진학, 중퇴 등

- 학생들도 '졸업'이라는 문을 통해 서로 다른 길로 갈라짐 : 취업의 길, 진학의 길
-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일반계, 전문계, 특목고 등으로 계열이 갈라짐
- 대학단계에서 더욱 세분화된 전공계열로 갈라지면서 대다수의 인생경로가 결정지어짐

■ 학생흐름의 속도

- 복선제인지 단선제 인지에 따라 학생 흐름의 속도가 달라짐
 - 학생흐름의 유연성은 국가별 대학제도 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됨
- 한국처럼 학벌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특정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회연결망의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짐
 - ➔ 특별한 사람들의 흐름에 합류함으로써 학생흐름을 통하여 성인세계 흐름으로 연결됨

2) 교육단계와 선발

■ 학생흐름의 관리

- 학생흐름의 관리는 대부분 선발과 관련됨
- 졸업을 위한 자격심사의 의미
 - 해당단계에서 전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는 증명

☞ 초등학교부터 대학졸업까지의 전 과정은 통과 또는 탈락을 결정하는 연속적인 선발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교육선발의 특징

- 학교의 교육선발은 그 제도와 방법이 사회마다 일정하지 않음
- 한 나라의 교육선발의 특징은 그 나라의 교육의 성격과 밀접하여 연관되어 있음
→ 교육의 성격은 그 사회의 성격과 밀접하기 때문임

■ 학급편성

- 19세기 초에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학급편성을 동일연령집단으로 구성함
→ 일반적으로 동일 연령집단은 학습능력과 경험이 비슷하므로 지도가 용이하고 학업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편성되고, 학생 관리도 학년별로 체계를 갖추게 되어, 학교교육은 표준화되고 동시에 단계화되었음
- 20세기 초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을 편성하는 학교가 증가하였음
→ 능력별 반편성과 계열별 편성을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이나 적성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발절차가 불가피해짐

■ 진급

- 많은 발전도상국에서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음
 - 선진국
 - ☞ 대체로 유급이 없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음
 - ☞ 선진국들은 능력별 반편성, 수준별 수업,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개인지도 등을 통하여 유급자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한국
 - ☞ 유급제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학업성취 기준미달 학생을 위한 대책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음(보완대책이 없는 자동진급국가)

■ 졸업

- 한 단계의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학습했다는 공식적 인정임
 - 유럽의 졸업시험 제도
 - ☞ 영국의 '11세 이상 시험', '중등교육증서'
 - ☞ 프랑스의 '바카로레아'
 - ☞ 독일의 '아비투어'
 - 한국
 - ☞ 수학연한과 기준교과단위를 충족시키면 형식적 졸업사정절차를 거쳐 졸업장이 수여됨
 - ☞ 따라서 유럽에 비해 생존율이 매우 높음

- 생존률
 - ☞ 각급 학교의 입학자 수에 대한 졸업자 수 비율
 - ☞ 한국의 고등학생 생존율: 83% vs OECD 국가의 생존율: 70%
- 입학/진학
 - 대다수 국가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교육선발을 여러 단계에 분산
 - 한국
 - 고등학교 졸업까지 거의 선발 없이 통과한 뒤, 대학입학 시에 집중적 선발을 시행함
 - 대부분의 나라 : 분산선발체제 VS 한국 : 집중선발체제임
 - 분산선발체제 : 경쟁이 여러 시기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강도가 낮음
 - 집중선발체제 : 모든 경쟁이 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강도가 한없이 높아짐

2. 초·중등 및 대학의 입학선발

1) 초·중등학교

- 한국의 고교평준화
 - 연합고사를 통한 학군별 배정제도
 - 1974년에 대도시부터 실시하였음
 - 현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였음
 - 주된 목적 : 고교교육의 평등화보다 고교입시의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내용
 - 고등학교의 교육조건(시설, 교사능력, 학생구성 등)의 차이를 해소시키는 것
 - 입학생을 연합고사를 통하여 학군단위로 선발한 뒤, 이들을 학군 내의 학교들에 거주지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
-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
 - 찬성의견 : 극심한 입시경쟁에서 해방되어 청소년기의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고, 중학교 교육이 입시교육이 아닌 정상적 교육을 할 수 있게 됨
 - 반대의견 : 중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지고, 고등학교도 능력별 반편성이 아닌 혼합구성으로 인해 학업성취 수준이 연쇄적으로 낮아짐
 - ➔ 그러나 국제비교연구(PISA)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최상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반대의견이 정당화되기 어려움

2) 대학

- 해방 후 대학입학제도: 대학별 단독 시험제
- - 대학별 본고사를 실시하여 각 대학에서 국어, 영어, 수학에 중점을 둔 입학시험을 실시하였음
 - ➔ 교육적·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

- 1954년 정부에 의한 제도변화
 - 대학입학에 국가연합고사와 입학자격제도를 도입
 - 국가관리의 연합시험을 시행하고, 최저 입학자격 기준을 넘은 사람만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함
 - ➔ 그러나 1955년에 대학의 자율을 억압한다는 비판으로 인해 대학별 단독시험
- 1962년 대학입학국가자격고시제 도입
 - 1964년까지 시행하고 대학의 반발로 인해 폐지됨
- 1969년 대학입학예비고사 제도 도입
 - 전체 입학정원의 130%를 선발하면 그들이 대학별 '본고사'를 통하여 입학하는 방식
 - ➔ 대학생들의 신입생 확보가 어려워져 반발이 심해짐
- 1981년 대학입시 개혁실시
 - 대학본고사를 금지하고 고교내신성적(20~50%)과 예비고사성적(50~80%)을 종합한 선발방식을 대학에 요구함
 - ➔ 대학본고사 대신 고교내신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됨
- 1994년 대학수학능력시험
 -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교내신성적, 대학별 고사를 주전형자료로 활용하되, 고교내신은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고시함
- 5·31 교육개혁안: 1997년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라 부르기 시작한 고교내신을 입학전형의 중심으로 삼음
 - 수능시험, 논술, 학교장 추천, 면접 등을 대학이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음
 - 학생부는 40% 이상 반영할 것을 요구함
- 2004년 대입제도
 -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를 정착시키려는 1997년 제도를 보강하기 위함
 - 학생부를 주전형자료로 삼고 수능을 활용하며 논술, 면접 등의 방법을 대학자율로 사용함
 - 대학본고사, 고교등급화, 기여입학 금지 ➔ 3불 정책
- 2008년 입학사정관제
 - 대학의 자율적 선발을 확대
- 한국의 대입제도 논의
 - 국, 영, 수 중심의 자율적인 선발을 하려는 대학측의 요구와 입시교육으로부터 중등교육을 방어하려는 교육계의 주장 사이에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음
 -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입제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음
 - 대입학력고사와 수능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암기식 교육, 객관식 시험준비를 지속시키는 데 일조하였음
 - 한국의 대입제도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정착해야 하는데 있음

교육선발과 시험 2 / 9주차 2차시

1. 한국교육선발의 특성

1) 한국 교육선발제도의 특성

- 한국의 교육선발은 입시제도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특성은 달라지지 않음
- 한국교육선발제도의 주요 특성
 - 입학단계에서의 선발
 - 상급학교에 의한 선발
 - 상대적 경쟁선발
 - 객관식 시험선발

2) 입학단계에서의 선발

- 대학입학단계에서 선발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선발이 입학단계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대학진학 욕구를 대중화시키고, 입시준비에 과도한 사교육을 투자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음 → 어떻게든 입학만하면 졸업은 쉽다는 생각이 만연함
 - 대학에서의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음
 - 대학교육이 질적수준이 떨어지고, 학업성취도가 낮아짐
 - 고등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과도하게 높여서 청소년기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킴
 - 청소년들의 지적발달이 왜곡되고, 정신정, 육체적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킴
 - 고등학교 교육 전체를 비정상적으로 발전시킴
 - 입시위주의 교육

3) 상급학교에 의한 선발

- 한국의 입시의 주체 → 상급학교
 - 이러한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킴
-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주도권을 하급학교가 가지고 있음
 - 고등학교의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대학입학자격을 가질 수 있음
- 고등학교가 대학입학자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가는 의미임

4) 상대적 경쟁선발

- 한국교육의 유일한 선발은 대학입시에 있으므로, 상대기준 평가에 의거하여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성적에 집착하게 됨
 - 상대적 경쟁을 유발시킴 : 교육이 상대적 경쟁으로 변질됨
- 입학시험의 상대성
 - 자격평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상대적 석차에 의한 정원경쟁으로 일관해온 것을 의미함

- 1954년, 1962년 '대학입학자격고사제', 1969년 '대학입학예비고사제도'
 - ➔ 자격선발로 방향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 상대적 평가는 평가기준의 질적 다양화를 억제하고 오히려 평가기준을 질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을 띠
 - ➔ 질적 기준은 상대적 서열을 정하기 어렵고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객관식 평가를 실시함
- 5) 객관식·주관식 시험선발
- 객관식 평가
 - 채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점자의 주관적 채점을 방지하는 평가방식
 - 장점 : 채점자의 주관적 채점 배제, 컴퓨터에 의한 채점을 통한 시간절약
 - 단점 :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에 쉽게 순응하는 인간 형성
 - 1990년대에 '논술고사'를 도입하여 객관식 위주의 입학시험에 변화를 시도함
 - 주관식 평가
 - 수험생이 주관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는 방식
 - 수험생의 주체적, 창의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명백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함
 - 평가방식은 교육의 성격을 결정함

2. 시험의 기능

- 1) 시험의 교육적 기능
- 시험 vs 평가
 - 시험은 교육평가의 한 방편이지만 학교의 실제상황에서는 시험이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뚜렷한 구분을 하지 않는 상황임
 - 평가의 기능
 - 학습과 교수활동 결과에 대한 측정과 가치판단으로 규정함
 - ☞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평가의 주된 관심은 학생들의 학습결과에 있음
 - 타일러(Ralph Tylor)의 교육과정모형
 - 평가
 - 학생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경우, 교사의 교수활동에 초점을 두는 경우, 학교 전체 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두는 경우로 나뉨
 - 교육목표-교육내용-교수활동-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한단계로서, 교육의 결과를 측정, 확인, 가치판단하는 활동으로 규정함
 - 교육적 행위로서의 평가
 - 평가
 - 교육의 결과에 대한 어떤 행위라기보다 교육적 행위 그 자체임
 - 교육의 방향과 목표와 내용을 규정하고 학습활동을 규제 또는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평가자체가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 교육이 평가를 결정한다기보다 평가가 교육을 결정하게 됨
- 몽고메리(Montgomery, 1978)
- 시험은 "교수와 학습과정의 핵심적 부분"으로 규정하고, 그 기능을 여섯가지로 정리함
 - 몽고메리의 시험의 기능
 - ① 자격부여
 - ② 경쟁촉진
 - ③ 선발
 - ④ 목표와 유인
 - 학습자들에게 학습목표를 지시해줌과 동시에, 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동기를 촉발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
 - ⑤ 교육과정 결정
 - 학습자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전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학습함.
 -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시험이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것임
 - ⑥ 학습성취의 확인과 미래학습의 예언
- 유네스코 보고서(1978)
- 시험의 순기능
 - 질적 수준을 유지함
 - 학교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함
 - 각 단계별 이수해야 할 최저 학습수준을 지시함
 - 교수의 개별적 평가가 범할 수 있는 편견에서 탈피할 수 있음
(전국적, 지역적 표준화 시험인 경우)
 - 시험의 역기능
 - 암기력을 주로 테스트함
 - 교육과정의 일부분만을 다룸
 - 선택적 학습과 선택적 교수를 부추김
 - 시험기간에 공부를 집중시켜, 정상적 공부습관을 약화시킴
 - 시험의 결과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험에 관련된 사람에게 비정상적 행위를 유발시킴
 -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에 관한 교육개혁을 가로막음
- 올바른 시험의 교육적 기능을 위한 방안
- 각급 학교의 시험이 어떤 내용과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분석하여 타당도가 높은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야 함

- 타당도가 높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안작성시에 교육목표를 이원분류표로 작성하도록 해야 함
 - ➔ 이원분류표는 교과내용의 영역을 한 차원에 놓고, 평가하고자 하는 지적, 정의적 특성을 다른 차원에 놓고 구성하는 것으로 교육목표의 모든 범위와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함
 -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
- 2) 시험의 사회적 기능
- 학자별 정의
 - 부르되
 - 지식의 사회적 의미규정과 그 표현방식을 학교의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강요
 - ☞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허용되고 있음
 - 마르크스
 - “시험은 지식에 대한 관료적 세례이다”
 - 지식의 가치는 지식 그 자체보다 시험에 출제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됨
 - 지식에 대한 시험의 기능의 사회문화적 의미
 - 시험은 지식에 대한 작용을 통하여 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사회통제의 내용에도 영향을 줌
 - ➔ 사회적 지위경쟁과 연결
 - 시험의 사회적 기능
 - 사회적 선발
 - 19세기 이후, 학교라는 공교육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시험이 사회적 선발시제의 핵심으로 기능함
 -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시험이 선발기능으로 많은 영향을 미침
 -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
 - 시험의 출제여부에 따라 지식 사이에 위계화가 이루어짐
 - 정답으로 규정되는 지식이 그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지식이 됨
 - 사회통제
 - 시험은 지식을 통제할 뿐 아니라, 규범과 가치관을 통제함으로써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
 - 기존사회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 문화의 형성과 변화
 - 그람시의 해게모니와 반해게모니에 관한 이론이 위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본 차시의 사전학습에 제시되어 있음)
 - 한국의 대학입시시험
 - 5지 택1형 시험과 사회질서 및 문화와의 연관성
 - 특정상황에서 어느 하나만을 정답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출제자에 의하여 특정된 조건 하에서만 정답을 골라야 함

- 수험생의 다른 여러 관점과 가능성의 무시됨
- 문제점
 - ☞ 학습자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자세, 지적이고 합리적인 아닌 독선적이고 감정적인 사고 유발, 충동적 성격 배양
 - ☞ 폐쇄적 사고 유발

■ 시험의 사회적 기능 및 올바른 방향

- 시험의 내용과 방법에 내재해 있는 교육기능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질서, 사회통제, 문화풍토 등을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단순한 시험방법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교육방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
 - 각종 시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필요

학업성취와 격차 1 / 10주차 1차시

1. 학업성취의 구성요소

1) 일반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요소

- 교과지식을 중점적으로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방식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학업성취도를 학교급별로 실시하고 있음
 - ➔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과지식 외에도 가치로운 교육, 즉 교과와 관련된 태도와 가치관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함: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 인지적·정의적·신체적 학습목표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
 - 최근의 한국의 고등학교의 교육목표
 - 건강한 정신과 신체에서부터 창의력과 세계 시민의식에 이르기까지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학습목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 실제적으로는 학습목표의 성취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 학생들의 학업성취 전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
 - ☞ 소수의 특정교과나 특정영역의 성취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이나 한 학교, 또는 한 국가 전체의 학업성취도인 것처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은 오류임
 - ☞ 개인의 능력특성과 소질에 따라 각 교과에 대한 선호도와 학습능력이 다르므로, 특정 교과만으로 개인들을 평가하여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함

2)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

- 종합평가 실시(또는 영역별로 동일한 비중을 적용)
 - 공정한 평가
 - 모든 영역을 고르게 포괄하는 종합평가를 실시하거나, 동일한 비중의 영역별 평가 가운데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야 함
 - 일반적인 학업성취평가
 - ➔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기능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평가로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치로움

3) 오늘날 학교의 교육기능의 변화

- 오늘날의 정보획득 방식에 따른 학교의 역할변화
 -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학교 밖에서 획득함
 -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약화
 - 지식은 학교 밖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반면, 사회성 훈련, 태도, 윤리교육 등을 학교 밖에서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음
 - 학교는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함
 - ➔ 따라서 학교의 중심역할은 지식교육에서 사회적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미래학자들)

2. 학업성취 결정요인

1) 개인적 요인

■ 대표적인 요인

- 지능, 적성, 노력
 - 개인적 요인 중 학업성취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은 지능이라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임(지능지수와 학업성취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50~. 70)
 - 학업적성
 - 문적 성취수준에 대한 예언력을 높이는 변인으로 미국의 경우 대학(원)의 입학선발 시 학업적성검사를 요구하기도 함
 - 지능과 적성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식
 -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인식되어 왔음.
 - 특히,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의 교육계획에서 지능에 관한 조치를 찾아볼 수 없음
- PISA(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가 선정한 요인
- 학생요인
 - 성별, 나이, 국적, 보충수업 참여여부, 과외사교육 참여여부, 교과에 대한 흥미수준, 학습전략, 암기전략, 협동학습, 경쟁학습,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컴퓨터에 대한 흥미, 컴퓨터 사용능력, 숙제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등<출처: OECD, 2001>
 - ➔ 국가 간 학업성취도에 대한 단순한 국제비료를 넘어서 각국별 자세한 진단을 통해 교육정책과 교육방식의 개선에 활용할 정보를 찾아내려는 데 목적이 있음
 - 개인요인들이 학업성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매우 다양하면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가 많음

2) 학교요인

■ 대표적인 요인

- 학교시설과 교구
- 재정규모
- 교사실력
- 교사당 학생 수
- 반편성
- 교사의 열의
- 교사와 학생 관계

■ PISA가 선정한 요인

- 요인 : 학생평가 횟수, 학교와 교사의 자율 수준, 교사연수, 학교풍토에 대한 교사영향력, 교사의 사명감, 교사의 학생지도, 규율, 성취압력, 컴퓨터 확보수준, 교사당 학생수,

학급규모, 학교시설 활용도, 수업시수, 학교유형 등 <출처: OECD, 2001>

→ 학교요인들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요인의 긍정적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학교의 교육조건이 학업성취의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많음
※ 콜맨보고서 review : 7장에서 설명한 내용임

3) 가정요인

■ 콜맨의 연구방향 : 「콜맨보고서」 이후

-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요인의 영향력이 불불명하고,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드러나자, 연구의 관심을 '가정'으로 돌렸음
 - 학업성취에 관한 학교영향 연구에서 가정영향 연구로 전환
- '사회자본'
 -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자본의 개념의 유용성에 주목하였음

■ 문화자본 : 부르되, 번스타인

- 부르되(1977)
 - 고전문학지식, 예술에 대한 감수성 등의 문화자본은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하여, 다른 학부모들과의 유대형성,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사회자본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매개되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학교의 개선을 통한 학업성취향상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서 계속 탐구할 가치가 있음
- 번스타인(1973)
 - 가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는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질과 가정의 교육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자본의 관점을 보여줌
→ 문화자본의 관점은 가정배경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의 차이 때문임

■ 문화자본의 구성요소

-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동기유발 수준, 문화활동 참여, 가정의 독서습관 등

■ PISA가 선정한 가정요인

- 가족구조, 형제자매 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교육수준, 부모와 자녀대화, 문화활동, 재산, 가정의 교육자원, 고전문학 등의 고전문학 소유수준 등
<출처: OECD, 2001>

- <학업성취 결정요인 비교>

구분	대표적인 요인	PISA가 선정한 결정요인
개인적 요인	지능, 적성, 노력	성별, 나이, 국적, 보충수업 참여여부, 과외사교육 참여여부, 교과에 대한 흥미수준, 학습전략, 암기전략, 협동학습, 경쟁학습, 교과에 대한 자아개념, 컴퓨터에 대한 흥미, 컴퓨터 사용능력, 숙제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
학교 요인	학교시설과 교구, 재정규모, 교사실력, 교사당 학생수, 반편성, 교사의 열의, 교사와 학생 관계	학생평가 횟수, 학교와 교사의 자율 수준, 교사연수, 학교풍토에 대한 교사영향력, 교사의 사명감, 교사의 학생지도, 규율, 성취압력, 컴퓨터 확보수준, 교사당 학생수, 학급규모, 학교시설 활용도, 수업시수, 학교유형
가정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문학지식, 예술에 대한 감수성 등의 문화자본은 학업성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하여, 다른 학부모들과의 유대형성,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 문화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동기유발 수준, 문화활동 참여, 가정의 독서습관 	가족구조, 형제자매 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교육수준, 부모와 자녀대화, 문화활동, 재산, 가정의 교육자원, 고전문학 등의 고전문화 소유수준

4) 지역사회

■ 학교환경으로서의 사회적 특성의 생태학적 접근

- 이글스톤(Egglestone, 1977)

- 인간유기체가 환경과 어떻게 관련을 맺으면서 행동하고 생활해 나가는가를 밝히는 생태학을 교육연구에 응용하여 교육행동과 교육생활이 환경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것
- 교육에 관련된 환경요인

① 지역사회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

② 주택, 의료 및 사회복지를 비롯한 생활수준

③ 주민의 개인별 소득수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종합한 지역사회의 경제수준

④ 학교졸업생과 일반 성인들을 위한 취업기회의 규모와 다양성

⑤ 인구의 증감, 인구이동, 인구밀도, 계층구조, 출산력 등과 같은 인구 동태

⑥ 각계 각층 지역주민의 지식 수준

■ 생태적 환경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보일(R. P. Boyle)

- 지역사회의 규모(인구수)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침
- 각 학교의 학생들의 사회계층 구성이 성적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계층 구성의 영향력이

지역사회의 크기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남

→ 학교의 교육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사회계층 배경에 따라

학업성취가 달라지지만, 그 달라지는 정도는 지역사회의 크기에 비례함(1980)

- 벽헤드(J.Burkhead)

- 지역사회 전체의 경제수준에 따라 학업성취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이 차이가 남
 - ☞ 미국의 가정 소득이 1,000달러 높아질 때마다 읽기성적이 시카고는 21%, 애틀란타는 8.5%씩 상승함 → 가정의 소득수준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지만, 양자의 관계는 단순관계가 아니라 전체사회의 맥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관계임을 두 도시간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음
 -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조건
 - ☞ 즉, 학교환경이 교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음
- ※ 교육사회학자들이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

5) 사교육

■ 사교육 이용목적에 대한 나라별 차이점

-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홍콩, 싱가폴, 터키, 체코, 러시아, 중국 등이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학생 간의 경쟁이 심한 유교권 국가들에서 사교육은 경쟁목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
- 반면에 서구와 북미의 국가들은 사교육을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도임

■ 학업성취에 대한 사교육의 효과

- 현재까지 뚜렷한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거의 없음
-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찾는 연구결과는 엇갈리고 있지만, 사교육효과에 대한 주관적 기대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들이 매우 높게 가지고 있음
 - 주관적 기대가 사교육에 대한 참여와 투자를 지속시키는 강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 사교육 참여와 투자의 동기에 관한 연구
- 사교육에 관한 중요한 관점
 - 사교육과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사교육이 학생의 학습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함

학업성취와 격차 2 / 10주차 2차시

1. 학교의 학업성취 향상효과

1) 학교의 역할

■ 학교의 일차적 역할(책임)

-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교과성적만이 아니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신체기능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학업성취를 높여주는 것이 학교의 책임임
- 학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들의 모든 영역을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담당함
→ 모든 학생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을 높여주는 곳

■ 학교의 올바른 역할

- 각기 다른 학생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지도를 제공하여, 가능한 한 학습성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함
- 모든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를 이끄는 동시에 되도록 뒤떨어지는 학생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도방법을 제공해야 함
- 학업성취의 비합리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해야 함
 - 학급과 학교규모, 교육여건, 집단편성 등

2. 학교교육의 연구성과

1) 학급과 학교규모

■ 학급의 학생수와 학업성취도 관계

- 학급의 학생수가 적음
 - 학생 개인에게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학급당 학생수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높음
 - 우리나라 초등학교 평균(28.6명) vs OECD 초등학생 평균(21.4명)
 - 우리나라 중학교 평균(35.1명) vs OECD 중학생 평균(23.7명)
- 상관관계 연구에 대한 다양한 결과

① 국제학업성취평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보고서

- 학급규모의 크기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

② 학급규모와 학업성취의 관계는 직선적이 아니고 포물선적임

- 적절 규모

③ 학급규모와 학업성취의 관계는 인지적 학업성취에 국한됨

→ 아직까지는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단정 짓을 수 없음

2) 학교의 교육여건

■ 교육여건

- 학교의 시설, 교구, 재정, 교사의 수와 교육능력 등 교육에 투입되는 요인들의 총합
- 일반적으로 교육여건은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교육여건과 학업성취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몬스(Simons, 1975)의 연구

- 학급규모, 교사의 교육수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교육환경에 관한 요인들은 성적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림
- 학교가 교육환경 요인들은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성적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부모의 행동특성, 학생의 영양상태, 성격 등은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침
→ 학교 내의 교육환경보다 학교 밖으로부터 학생이 가지고 오는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줌(국내 연구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남)

3) 집단편성

■ 능력별 학습편성과 학업성취

- 일반적으로, 성적에 따라 우등생반, 열등반을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연구결과 : 학생의 학교별 능력혼합편성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우수생에게 유리한 집단편성의 원인

- 능력별, 계열별 학급편성 시 학생들의 계층배경의 영향을 받음
- 교사들의 교육태도, 열의의 차별화
 - 상위능력반에서는 더욱 열심히 가르치는 학습분위기를 조성
 - 하위능력반에서는 학습동기 유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오스크, 1976)

4) 교사능력과 활동

■ 자성적 예언이론

- 로젠탈과 제이콥스 (Rosenthal & Jacobson, 1966)
 - 자성적 예언이론
 - ☞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리라는 주위의 예언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이론
 - ☞ 성적이 올라갈 것으로 교사가 기대하는 학생은 실제로 성적이 올라간다는 이론
- 자성적 예언이 학급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림(저학년과 하류계층 학생들에게 더욱 뚜렷이 나타남)
→ 성적이 올라가리라는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적을 실제로 높인다는 것
- 교사의 수준과 학업성취
 - 교사의 경험수준과 교육적 노력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함

5) 학교문화

- 콜맨의 「청소년사회(The Adolescent Society, 1961)」
 - 학생문화는 학교에서의 생활과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어 성적에도 영향을 미침
 - 미국의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향상
 - 이들의 비학구적 문화를 깨뜨리거나 약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함
 - ➔ 학생문화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다는 비판을 받음
- 맥딜(McDill, 1967)
 - 학생들의 태도점수와 성적 사이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가짐
 - ➔ 학생문화는 성적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리 큰 영향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
 - 학생들의 지능지수, 사회경제적 지위, 소망수준이 학생문화보다 성적에 훨씬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함
- 브루코버 외(Brookover et al, 1979)
 - 학교의 분위기를 학교풍토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이것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학생의 풍토지수가 학업성취에 뚜렷한 영향을 미침
 - 학생의 학업적 성공에 대한 교사의 기대, 학생의 학습능력에 대한 교사의 평가, 교사의 평가와 기대에 대한 학생의 인식, 학생의 무능력감 등을 중심으로 측정
 - 학생풍토를 14개 요인으로 구성함
 - ☞ 이 요인들을 학생들의 사회계층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 ☞ 학생의 현재성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학교(학교풍토조성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반학교)에서는 성적향상의 주요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받음

3. 학업성취의 격차와 원인

1) 지능

- 지능지수와 학업성취의 상관관계
 - 많은 연구결과
 - 지능지수와 학업성취의 상관관계는 .50~.70으로 높게 나타남
 - 지능지수는 학업성취 분 아니라, 사회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침(헤른스타인과 머레이: Hernstein & Murray, 1994)
 - ➔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 지능지수와 유전적 관계
 - 측정한 지능지수가 순수한 지능의 지표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음(연구 쟁점)
 - 지능의 높낮이는 가정환경, 특히 사회계층의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
 - ➔ 지능지수와 학업성취의 높은 상관관계 중 어느 정도가 순수한 지능의 결과이고, 어느 정도가 환경의 영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

- 젠슨(Jensen, 1969) : 지능에 대한 인종 간의 차이를 주장함
 - 지능에 대한 인종 간의 차이를 주장함
 - 지능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에 .35~.40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함
 - 후속 연구들은 .40~.60의 상관관계 지수를 도출함
- 데이브(Dave, 1969)
 - 지능에 대한 가정의 심리적 ·문화적 환경변수의 관계분석
 - 상관관계 지수: .80
 - 지능지수가 타고난 지적능력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환경의 우열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함 → 지능검사가 계층문화적 성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
- 젠크스(Jencks, 1972)
 - 지능지수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본적 지적능력과 다르다고 주장함
 - 지능검사를 통하여 표시된 지능지수의 절반 이상은 타고난 순수한 기본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능지수가 계층배경을 포함한 환경요인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 가정배경

- 국내 연구결과(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가정배경에 따른 수능점수의 격차
 - 직업수준에 따라 최상위 계층(상위 정신노동직)과 최하위 계층(하위 육체노동직) 간에 35.8점의 차이가 나타남
 - 인지적 영역 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학업성취도에도 계층배경이 영향을 미침
- 가정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기제
 - 재정자본(financial capital), 인간자본(human capital), 문화자본(cultual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
 - 재정자본
 - 가정이 자녀의 학교공부를 돋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재정자본이 많이 투여될수록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남
 - 가정의 경제력에 의하여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침
 - 인간자본
 - 부모들의 여러 가지 지식, 경험, 지적기능을 의미함
 - 가정의 계층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 부모의 학력수준이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
 - 문화자본
 - 부르되
 - 가정의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전음악, 미술, 문학 등의 고급문화에 관한 활동에 많은 참여가 가능하고,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음
 - ☞ 학교교육과정과 일치도가 높음 → 따라서,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됨

- 벤스타인 : 영국의 중·상류층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높은 일치도가 중상류층 자녀들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만들어 냄
- 국내의 연구 :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해 엇갈리는 연구결과가 많음
→ 학교의 교육과 고급문화의 일치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추정됨
- 사회자본
 - ☞ 콜맨
 - ☞ 가족구성원들의 지역사회와 학교에 관련된 인간관계의 교육적 영향의 정도
 - ☞ 부모의 사회참여도(활동)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향상됨

3) 지역

- 국내 연구결과
 - 도시와 농촌 간의 학업성취의 격차가 뚜렷함
 - 학년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더 심해짐
 - 원인
 - 교육기회분배에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추정함

4) 남녀 간 격차

- 국내 연구결과
 - 과거에는 남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았음
 - 최근에는 여학생이 추월하는 경향이 나타남
- 과목별 차이
 - 수학: 남학생이 우월함
 - 국어, 영어, 한자: 여학생이 우월함
 -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우월함
 - 중학생까지 격차가 거의 없으나, 고등학생부터 격차가 나타남(국어, 영어)
 - 성의식에 대한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한국 교육정책의 사회학적 실제 1 / 11주차 1차시

1. 고교평준화정책의 실제

1) 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

■ 중학교 입시경쟁에 따른 해소방안

- 1960년대 치열한 중학교 입시경쟁은 초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하였음
- 1968년 7월15일 : 「중학교 무시험제」 발표
 - <목표>
 - ☞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촉진
 - ☞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 ☞ 과열된 과외공부의 해소
 - ☞ 극단적인 학교차이 해소
 - ☞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감소와 일류 중학교 관념의 불식

- 1969년 : 서울의 명문교(경기중, 경복중, 서울중, 경기여중, 이화여중)폐지
- 1970년 : 전국의 일류 중학교 폐지 또는 학교명 변경

■ 전국에 377개교의 중학교를 신설하고 8,579개의 교실을 신축

- ➔ 11,517명의 교원을 증원하였음

■ 고등학교 입시경쟁 대두

- 중학교 양적 증가에 따른 새로운 입시경쟁 현상으로 나타남
- 1972년
 - 중학교 무시험제로 인한 양적 증가로 인해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입시에 몰리게 됨
 - 고등학교 입시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 ① 입시교육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 ②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의 저해
 - ③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 ④ 재수생의 누적과 과외 성행
 - ⑤ 일류 고등학교 집착에 의한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
-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1973년 2월 28일 : 중학교 무시험제로 인한 교육적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발표
 -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 일류병과 과열 과외 해소
 - 사교육비 경감
 - 지역 간 균형 발전
 - 학생, 교원, 시설 등에서 고등학교의 완전 평준화 실현

- 「인문계 고교 학군별 추첨 입시방안」 발표
→ 고교평준화 정책 대두

2) 고교평준화정책의 전개

- 고교평준화정책 전개 동향
 - 1973년 : 고교평준화정책 공포
 - 1974년 : 고교평준화정책 시행(서울, 부산)
 - 1975년 : 고교평준화정책 확대(대구, 인천, 광주)
 - 1979년 : 고교평준화정책 확대(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등의 7개 도청소재지)
 - 1980년 : 고교평준화정책 확대(창원)
 - 1981년 : 고교평준화정책 확대(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익산, 목포, 안동, 전주의 8개 시)
- 고교평준화정책 확산에 대한 반발 동향
 - 1975년 10월 : 한국사학재단의회와 대한사립 중고등학교의 학교장 회의
→ 새 입시제도의 전면폐지, 또는 사립학교만의 과거 방식의 복귀허용 건의
 - 1977년 1월 : 대학교육연합회
→ 학군 내 고교별 지원·전형제 건의
 - 1977년 5월, 6월 : 한국사학재단협의회와 전국사대연합회, 대학교련의 고교별 지원 입학제에 대한 강력한 건의
- 고교평준화정책반발에 따른 문교부 대책
 - 고교평준화정책 평가연구 위촉
 - 「고교평준화정책 평가연구」보고서
 - ☞ 1978년 : 1차 보고
 - ☞ 1979년 : 2차 보고
 - ☞ 학력저하의 문제에 대해 학력저하의 실증적 근거는 희박하다는 긍정적인 결론도출
→ 고교평준화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반증임
 - 1979년
 - ☞ 7개 도시를 추가적용한다는 시안을 마련함
 - ☞ 5월 22일에 확정발표하여 실시하게 되었음
 - ☞ 198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수립
 - 1980년대 : 전국 9개 시·도로 확대
 - 2000년대
 - ☞ 1990년대에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는 시가 생겼음
 - ☞ 2000년대에는 추가로 10개 이상의 시가 적용되었음
 - 고교평준화정책의 성과 및 당면문제
 -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 고등학교의 교육기회 확대

-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 고등학교 과열 입시경쟁의 해소
 - 사교육비 부담 경감
 - 지방 학생의 대도시 집중 현상의 완화
- 고등학교 교육의 학력저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3)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 고교평준화정책 논란의 특성: 자유주의 교육관 vs 진보주의 교육관
 - 평등성과 수월성에 대한 논란
 - 자유주의 교육관
 - ☞ 고교평준화정책을 부정하고 수월성 위주의 교육체제 전환을 주장함
 - ☞ 고교평준화정책은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
 - ☞ 미래 국가경쟁력에도 문제가 됨
 - 진보주의 교육관
 - ☞ 고교평준화로 인해 학교 간의 학력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실제로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함(학력의 정상분포로 인해)
 - ☞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수월성 위주의 교육은 실질적인 학교체제의 등급제와 과거 교육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비판함
 - 학교체제의 등급제는 고교입시위주교육의 부활, 사교육비의 증가, 과열 과외, 일류 지향병 등으로 인해 계층 간의 교육적 위화감 조성과 국민의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킴
 - 획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논란
 - 자유주의 교육관
 - ☞ 고교평준화에서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의 재능과 흥미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 고교평준화의 획일성 학생의 잠재능력을 파괴시키고, 교육 경쟁력을 저하시킴
 - 진보주의 교육관
 - ☞ 자유주의 교육관의 획일성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함
 - ☞ 그 이유를 국가교육과정의 의존에 의해서 생긴 문제로 간주함
 - ☞ 교육의 다양성 주장에 대한 진정성 비판
 -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간의 학력 격차를 인정하는 등급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함
 - 공정성과 선택성에 대한 논란
 - 자유주의 교육관
 - ☞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선택성 주장
 - 진보주의 교육관
 - ☞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 강조

- 자율성과 통제성에 대한 논란
 - 자유주의 교육관
 - ☞ 사립학교는 설립 이념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함
 - ☞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게 하여 교육의 다양한 질을 보장할 수 있음
 - ☞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사립학교 간의 치열한 교육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진보주의 교육관
 - ☞ 교육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사립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음
 - ☞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교육적 차별 등이 발생하게 됨
 - ➔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평등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학력의 질 저하에 대한 논란
 - 자유주의 교육관 : 고교평준화로 인해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되었음
 - ☞ 고교평준화의 한계성 지적
 - 진보주의 교육관 : 자유주의 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반론
 - ☞ 고교평준화가 학력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음

2. 7·30 교육정책의 실제

- 1) 7·30 교육정책의 배경
 - 정치적 상황에 따른 심각한 교육문제 대두
 - 1950년대
 - 무분별한 고등교육정책으로 고등교육의 유민, 대학망국론 등의 용어가 나올 정도로 고등교육의 질적저하가 심각해짐
 - 1960년대
 - 고등교육정원 억제정치: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년)」, 「대학학생정원령(1965년)」
 -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교평준화정책은 중등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켰으나, 박정희 정권에서 교육기회를 제한하였음
 - 1970년대
 - ☞ 재수생의 급격한 증가, 입시학원의 성행, 과외열풍 등의 사회문제 대두
 - ➔ 대학입시문제의 사회적 심각성 초래: 고등교육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재수생과 과열 과외문제 대두
 -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등의 역사적 사건이 발발하면서 제5공화국 정권이 출범함
 - 1980년대
 - ☞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정책발표 : 1980년
 - ➔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관심사였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표였으나,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본래
이유임(정치적 정당성 확보)

2) 7·30 교육정책의 특징

■ 졸속적 입안 및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

- 본고사 폐지와 고교 내신성적 도입, 졸업정원제 실시, 교육방송 실시
→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재수생의 증가, 과열과외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

■ 주요 내용

- 1981학년도부터 대학입시본고사를 폐지하고, 우선 출신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입학자를 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예비고사도 없애고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할 방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현행 교과목수를 줄이고, 수준도 낮추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함
- 대학의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신입학생은 정원보다 일정 수를 더 입학시키되, 졸업은 정원수만큼만 시킴
- 대학의 강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설하여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일수업제를 시행함
- 대학진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하여 대학입학인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하며, 내년에는 최고 10만 5천 명까지의 증원할 것을 검토함
- 현행, TV 가정고교 방송의 운영을 개선하여 방영시간과, 대상과목을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는 교육전용방송을 실시함
- 방송통신대학을 확충하고,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연장함

3) 7·30 교육정책의 결과

■ 졸업정원제의 목적과 실패

- 목적

- 대학입학정원이 30% 증가시켜 재수생과 과외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
- 이를 통해 교육 열기를 완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교육 열기를 강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 졸업정원제의 실패이유

- ① 수직적 학력경쟁인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특정학교나 학과에 진학하려는 수평적 학력경쟁을 도외시함
- ② 대학진학을 포기한 사람들의 대학진학 욕구를 자극하는 결과초래: 경쟁과열 현상

■ 교육경쟁의 심화로 인한 사회현상: 1980년대

- 학부모의 과외비 충당을 위한 파출부 직업 등장
- 성적 비관 및 스트레스에 따른 청소년 자살
- 교육경쟁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심각해짐

한국 교육정책의 사회학적 실제 2 / 11주차 2차시

1. 5·31 교육정책의 실제

1) 5·31 교육정책의 방향

■ 출범배경

- 1994년 2월 5일

-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출범한 교육개혁위원회가 연구, 협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약 1년 3개월 후에 발표한 교육정책
- 전문위원회
 - ☞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교수와 학자출신으로 구성되어 미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관을 표방하고 있음

■ 5·31 교육정책의 기본 구성 및 기본 방향

- 5·31 교육정책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매우 광범위한 교육전략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만큼 매우 진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비전

- ☞ 5·31 교육정책의 비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기본 특징

- ① 학습자 중심의 교육

- ② 교육의 다양화

- ③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교육의 운영

-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된 교육

- ⑤ 교육의 정보화

- ⑥ 질 높은 교육

- 기본 방향

- ① 암기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타고난 소질과 창의력 배양 및 인성함양 위주의 '다양화 교육'으로

- ② 교육 공급자 편의 위주 교육에서 소비자 선택의 교육으로

- ③ 규제위주 교육에서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 ④ 교육제도와 운영에서 '수월성'과 '보편성'의 조화

- 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학습환경의 조성
→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복지국가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

2) 5·31 교육정책의 특징

■ 학교급별 특징

- 초·중등교육의 변화

① 교육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하여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였음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학부모, 지역인사, 교사, 교육전문가, 동문대표로 구성)

☞ 학교장 초빙제, 교사초빙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교원임용의 틀을 변화시켜
학교변화를 도모하려고 함

② 교육과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음

☞ 참여와 체험 중심의 실천교육 강조

☞ 적성과 능력 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음

→ 제7차 교육과정 도입

- 대학입시제도 개선

① 석차표시가 없는 '종합생활기록부' 도입

☞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적성, 인성, 단체 및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입상실적,
교과성적 등을 참조하도록 함

② 국·공립대학

☞ 1997학년부터 국·공립대학은 국, 영, 수 위주의 대학별고사를 폐지

☞ 필수 전형자료인 종합생활기록부와 선택형 전형자료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면접, 실기 등을 병행하고 필요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

③ 사립대학

☞ 학생선발방법에 대해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

- 대학교육의 변화

①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함

②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도입과 '대학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 대학에 자율화 부여

③ '전문대학원제'를 도입

☞ 수준 높은 전문인 양성추진(의학, 신학, 법학부분)

④ '학부제'를 실시

☞ 실질적인 학과의 통폐합을 실시하여 대학교육의 효율성 도모

⑤ '대학평가제'와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

☞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함

⑥ 학점은행제, 재택학습, 시간제등록제 등을 실시

☞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 수립

3) 5·31 교육정책의 논의

■ 5·31 교육정책에 대한 대두문제

- 학생을 교육적 무한경쟁에 노출시켜 억압의 틀로 작용할 수 있음
-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 한국교육의 현실에 대한 적합성 여부
- 교육현장에 부적합한 수준별 교육과정 존재
 - 교육을 상품적 가치로 파악하면서,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요구하였음. 소비자 위주의 교육은 학교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적자생존의 시장경쟁원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임

2. 입학사정관제의 실제

1) 입학사정관제의 배경 및 국가별 특징

■ 입학사정관제의 효시

- 1922년 미국의 다트머스(Dartmouth) 대학이 최초로 실시함
 - 미국의 일류대학에서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학업능력 외에 주관적 평가요소를 채택하도록 한 것이 효시임

■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특징

- 선발의 이념적 특징
 - 자유재량(discretion) : 대학이 자체 판단에 따라 선발할 수 있음
 - 불투명성(opacity) : 대학의 선발에 대해 공적 감시가 없음
- 선발의 방법적 특징
 - 포괄적 검토
 - ☞ 개인의 환경, 성취, 잠재능력, 교과성적, 비교과 활동기록, 논술,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전형하여, 인종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 개별적 검토
 - ☞ 학업성취, 비인지적인 다양한 능력, 개인의 현실 등을 개인적 차원에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 일본의 입학사정관제 특징

- 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AO(Admission Office) 제도 도입
 - 1990년 : 게이오 대학이 최초 도입
 - 1997년 : 국립대학에서 도입
 - 2000년대 : 전국으로 확산됨
 - 2007년
 - ☞ 일본 대학의 60%인 454개의 대학이 AO 제도를 활용
 - ☞ 짧은 기간동한 입학사정관제를 급속히 정착시키고 있음

■ 한국의 입학사정관제 특징

- 1995년 5·31 교육정책에 내재되어 있음
- 서열화된 획일적인 선발에서 벗어나 전형방식의 다양성과 모집 절차와 시기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입학전형이 바뀜
 - 전형(銓衡: screening, selection, choice)
 - ☞ 사람 됨됨이와 재주, 지능을 시험하여 뽑는 것
 - 사정(사정: assess, revise, screen)
 - ☞ 사실을 조사하여 속 내용을 자세히 살피거나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
- 2004년에 발표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음

2) 한국의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 입학사정관의 정의

- 교육과학기술부(2008)
 - 직무상 대학 내 다른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으로서 전형기관 무관하게 연중 입학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 한국대학교육협회(2009)
 - 성적을 포함하여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소질, 잠재력,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여부를 결정하는 대입전형 전문가

■ 입학사정관제의 정의

- 교육인적자원부(2007)
 -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대학의 선발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
 - 대학이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을 육성·채용·활용함으로써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 입학사정관제의 목적

- 학업점수에 의존하던 기계적인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적 능력과 소질,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의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음
- 학생의 흥미와 재능을 고양하고, 사회에 적합한 인성을 갖추게 하여 학교교육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있음
- 소모적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건설적 교육경쟁,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적 소질과 능력 등을 고려한 다면적 선발 등을 추진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자 함

3) 한국의 입학사정관제의 전개

■ 한국 vs 미국, 일본

- 한국의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정부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짐
-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됨

- 일본의 입학사정관제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국립대학으로 이어짐
→ 미국과 일본의 입학사정관제는 자율적인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하에 있음
- 한국의 관제 입학사정관제
-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요소가 많음
→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움
 - 입학사정관제의 추진과정
 -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어 2007년에 10개 대학을 시범 운영하였음
(총예산 20억원)
 - 이명박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 3단계 정착방안'을 마련하여 확대시킴
(총예산 1,505억원)
 - 입학사정관제 3단계 정착방안
 - 제1단계 :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2009년)
 - 제2단계 : 입학사정관제의 확대(2010년~2011년)
 - 제3단계 : 입학사정관제의 정착(2012년)
 - 입학사정관전형의 주요 전형자료 및 평가

구분	세부 평가내용
학교생활기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성적 :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취여부 • 학년변화에 따른 성적의 추세 • 비교과 영역 : 각종 교내활동 등
자기소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성(전공적합성), 인성, 흥미, 태도 등
추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자료 활용
증빙자료 (포트폴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자료 • 비교과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 활동 등

<출처: 김신영 외(2011). 입학사정관제 성과분석. 한국대학교육협회, p.19>

- 기존의 선발방식보다 상당히 다양하고 유연하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학생의 잠재적 능력과 다양한 소질을 높이는 교육을 촉진하여 학교교육의 안정화를 기대하게 함

■ 한국의 관제 입학사정관제 한계점

- 한국의 입학사정관제의 문제
 - 기존의 5·31 교육정책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입학전형과 큰 차이가 없음
 - 입학사정관은 교육과 선발의 관계가 불분명한 대학 내에서 기존의 교수가 가지고 있던 학생선발권을 이양받지 못함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우려
 - 사회적 기대
 - ☞ 공교육의 정상화 도모
 - ☞ 대학 자율화 추구의 기반 마련
 - ☞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양극화 해소
 - ☞ 우수학생의 개념 변화로 인한 소질과 적성중심교육의 중시
 - ☞ 다면적 종합평가를 통해 과도한 성적중심 대학입시교육의 개선
 - 사회적 우려
 - ☞ 정부주도 지원예산의 한계
 - ☞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 ☞ 입학사정관의 전문적 판단능력의 미비
 - ☞ 신사교육비의 발생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
 - ☞ 고교등급제의 반영으로 인한 학교격차 심화
 - ☞ 다양한 전형자료의 스펙관리로 인한 대학입시의 부담감 증가

4) 한국의 입학사정관제의 논의

■ 한국의 입학사정관제의 주요쟁점

- 사교육 경감 vs 스펙관리
 -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전형방법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스펙관리를 위한 사교육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남
 - ☞ 입학사정관제의 전형자료(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봉사활동 등)가 사교육의 대상이 됨 → 입학사정관제운영 공통기준발표(2010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교육을 조장하는 인위적 스펙관리 방지
 - ➔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됨
-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 사회적 공정성
 - ☞ 스펙과 사교육비는 정비례하여 '경제적 부'에 의해 대학이 결정되므로,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됨
 - 교육적 공정성
 - ☞ 정성적 평가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선발체제의 공정성
 - ☞ 전형자료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미비하여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진정성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글로벌화와 교육 / 12주차 1차시

1. 공교육제도의 재조명

1) 공교육의 의미와 공교육제도의 출현

- 공교육 공교육(公教育)은 공적 주체에 의해 공적 재원(財源)으로 공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함
- 공교육제도의 출현
 - ① 19세기 이후 근대국가 시대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조직(국민교육조직)이 형성됨
 - 교육이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닌 지극히 공공적인 의의를 갖는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공교육제도가 출현함
 - ② 공교육제도를 출현시킨 중요한 요인
 - 산업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변화
 - ☞ 기존에는 교육이 신분적 사회질서 아래에서 상류계급 사이에서만 실시되고, 일반 민중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빈약한 형태로만 부여되었음
 - ☞ 그러나, 이 시기부터는 교육이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됨

2) 근대국가와 공교육제도의 특징

- 모든 근대국가들이 공교육체제 확립에 적극적인 이유
 - ①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과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임
 - ② 국가 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의 창출이 필수적임
 - ③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요구되는 강한 국민의식과 유용한 지식으로 무장시켜야 함
 - ④ 모든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통일된 규범의식과 사고방식과 지식체계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
- 근대국가의 공교육제도의 의의
 - 교육이 개인의 필요나 종교의 필요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기 시작함
- 공교육제도 형성의 목적
 - ①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발전하였음
 - '공교육'과 '국민교육'이 혼용되어 사용됨
 - ② 국민교육을 위한 의무적 학교교육은 19세기 초까지도 중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실제 학교의 설립이 잘 실현되지 않음
 - ③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의 대중화가 19세기 후반에서야 실현되었음

- 독일은 프러시아와 바바리아에 의해 국민교육의 대중화를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음

☞ 독일의 국민교육제도는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침

3) 학교본위 공교육제도의 동요

- 학자별 보고서를 통한 학교위주의 공교육제도의 문제점 지적
 - ①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수명이 다하였으므로, 학교의 교육제도를 벗어나는 길만이 교육을 되살리는 방법이라고 주장함
 - ② 학교제도가 지니고 있는 획일성과 몰개성성, 순응성 조장의 문제가 교육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학생들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됨
- 학교본위 공교육제도의 변화양상 - 탈학교운동
 - 학교교육의 기본 테두리 내에서 부분적 개방과 개혁을 시도함
 - 기존 학교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교육하려는 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① 대안교육운동
 - 경제개발 중심의 근대적 가치관에 내포된 경쟁적, 파괴적 가치관의 극복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등장
 - 인지중심 교육과정을 비판하고 체험위주의 노작교육과 공동체 중심의 인간화 교육을 강조하였음
- ② 재택학교교육(가정에서의 학교교육)
 - 미국에서는 이 운동의 초기에 종교적인 이유로 가정에서 교육해야 할 필요를 느낀 부모들이 주류를 이루었음
 - 공교육제도와 취학의무를 수용하되, 실제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실시하고자 함
 - ☞ 학교의 교과내용을 그대로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지만 학교가 교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교육권이 학부모에게 이양되고 있음
(*학점은행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

2. 교육 글로벌화의 의미와 특성

1) 글로벌화의 의미

- 글로벌화 관련 용어
 -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용어는 세계화, 지구화, 전지구화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글로벌화 Vs. 국제화
 - 국민국가의 영토와 주권의 경계를 유지하느냐, 넘어서느냐의 차이
 - 국제화
 - 국민국가를 기본 단위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접촉과 교류를 뜻함

즉, 국가의 영토와 주권의 경계를 상정한 상태에서의 교류를 의미함

■ 글로벌화의 개념

- 글로벌화(Globalization)

- 국민국가의 영토와 주권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접촉과 교류가 보다 완전하게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
- 세계의 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행위·의사결정이 지구 사회의 다른 쪽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반적 과정(Macgrew, 1992)
- 국민국가들과 그 주권이 초국가적 행위자, 이들의 권력기회, 방향설정, 정체성,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마주치고 연결되는 과정(Beck, 1997)
- 교통수단 및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의해 상품 · 서비스 · 자본 · 노동 등의 교류에 있어서 국가 및 지역 안에 존재하던 장벽이 제거되고 사회 · 경제적 생활 공동체의 범위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대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국가 간, 지역 간에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는 현상

■ 글로벌화의 확산

- 글로벌화는 초기에 경제부문에서 지구촌이 단일 시장형태로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정치, 사회, 문화 등 삶의 전체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범위가 확대됨
- 글로벌화의 징표들

- 2008년 뉴욕 월가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타격
- G8과 같은 국제회의장 앞에서 벌어지는 시민단체들의 연대 시위
- 광우병,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
- 한류열풍

2) 교육 글로벌화의 의미

- 교육 관련 상품 · 서비스 · 자본 · 노동 · 정보 등의 교류에 있어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장벽이 제거되어 전 세계의 교육 이념과 실제가 유사해짐
- 교육 글로벌화
 - 교육에 있어 국가 간,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면서 개별 국가의 교육에 전 지구적인 차원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

3) 교육 글로벌화의 특성

■ 교육의 전 지구적 동형화 현상

-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실제들이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예) 교육민영화 정책, 국가수준 표준화 학력검사를 통한 학교 책무성 강화정책 등
- 초국가적 교육제도와 정책들이 형성되는 현상
예) 학력과 직업자격의 초국가적 표준화 작업
- 유럽은 1999년 유럽연합의 29개국 교육장관들이 참여하여 볼로냐 선언을 채택한 후 고등교육 자격의 표준화를 진행시켰음
-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구분방식			우리나라 학교급 분류
ISCED 0	Early childhood Education	취학 전 교육	유치원
ISCED 1	Primary level of education	초등교육	초등학교/공민학교
ISCED 2	Low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전기 초등교육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중학교 과정)
ISCED 3	Upper secondary level of education	후기 초등교육	고등학교 /각종학교(고교과정) /고등기술학교
ISCED 4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중등 후 비고등교육	해당없음
ISCED 5	Short-cycle tertiary education	단기 고등교육	전문대학 /각종학교(대학과정) /기술대학
ISCED 6	Bachelor or equivalent	고등교육	대학(교)
ISCED 7	Master or equivalent	석사과정	대학원 석사과정
ISCED 8	Doctoral or equivalent	박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5)>

■ 초국가적 기구의 글로벌 교육 담론과 의제 형성

- 국제정부기구나 국제비정부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들은 교육 의제와 담론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교육체계의 통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UNESCO 등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담론 및 실제의 확산

-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교육정책결정자 네트워크는 지구적 교육 담론 형성에 참여함
- 교육정책결정자와 학자 네트워크는 국제회의 참석, 이메일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과 학술논문 출간 등을 통해 교육 아이디어와 담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국가 교육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유사성을 갖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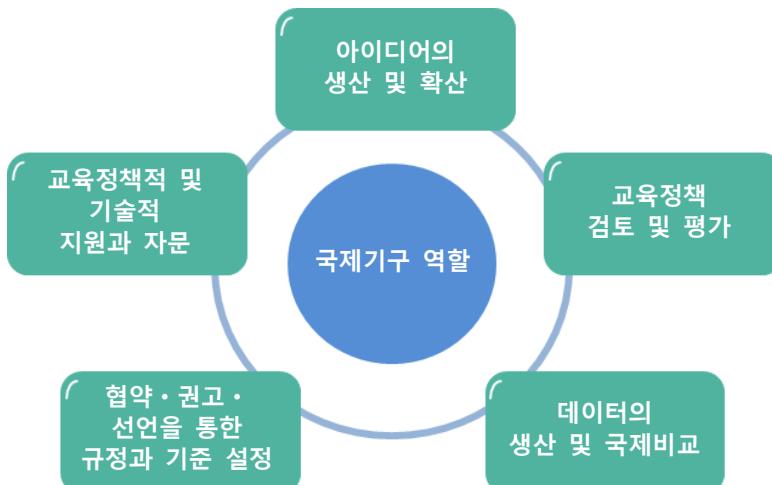
- 교육의 상품화 : 교육 글로벌화로 인해 교육과 지식의 상품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교육상품	내용
ETS (Education Testing Service)	미국의 교육검사서비스
SAT (Scholastic Aptitude Test)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의 국제학생성취도 평가
TIMSS(Trend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국제교육평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의 국제수학·과학성취동향

- 초국가적 이동과 다문화주의

- 글로벌화는 교육, 결혼, 직업으로 인한 초국가적 이주를 가속화시켜 다문화주의를 형성시킴

3. 교육 글로벌화에서의 국제기구의 역할



- 아이디어의 생산 및 확산
 - OECD의 최근 담론 : 학습의 사회적 성과, 교육과 사회적 진보
 - UNESCO의 최근 담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모든 이를 위한 교육
- 교육정책적 및 기술적 지원과 자문
 - UNESCO : 회원국의 교육정책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정책적,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
- 협약·권고·선언을 통한 규정과 기준 설정
 - UNESCO : 협약, 권고, 선언 등의 형태로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준수하도록 의무화 또는 권장
- 데이터의 생산 및 국제비교
 - OECD : 국가 간 비교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대표: PISA)
- 교육정책 검토 및 평가
 - OECD : 국가별 검토 & 주제별 검토

4. 글로벌화의 교육적 함의

1) 한국의 입장에서 나아갈 방향

- 다문화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 국가 간의 활발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는 집단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화 된 교육'이 필요함
 -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 집단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
- 교육체제의 국제적 통용성과 호환성을 제고해야 함
 - 우리나라 교육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은 우리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호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서비스의 개방에 따른 교육 경쟁력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 한국의 고등교육이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하위권에 속하므로 외국의 우수한 교육서비스의 유입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난립으로 국내교육의 공공성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제교육개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우리나라는 자국의 발전 뿐 아니라 후발국의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국민 정체성의 재확립이 요구됨
- - 우리 민족과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강화시켜 민족적 자긍심이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쟁과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대학 서열화와 진학 경쟁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어, 부유층 자녀들이 교육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경쟁의 심화로 인한 교육불평등, 이로 인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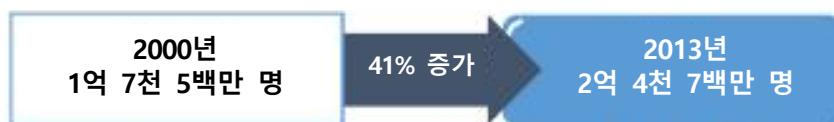
다문화세계와 교육 / 12주차 2차시

1. 다문화사회와 교육불평등

1) 다문화사회의 현실

■ 자료를 통해 살펴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현황

- 전 세계 인구의 약 3.4%는 출생국가나 국적 보유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임(2013년 기준)
 - 이주민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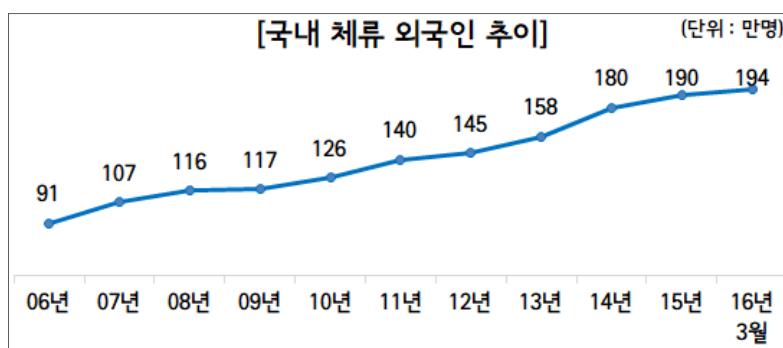
-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의 이주민 수는 인구 10명당 1명을 초과함
- 미국
 - 이주민 수가 가장 많은 나라
 - 2013년 기준 4천 6백만 명에 달하고 있음
 -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비율

■ 한국의 연도별 체류 외국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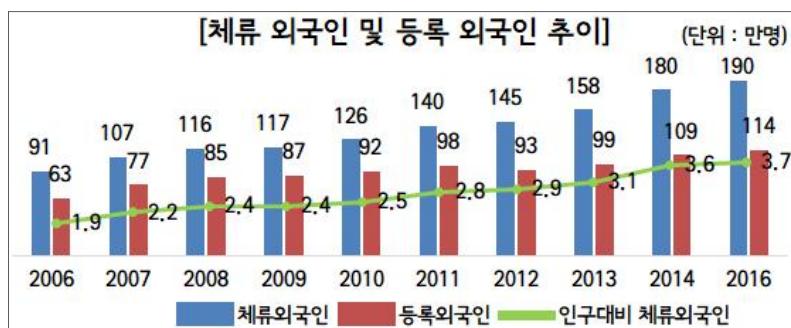
- 1990년대부터 국내에 외국인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증가
- 한국 체류 외국인



- 2016년 3월 전년대비 7.2% 증가하여 194만 명을 기록함
- 외국인 유형
 - 동포,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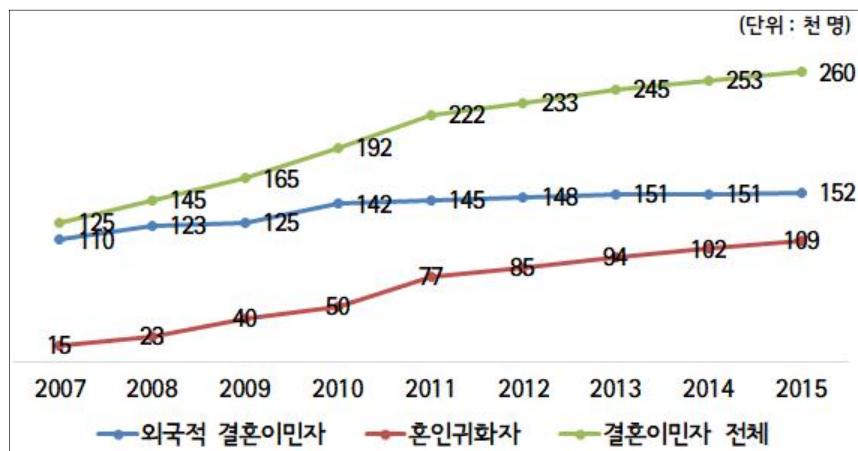
[출처: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구인정책 통계월보']



[출처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구인정책 통계월보 KOSIS, 주민등록인구']

■ 한국의 결혼이민자 추이

- 결혼이민자는 두드러진 증가를 보여옴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급증함
 - ☞ 결혼이민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
- 결혼이민자 규모가 갖는 의미
 - 추세적 증가 : 결혼이민자는 2015년 말 혼인 귀화자를 포함하여 260천명에 이르고 있음
 - 자녀세대 규모의 확대로 다문화가정의 출생아동수가 해마다 증가함
- 결혼이민자 추이



[출처: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구인정책 통계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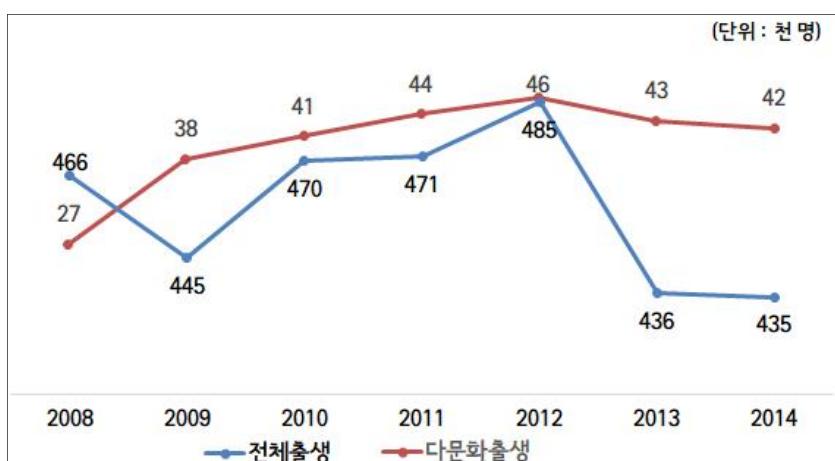
- 결혼이민자의 국적별·성별 현황(혼인 귀화자 제외)

(2016. 03. 31. 단위 :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 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52,025 (100%)	58,425	22,786	41,074	12,915	11,495	4,068	2,890	2,382	18,236
남자	23,407 (15.4%)	11,815	7,130	984	1,225	330	49	76	109	8,819
여자	128,618 (84.6%)	46,610	15,656	40,090	11,690	11,165	4,559	2,814	2,273	9,417

[출처: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구인정책 통계월보']

- 다문화가정 자녀 출생 추이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

① 개인적 차원

-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자녀의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학교에 진학하면 학습 장애를 겪게 되는 원인 →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임
 -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됨
 - 정체성 혼란 → 가정과 사회에 대한 불만 발생

② 사회적 차원

- 주류사회에 통합되지 못함 → 사회의 비판세력으로 성장
- 올바른 교육기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
 - 예) PISA 실시결과 독일 학생들의 성취도가 저조하였음
 - 그 이유로, 독일이 이주민 가정 자녀들의 낮은 성취도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세대별 문제
- 서양 국가

- 1세대 : 정치적 시민권의 문제
- 2세대 :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문제
- 3세대 :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
- 현재, 우리나라는 위의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2) 다문화사회에서의 교육불평등

■ 소수민족집단의 현실

- 낮은 소득수준으로 하류 사회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음
- 소수민족의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도로 인하여 대학진학률이 낮음

■ 소수민족집단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이유

① 문화실조론적 관점

- 문화실조
 - 가정의 문화적 자본과 활동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
- 학업성취도가 가정의 문화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함
-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가정에서 문화적 자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은 언어발달이나 인지발달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획득하지 못하여 학교학습에 지장을 받게 됨
 - 교수학습과정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교육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상교육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예)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② 문화상대주의 관점

③ 문화정치학적 관점

- 학교교육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주류집단에 의해 행사되고 있기 때문임
 - 소수집단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이 아님

④ 문화적 전도현상 관점

- 주류집단의 것

즉, 인간의 행동, 사건, 상징, 의미 등이 올바르다는 편견에 기인한 것임

 - 주류집단의 모든 것이 표준으로 규정되고 있음
 - 소수민족집단은 주류집단의 모든 것을 표방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소수민족집단의 학업성취가 저조한 이유는 주류문화와 소수민족집단 문화간 권력 차이로 인한 문화적 전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임

2.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이해

1) 다문화교육의 특징

- 다문화주의의 입장
 - 문화와 주변문화 등의 위계화된 서열을 해소하여,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동등한 공존을 강조
 - 서로의 문화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편견을 없애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별의 해소
 -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관용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평화로운 온누리 사회를 만들
- 다문화주의의 관련 대상
 - 인종적 편견과 차별뿐 아니라, 동일한 인종에서 발생하는 계족, 성별, 세대 성별, 동성애 등의 광범위한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고 있음
 -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다문화주의는 세계주의와 다원주의,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음
- 다문화교육의 의미
 -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다문화적 의식을 형성해야 함
 - 다문화교육
 - 문화적 다양성에 존중과 이해를 위한 일련의 교육적 과정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인 차별을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전략
 -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자별 정의
 - 장인실, 2006
 - 다문화교육은 인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집단에 속해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이해와 평등관계를 중시하고, 민족과 사회적 지위, 성별, 종교, 이념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있지 않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제공하는 것
 - 바브루스 Vavrus, 2002
 - 다문화교육은 문화적·민속적·경제적 집단들 간의 교육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총체적 학교개혁의 노력
 - 뱅크스 Banks, 2001
 - 다문화교육은 이념과 개념, 교육개혁 운동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해야 함
 - 다문화교육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강조
 - 니에토 Nietp, 2005
 - 모든 학생을 위한 기본적 교육이며 종합적 학교개혁의 과정임
 - 따라서 지역사회가 수용하는 다원주의(민족, 인종, 언어, 종교, 경제, 성 등)를 지지함
 - 다문화교육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육적 접근

2) 한국의 다문화교육

■ 한국의 다문화의 형성요인

- 한국의 다문화는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다양하고 급속하게 형성되었음
-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단일 지구촌의 형성
-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와 3D 직종의 기피로 인한 노동인구의 부족
- 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연수생의 확대
-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
- 북한 이탈주민의 대량유입
- 재외한국인 동포의 급증

■ 한국의 다문화사회화의 급속화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

- 단일민족이 혈통을 기반으로 폐쇄적 문화로 인한 다문화적 경험의 매우 부족함
 - 이러한 현상을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게 됨
- 현재 정부, 학계, 교육계, 언론계 등의 모든 계통에서 다문화사회화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실제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 한국 다문화교육의 사회학적 기능이 나아갈 방향

- ①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강조되어야 함
 - 다문화의 이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배려와 인식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 ②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있어야 함
 - 현재의 문제점은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허용적 평등관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임
- ③ 다문화교육을 통해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해야 함
 - 다문화교육은 단일 민족에 의한 동화교육이 아님을 인식하고, 소수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존중과 배려가 필요함

3) 다문화교육의 핵심쟁점 및 한계점

■ 다문화교육의 핵심쟁점

- 전통적으로 학업에 선공적이지 못했던 소수계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 다문화교육이 소수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지위 상승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다문화교육 정책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함

■ 다문화교육의 한계점

- ① 다문화교육은 학업성취의 책임이 학교교육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음
 - 낮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책임이 학생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 ② 다문화교육 효과를 교사의 태도와 수업방식의 변화를 강조하기만 함
 - 학생들의 태도가 함께 변화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음
- ③ 특정 소수집단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학습과 성취의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떠한 다문화교육 접근도 최선의 성과를 보일 수 없다고 강조함
(오그부(Ogbu), 1992)

직업세계와 교육 1 : 교육과 직업세계의 관계 / 13주차 1차시

1. 교육과 직업세계를 설명하는 이론

1) 교육과 직업세계의 관계에 대한 대조적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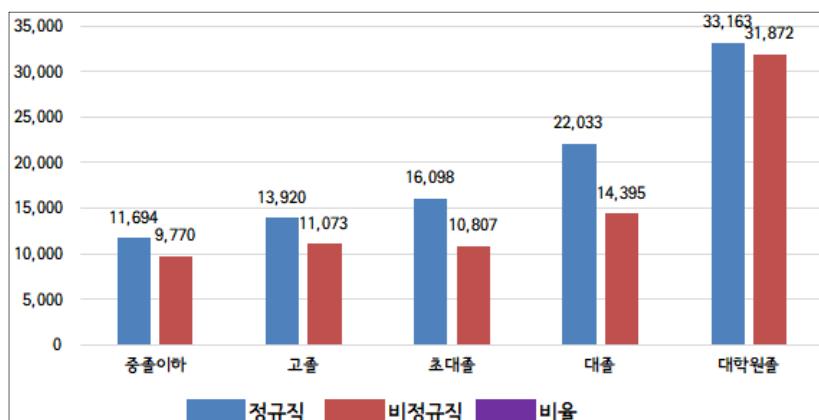
■ 교육과 직업세계의 관계에 대한 대조적 관점

- ① 교육은 직업세계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교육의 사회적 선발 · 배치의 기능
 - 기술기능이론과 인간자본론적 시각
 - 교육이 기술과 생산성 등 직업세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길러준다고 봄
- ② 교육은 직업세계에 필요한 사람들을 찾거나 직업위계 서열을 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함
 - 교육이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자질을 길러준다기보다는 자질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 신호기능이나, 단순히 직업위계 서열에서 상대적 위치를 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함
 - 선별기준과 직무경쟁이론

■ 한국의 교육수준별 근로실태

- 학력별 시간당 임금총액

- 시간당 임금총액을 학력별로 보면, 전체 및 정규직 근로자는 고학력일수록 많아지며, 비정규직은 전문대졸보다 고졸이 더 많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은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졸 제외, 정규직 대비 96.1%) 낮아져 대졸은 정규직 대비 65.3% 수준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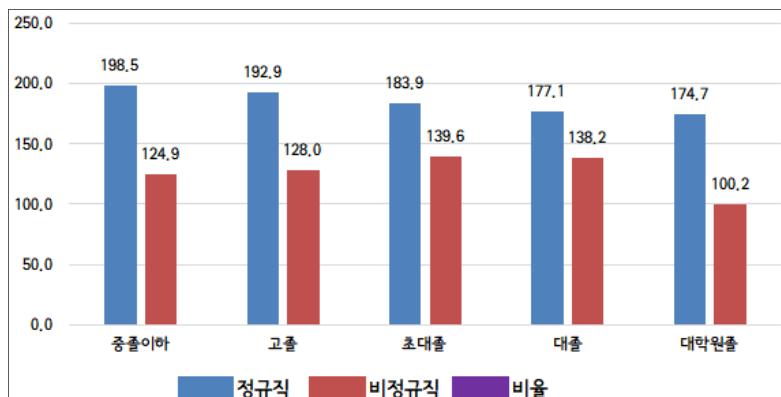
[출처: 2016,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구분(단위 : 원)	전체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16,709	18,212	12,076 (66.3%)
중졸 이하	10,592	11,694	9,770 (83.5%)
고졸	12,939	13,920	11,073 (79.5%)
전문대졸	15,364	16,098	10,807 (67.1%)
대졸	21,140	22,033	14,395 (65.3%)
대학원졸	32,940	33,163	31,872 (96.1%)

주) 1) 특수형태종사자는 제외
 2)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
 [출처: 2016,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 학력별 총 근로시간

- 정규직은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총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준은 대학원졸(57.3%) 을 제외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출처: 2016,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단위 : 시간/한달 기준)

구분(단위 : 원)	전체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171.1	184.7	129.3(70.0%)
중졸 이하	156.3	198.5	124.9(62.9%)
고졸	170.6	192.9	128.0(66.4%)
전문대졸	177.7	183.9	139.6(76.0%)
대졸	172.5	177.1	138.2(78.0%)
대학원졸	161.9	174.7	100.2(57.3%)

주) 1) 특수형태종사자는 제외
 2)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
 [출처: 2016,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

2) 기술기능이론에서 본 교육과 직업세계의 관계

■ 기술기능이론적 관점

- 산업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

- 학교교육은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이든 일반적인 능력의 함양이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함
 -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수준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점차로 더 많은 비율의 인구가 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요구받게 됨
-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직업구조의 변화양상
-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하는 직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낮은 기술 수준을 요하는 직업의 비중은 감소함
 - 전문직의 비율
 - 1963년 : 3.2% → 2008년 : 20.1% = 증가
 - 농림수산업의 비율
 - 1963년 : 62.9% → 2008년 : 6.6% = 증가
 - ❖ 고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인 관리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증가함
 - 우리나라 직업구조의 변화

(단위 : %)	1963년	1973년	1983년	1993년	2003년	2008년
전문직	3.2	3.0	4.7	8.6	17.3	20.1
관리직	-	-	1.2	1.8	2.7	2.2
사무직	3.5	6.1	10.5	15.3	14.3	14.8
판매직	10.1	12.2	15.4	16.0	12.8	11.1
서비스직	5.1	6.6	10.0	12.4	12.3	12.3
농림수산업	62.9	49.9	29.4	13.3	8.2	6.6
생산직	14.9	21.9	28.4	32.3	32.1	32.5

주) 1) 2008년 이후 직업분류체계가 바뀌어 이후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움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직업구조 양상

- 과학기술 수준이 앞서있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의 비중이 높음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직업별 인구분포

(단위 : %)	전문/관리/기술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농/임/어업	기능직	단순노무직	기타
에티오피아	3.7	0.5	13.0	47.9	0.9	33.7	0.03
베트남	10.7	1.8	28.5	10.3	8.5	39.8	0.2
멕시코	18.8	6.5	32.9	8.0	9.9	23.5	0.1
브라질	21.6	9.1	29.3	13.9	9.5	15.5	0.8
말레이시아	25.5	8.8	33.8	6.6	11.2	13.8	0
한국	21.4	16.9	31.4	4.8	12.1	13.2	0
일본	24.7	19.6	21.6	3.4	21.9	6.9	1.4
독일	44.1	12.6	27.0	1.4	6.1	8.0	0.5
프랑스	44.5	8.9	24.5	3.2	7.3	10.2	1.0
영국	47.6	9.9	27.0	1.1	4.8	8.8	0.5

주) 1) 기타: 군인 외

2) 출처: ILOSAT(2017)

■ 기술기능이론적 관점에 대한 평가

-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술기능이론의 주장이 설득력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학과별 정원을 조정할 때 산업 수요를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교육은 직업세계의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
- 직업세계의 기술 수요와 교육수준이 일치하지는 않는 한계가 있음
 - 과잉교육, 하향취업, 교육인플레이션, 고학력 실업, 전공불일치

3) 인간자본론에서 본 교육과 직업세계의 관계

■ 인간자본론적 관점

- 교육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행위임 -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생산성이 향상되어 임금이 상승하게 됨
- 인간자본의 가치 = 인간이 노동시장에서 평가받는 경제적 가치
-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적 개념임
 - 교육은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소득을 증대시키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게 함

■ 인간자본론적 관점에 대한 평가

- 임금결정요인, 빈곤, 소득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음
 -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됨
- 1950년~1960년대에는 인간자본론에 근거하여 저소득층과 저개발국가에 대규모의 교육투자 및 교육원조가 실시되었음
- 소득분배의 불평등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는 한계점이 있음

4) 선별가설에서 본 교육과 직업세계의 관계

■ 선별가설의 개념

- 교육은 훈련가능성을 나타내 주는 신호 또는 하나의 상징적 자격증임
- 교육은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교육자체가 개인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다고 볼 수 없음
 - 생산성, 잠재력, 훈련가능성, 동기 등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 뿐임
- 교육은 선별, 여과, 인증, 분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고용주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호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교육은 개인을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 능력을 교육자격증인 졸업장으로 '딱지' 붙임으로써 개인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개인의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임

■ 선별가설의 두 가지 관점

- 신호모델
 - 교육은 개인이 이미 지니고 있는 능력의 신호 역할을 수행함

- 교육은 높은 생산성이 기대되는 개인을 찾아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자격증주의
 - 교육은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데 실제로 요구되는 능력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업에 입직하는 데 필요한 상징적인 자격증의 역할을 수행함
 - 졸업장 자체가 상징적 도구임
- 신호모델과 자격증주의의 공통점
 - 기업에서 지원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할 때 교육성취는 고용주에게 모종의 신호의 역할을 하고 근로자를 다양한 직종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함
 - 교육은 생산성의 증대가 아니라, 단지 생산성의 예언적 역할을 하는 것임
 - 교육에의 투자가 개인적으로는 수익성을 보장하나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볼 때 과잉교육과 하향취업 등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 오늘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교육인플레이션 현상
- 선별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 미국 내 직업의 직무분석(베르그, 1970)
 - 기술 수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직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정도는 근로자의 실제 교육수준보다 낮음
 -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짐
 - 미국 노동력 분석
 - 미국 노동력의 약 40%가 직업이 요구하는 적정 교육수준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음(덩컨과 호프만, 1976)
 - 근로자들의 16~40%가 자신들의 직업이 요구하는 적정 교육수준보다 1~3년 정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
 - 11~17%는 과잉교육을 받음(럼버거, 1981)
 - 우리나라의 하향취업 현상
 - 1980~1985년 사이에 졸업한 대학졸업자의 직종별 취업 현황 분석 결과, 하향 취업하는 경향을 나타냄(김윤대, 1991)
 - 전문대 졸업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결과, 학력부족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7%에 불과한 반면, 36.6%가 학력과잉자인 것으로 나타남 (임언 외, 2012)
 - 대학졸업(40.1%) 및 대학원졸업(41.4%)이 전문대졸업(29.1%)보다 높음
 - 비이공계 전공(40.6%)이 이공계 전공(31.6%)보다 높음

5) 직무경쟁이론에서 본 교육과 직업세계의 관계

- 직무경쟁이론적 관점에 대한 평가
 - 개인의 소득은 임금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경쟁(직무의 속성)에 의해 결정됨
 - 교육은 채용 결정 시 훈련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준거로 고려하는 고용주의 판단기준임

- 교육수준 = 훈련가능성
- 교육수준은 훈련비용을 적게 들이는 요인으로 간주

■ 직무경쟁이론을 뒷받침하는 주장

- 한국사회에서 대졸 실업률이 급증하는 현상은 그들의 생산성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동화 영향으로 일자리가 제한되기 때문임

6) 노동시장분절론에서 본 교육과 직업세계의 관계

■ 노동시장분절론적 관점

- 노동시장은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음
 - 임금수준의 높고 낮음
 - 승진기회가 많고 적음
 - 근무여건이 좋고 나쁨
 - 교육수익률이 높고 낮음
- 임금, 부가급부, 고용안정성 등 근로 조건을 부문에 따라 다름
 - 분절된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자의 위치는 인적자본을 통제한 후에도 승진과 임금이 불평등하게 됨
- 임금결정 방식은 부문에 따라 다름
 - 인적자본이 부문에 영향을 받음
- 사회집단의 불평등 현상
 - 인종, 민족, 성별 등에 있어 특정 사회집단은 특정 부문에 집중된 경향이 있음
- 근로자의 위치 불변
 - 부문 간 근로자 이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
 - 교육수준이 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가 소득을 결정함
(사회불평등과 관련)

2. 능력주의와 학력주의

1) 능력주의

■ 능력주의의 등장 : 근대사회부터 대두되었음

- 근대사회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신분과 같은 귀속적 요인이 아니라 개인이 성취한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능력주의 사회를 표방하였음
-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능력'이란 재능과 노력의 결합체를 의미함
- 재능
 - 지능과 같은 인지적 능력으로 인식됨
 - 따라서 학교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것이 곧 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지표로 간주됨
- 이 관점에서는 능력주의와 학력주의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음

■ 능력주의의 개념적 기조 : 업적주의

- 업적주의에서 유래됨
 - 영(1958)의 「업적주의의 도래 : 1870~2033」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등장함
- 업적주의 사회
 - 가장 훌륭하고 명석한 사람이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며, 고용, 시민사회, 정치권 등 제 영역에서 기회가 오직 재능과 성취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사회
- 업적
 - 공식적인 교육체제를 통해 습득한 교육 성취 및 자격(개인의 교육적 업적)
- 업적주의는 교육선발과 직업선발이 개인이 이룩한 성취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리와 체제를 의미함
- 대표적인 업적주의의 선발준거
 - 학위 및 졸업장, 시험성적 등
-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

능력주의 사회가 바람직한 것인가?

능력주의에서 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능력주의 사회는 과연 실현 가능한가?

- 위의 내용에 대한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능력이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함
- 능력 = 교육수준
- 능력주의는 학력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2) 학력(學歷)주의

■ 학력(學力)주의 Vs. 학력(學歷)주의

- 학력(學力)
 - 사전적 의미 : 학문의 실력, 학문을 쌓은 정도, 학문의 힘
 -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획득한 실질적 능력과 힘
 - 학력(學歷)
 - 사전적 의미 : 수학(修學), 이력(履歷), 학교를 다닌 경력(經歷)
 - 어떤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녔는가를 나타내 주는 징표
- ### ■ 학력(學力)주의의 개념
- 학력(學力)주의
 - 학력이 직업성취를 비롯하여 삶의 기회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나 관행

- 자격증주의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
- 개인의 실제 능력과 노력보다 어떤 교육을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졸업장이 더 중시되어 졸업장 프리미엄이 작용함을 가정함

3) 능력주의와 학력주의

■ 능력주의와 학력주의의 관계

- 능력주의 원칙
 - 정치, 경제, 사회적 보상이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 분배되는 것
- 학교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고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및 기술을 가르쳐줌
 - 학교교육의 성취도에 의해 지위를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학교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균등화하는 것은 사회적 평등을 촉진시키는 길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함
- 능력주의 = 학력주의

■ 능력주의와 학력주의에 대한 비판

- 개인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성취한 능력 지표라기보다는 귀속적 요인의 성격이 강함
- 학력이 직무능력보다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능력을 나타냄
 - 따라서 학교에서 습득하는 기술의 형태와 내용, 생산성이 일터의 요구와 연계성이 적음(베르그, 1970, 콜리스, 1979)

■ 능력주의와 학력주으로 인한 문제 및 해결을 위한 움직임

- 서구
 - 교육에 기초한 차별적 문제 제기
- 우리나라
 - 지나친 학력과 학벌주의
→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능력과 관계없이 학벌위주의 취업선점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문제점 제시

오늘날 주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핵심능력에 대한
규명 및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길러야 할 능력
즉, **학력(學歷)이 아닌 학력(學力)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

직업세계와 교육 2 : 직업세계의변화와 능력관계 / 13주차 2차시

1. 능력관

1) 잠재능력과 실무능력

■ 잠재능력과 실무능력의 용어 비교

- 잠재능력

- 연마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
- 음악, 미술, 과학 중 특정 영역과 관련된 소질이나 재능
- 막연한 일반적 능력

- 실무능력

- 훈련이나 경험의 결과, 현실적으로 도달한 능력 수준(= 실력)

■ 서구사회의 능력관

- 실무능력을 중시함

- 서구의 노동시장 구조적 특성

- 기업에서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지닌 사람을 선호함

- 일반적으로 경력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능력관

- 잠재능력을 중시함

-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잠재능력에 더 큰 관심을 갖음

- 기업 채용의 특성

- 기업에서 채용 시에는 능력의 분화가 뚜렷한 분야를 제외하고 관리, 행정, 사무직 등의 일반 분야에서 잠재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음
- 신규 채용 중심 :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경력자를 충원하기보다는 기존 근로자를 훈련시켜 배치함 → 장래에 성장 잠재능력을 지닌 인물 선호
- 지원자의 잠재능력 평가 준거 : 졸업장에 의존함 → 학력주의 현상 초래

2) 능력의 다면성

■ 과거의 능력에 대한 개념

- 능력 = IQ(재능/지능) + 노력

- 능력은 개인의 지적 역량을 의미하였음

- 지적 역량은 하나의 표준화된 점수로 포착할 수 있는 속성으로 인식하였음
- 지적능력을 지닌 사람은 학교에서 우수한 학업성취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우수한 학업성취를 나타낸 사람은 직업세계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믿었음

■ 과거의 능력 인식에 대한 비판

- 사실상 IQ와 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밝혀진 연구가 거의 없음(Bills, 2004)
- 하우저와 동료들(Hauser et al, 2000)의 주장
 - 복잡한 기술 및 역량들을 IQ라는 단일한 정신적 역량으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있음
 - IQ로 측정되는 인지적 능력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성공의 기회를 촉진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함
 - 정신적 역량이 교육과 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사실이나, 정신적 역량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가지고 능력주의 사회를 개념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가드너(Gardner, 2007)의 다중지능이론 ◆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 ◆ 인간의 지능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대인지능, 지성지능 등의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의 능력에 대한 인식

- 능력을 보다 넓은 사회과학적 맥락에서 보고, 그 기능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이 부상하고 있음
 - '능력' 또는 '역량'으로 번역되고 있는 'Competency'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이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
- OECD의 '역량 규정 및 선정 사업'
(DeSeCo 사업 :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 직업생활을 포함하여 전 생애에 걸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다차원으로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는 대표적인 사업임
 -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준거 틀을 개발함
- DeSeCo 사업 (라이첸과 살개닉 Rychen & Salganik, 2000)
 - 역량의 개념상 특성과 요소를 정리함
 - "역량은 지식과 기술 이상의 의미이며,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다"
 - 핵심역량에 포함되는 네 가지 개념적 요소를 제시하였음
 - ☞ 다기능적이라는 것
 - ☞ 여러 분야에 통용될 수 있다는 것
 - ☞ 고차원의 복잡한 지적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
 - ☞ 방법적 지식, 지적·비판적 능력, 의사소통능력, 상식 등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 핵심역량에 대한 규정
 - ☞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가치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 삶의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도전에 대응하는 데 수단이 되어야 함

☞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함

- OECD의 DeSeCo 사업에서 규명한 핵심역량 : 세 가지 범주의 9가지 핵심역량

범주		선정이유	핵심역량
1	도구를 상호작용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발전에 발맞춰 나가야 할 필요성 • 도구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성 •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성 	1.1 언어 상징, 텍스트를 상호작용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 1.2 지식과 정보를 상호작용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 1.3 기술을 상호작용 방식으로 사용하는 능력
2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성에 대처할 필요성 • 공감의 중요성 •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2.1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능력 2.2 팀을 이루어 일하고 협동하는 능력 2.3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
3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 •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이행할 필요성 • 자신의 환경과 그 기능을 이해할 필요성 	3.1 넓은 시각에서 행동하는 능력 3.2 인생의 계획과 개인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하는 능력 3.3 자신의 권리 이해관계, 한계, 필요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능력

- 핵심역량의 다양한 용어적 표현

① 직업기초능력

- ☞ 대부분의 직무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
-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자기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등을 포함함

② 생애능력

- ☞ 단순히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뿐 아니라 시민생활과 여가생활까지 포함하여 전체 삶의 영역에서 전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능력

- 핵심역량에 대한 나라별 정의

① 잉글랜드 : Key Skills

- ☞ 일상생활, 직업생활 및 교육훈련에서의 광범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공통적인 능력

② 스코틀랜드 : Core Skills

- ☞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며 일터에서 적응력을 갖춘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능력

③ 우리나라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직무능력을 체계화한 것으로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됨
- ☞ 직업기초능력 :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10개 능력, 34개 하위능력으로 구성)

☞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 영역	하위능력
의사소통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수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초연산능력, 기초통계능력, 도표분석능력, 도표작성능력
문제해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고력, 문제처리능력
자기개발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아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경력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간자원관리능력, 예산자원관리능력, 물적자원관리능력, 인적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팀워크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협상능력, 고객서비스능력
정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능력
기술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술이해능력, 기술선택능력, 기술적용능력
조직이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제감각, 조직체제이해능력, 경영이해능력, 업무이해능력
직업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 직업수행능력 :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3) 능력의 상황의존성

- 능력은 개인이 지닌 속성이라는 기준의 관점을 비판하는 관점
 - 능력은 상황의존적이고 가변적이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
 - 개인에 따라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이 능력의 정도를 결정하게 됨(보상을 결정하게 됨)
- 능력의 상황의존성과 보상
 - 보상의 결정은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 등과 같은 개인이 지닌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의해 결정됨
 - 시장이 필요로 하는 능력일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상은 고용주의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라 달라짐

2. 직업세계의 변화와 능력관의 변화

1) 기업 환경의 빠른 변화와 관료제의 약화

- 직업세계의 변화로 인한 능력관의 변화
 -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 다양한 능력과 다원적 가치관,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업 환경의 변화 방향
 - 기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인식함

- 팀제운영에 따른 협업을 강조하는 조직구조로 변화함
- 조직구조의 변화에 따른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
 - 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나 대인관계기술 등 정의적 능력이 중시됨
 - 성공요인으로 지능지수에 대응하여 감성지수에 대한 활발히 논의됨
 - 우선순위로 규칙을 준수하고 지시에 순응하는 자질보다 결단력과 강한 동기, 추진력이 꼽힘
 - 빠른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복합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등이 중시됨
 - 직무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이 달라지면서 능력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상황의존적으로 변화됨
 - '능력'의 개념이 단일한 척도로 서열화시킬 수 있는 종류의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능력의 개념으로 변화되었음

2) 직업이동의 증대

-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기업 채용방식
 - 신규채용보다 경력사원의 채용을 늘리는 추세
 - 실질적인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채용을 선호함
 - 고용주의 의지
 - 직원들의 능력개발에 투자하려 하지 않음
→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 경력개발을 주도해 가야 함
 - 피고용인에게 요구되는 사항
 - 평생에 걸쳐 자신의 능력개발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양질의 직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유지능력 및 이를 뒷받침하는 대인관계능력

3) 창업의 증가와 소기업의 확대

- 창업 증가
 - 성장의 정체와 가속적이 자동화로 대기업 부문의 일자리 축소를 창업으로 해결하고자 함
- 소기업 확대
 - 대기업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하고 가변성 높은 기업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소기업과 프리랜서들이 증가함
- 창업의 증가와 소기업의 확대에 따른 현상
 - 소기업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근로자의 실제적인 직무수행능력을 보다 명확하고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음 → 해당 직무의 수행능력 정도가 명확하게 드러남
 - 따라서, 졸업장이나 자격증보다 개인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할 때 인정, 권위, 보상을 획득할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와 교육 1 / 14주차 1차시

1.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의 길

1) 4차 산업혁명의 시작

-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 클라우스 슈밥(Klaus Schuhwab)회장
 -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빠른 전환으로써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발표
 -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음
- 우리나라의 국민적 관심의 시작
 -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2016년에 인간 최강자라고 일컬어지는 이세돌 9단에게 바둑에서 이김으로써 '알파고 신드롬(AlphaGo Syndrome)'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충격을 줌
 -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및 유망분야
 -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의 도약적 발전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발달해 왔던 각종 기술 사이에서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종전의 산업혁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무인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창의적인 기술이 이제는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직업의 맥락에서 본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인간의 일자리가 '기계'에 빼앗겨 사라진다는 분석으로 널리 지지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를 볼 때 앞으로 약 20년 이내에 47% 정도의 일자리가 인간의 것에서 기계의 것으로 바뀌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예상하였음(Thomas Frey, David Osborne, 2013)
 - 미국에서 약 1억 3,800만여 개의 일자리를 포괄하는 702개 직업(또는 직업군)에 대해서 각각이 컴퓨터에 기반을 두어 인공지능화 될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위기이자 기회

-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우리나라 교육에 커다란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문제들을 분석해보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학교 모형을 만들 수 있음
 -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재상을 논의하고 핵심역량에 대한 재구성을 통해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학교 교육을 포함한 교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 기존의 인재상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양상

- 삶의 기반이 디지털화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인간관계, 의사소통의 방식이 매우 디지털화될 것
-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 지능정보사회에서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함
 - 이미 의사소통의 매체는 오프라인의 소통을 넘어서 인터넷, 모바일 기기,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으로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등의 발달은 디지털 세상의 비중을 더욱 높일 것임
 - 앞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더욱 디지털화될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자라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시민의식(Digital Citizenship)
 - 국가 수준을 넘어 최근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맞는 디지털 시민의식이 형성되고 공유될 필요가 있음
 - 이는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내용을 전수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함
 - 특히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자들에게도 이러한 디지털 시민의식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인문적 소양(Humanity)
 -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인류애에 기반을 둠
 - 기술의 진보는 기본적으로 인간 노동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기계에 의한 노동의 대체는 인공지능 등 기계를 소유한 소수의 사람에 의한 부의 독점을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승자독식의 사회구조('Winner Takes All' Society)를 더욱 강화할 것임
 -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교육의 양극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인류애에 기반을 둔 교육복지 체제를 강화해야 함
- 명민성(Agility)
 -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함
 - 다양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간 고유의 창의성(Creativity)
 - 한정된 사고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지식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인 산물은 결국 인간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음
 - 미래의 교육방향은 기계의 제한된 합리성을 뛰어넘는 창의적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

4) 4차 산업혁명과 교육시스템의 변화

■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제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반대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함
- 실험적 접근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
 - 성공사례는 교육시스템 개선의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교육제도의 유연성 마련

- 현재 국가 주도의 경직된 교육제도를 유연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학교제도,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우선 선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함

■ 교육주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의 필요성

- 교육분야에서는 이념과 철학에 따라 정책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정치적 변동에 따라 교육정책이 너무도 자주 바뀌어 왔음
- 미래 교육에 대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함

■ 교육시스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변화

- 혁신적 교육시스템은 교수·학습 활동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근본인 재규정에서 시작할 수 있음
-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재개념화를 바탕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재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사 양성교육의 내용, 임용방식, 재교 육의 과정에 모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함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학교교육의 변화

1)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

- 넘쳐나는 지식을 자기에게 맞도록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지능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 지식과 정보의 저장
 -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낼 줄 아는 문제 제기 능력 또는 문제 창출 능력

■ 교육중심축의 이동

전통적으로 교육은 아동을 가르치는 일(Pedagogy)로 여겨짐



교육의 중심축이
성인교육 또는 평생교육(Andragogy)으로 옮겨짐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자기주도교육(Heutagogy)의 필요성이 점점 강해질 것임

- 자기주도교육

- 학습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거나 또는 직접 만들고 활용하며 동시에 타인과 공유해 나가는 학습체제
- 정해진 계획표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학습체제를 의미함
- 수많은 지식과 정보의 바닷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을 선택하고 활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이 필수적임
-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창출하고 관련 지식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가는 창의적인 능력은 미래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일이나 문제 해결 또는 타인과의 소통은 모두 디지털 정보를 매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지털정보 처리능력은 모든 능력의 기초 바탕이 됨

2) 학교교육 변화를 위한 제언

■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기관

- 암기식 지식 주입교육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함
- 학교교육의 중심 목표는 '창의성 함양'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없이는 지능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응하고 생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임

■ 창의교육 시행을 위한 조건

- 창의성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획일적 평등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가관리의 단일화된 시험 방식은 학교현장의 다양성을 가로막고 창의적인 활동과 경험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창의성 교육을 위해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객관식 검사는 학교현장에서 배제되어야 함
 - 객관식 검사는 교육의 목적이나 타당성보다도 객관성만을 추구함으로써 지식의 단순 암기만을 요구하기 때문임

- 지능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 지식교육보다 정의적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게 여겨짐
 - 지식교육의 많은 부분은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맡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상호소통과 협동 작업을 통한 집단지능이 절실히 필요해지기 때문임
 - 대부분의 기본 학습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 문제를 창출하거나 해결해 가는 작업은 네트워크를 통하여거나 아니면 면대 면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
 - 타인과 소통하고 협동하는 대인관계 능력이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해지고 점점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는 사회체제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찾는 정신(마음)교육의 요구는 점점 증대될 것으로 보임
- 학교에 대한 인식전환
 - 학교는 '교과서를 가지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곳'이라는 틀에 박힌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학교
 -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그들의 문제를 제시하고 교사의 지도로 상호 협동적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찾고 해결해 가는 학습광장 또는 학습공동체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업교육

1) 4차 산업혁명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 및 요구

- 4차 산업혁명의 특성 및 기술발전 동향
 - 기술 혁신 및 진보 위에 최근 발전한 첨단 기술들을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기술,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상호 연결하고 융합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냄
 -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임
-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직업의 소멸과 생성 동향
 - 미국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일의 형태에 따른 고용동향을 조사한 연구결과
 - 지적인 일이건 기능적인 일이건 정형화된 직종들의 일자리(Routine Jobs)는 대폭 감소함
 - 비정형화된 지적 직종들의 일자리(None-routine Cognitive Jobs)와 비정형화된 기능적 일자리(None-routine Manual Jobs)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임
 - 미래의 많은 직업이 고도의 지적능력과 창의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도 여전히 기계화·자동화의 한계로 일정 비율의 직업은 인간의 기능적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인간의 기능적 노동 : 기능의 창의적 응용과 감각적 대응을 포함한 인간의 노동력
 - 현재의 직업 수행 방식에 더욱 효율적인 신기술의 도입과 접목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대량 실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일정 인력은 관련 신규 직종으로 이동을 준비해야

함

- 학교에서는 미래 직업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서둘러 준비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7대 트렌드'
 - ①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직의 고용증가
 - 사물인터넷 제품,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모바일 등 신산업에서 기술·제품 개발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IT 직종과 관련 기술직 및 전문가의 고용성장이 전망됨
 - IT 직종 기술직 및 전문가
 -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컴퓨터보안전문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등
 - IT 관련 기술직 및 전문가
 - 전기·전자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 통신공학기술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등
 - ② 4차 산업혁명으로 핵심인재 중심의 인력재편 가속화
 - 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으로 단순사무원(출납창구 사무원 등)은 물론 증권 및 외환딜러 등의 전문직도 고용 감소가 예상됨
 - 반면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등 핵심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③ 기계화·자동화로 대체가능한 직업의 고용감소
 - 생산설비의 기계화·자동화, 산업용로봇 및 3D 프린팅 기술의 확산으로 주조원, 단조원, 판금원 및 제관원 등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됨
 - ④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의료·복지 직업의 고용증가
 - 고령화와 의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의 증가가 예상됨
 - 다만, 산부인과 의사는 저출산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확산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반면에 교사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작물재배종사자와 어업종사자는 농어촌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동으로 종사자 수 감소가 예상됨
 - ⑤ 경제성장과 글로벌화에 따른 사업서비스 전문직의 고용증가
 - 경제 규모 성장과 글로벌화로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경영 및 진단전문가(경영컨설턴트), 관세사, 손해사정사, 행사기획자 등 사업서비스 전문가의 고용전망이 밝음
 - ⑥ 안전의식 강화로 안전 관련 직종의 고용증가
 -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정부 역시 안전 관련 정책을 강화하면서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등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들의 일자리 증가가 전망됨
 - ICT 융합에 따른 직업역량 변화

-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업무에 ICT 스킬이 융합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상 업무에 사용되는 '일반적 ICT 스킬' 외에 '전문 ICT 스킬(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네트워크 운영 등의 전문기술)까지 포함
- 예) 자동용접 및 로봇용접의 확산으로 용접원에게 프로그래밍 기술이 추가 요구되고, 치과기공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자동차정비원의 업무 중 전기·전자 관련 업무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별 고용전망

전망	직업명				
증가 (26)	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물리 및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변리사	변호사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사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수의사	에너지공학 기술자	영양사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응급구조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의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컴퓨터보안 전문가	한식목공
	한의사				
전망	직업명				
다소 증가 (58)	감독 및 연출자	경영 및 진단전문가 (경영컨설턴트)	경찰관	경호원	계산원 및 매표원
	관세사	관제사	광고 및 홍보전문가	기계공학기술자	기자
	노무사	대중가수 및 성악가	데이터베이스개발자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무역사무원	미용사	배우 및 모델	법률관련 사무원	보육교사
	보험 및 금융 상품개발자	상품기획전문가	생명과학연구원	세무사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소방관	식품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	시민단체 활동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손해사정사	안경사	약사 및 한약사	여행서비스 관련 종사자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작가	전기 및 전자설비조작원
	제품디자이너	판사 및 검사	전자공학 기술자	치과기공사	지리정보전문가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분석가	택배원	정보시스템운영자	피부미용사 및 체형관리사	항공기 객실승무원
	항공기 조종사	행사기획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화학공학 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환경 관련 장치조작원	회계 및 경리사무원	회계사		

전망	직업명				
유지 (95)	간판제작 및 설치원	감정평가전문가	건설기계 운전원	건축가(건축사) 및 건축공학 기술자	건축목공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경기감독 및 코치	경비원	경영지원 사무원	공예원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금속가공장치 조작원	금융 및 보험 관련사무원	금형원 및 공작기계조작원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
	기업고위임원 (CEO)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원	농림어업기술자	단순노무 종사원	단열공(보온공)
	도배공 및 유리부착원	도시 및 교통 설계전문가	도장원 및 도금원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 및 지게차운전원)	미술가
	법무사	보험 관련 영업원	부동산중개인 (부동산중개사)	비금속광물가공 장치조작원	비서
	비파괴검사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상품판매원	생산관련 사무원
	석유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섬유공학기술자	시각디자이너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식품제조기계 조작원
	아나운서 및 리포터	안내 및 접수사무원	애완동물미용사	영업원	영화·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
	용접원	운송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유치원교사	음악가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인문과학연구원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인테리어 디자이너	임업종사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조립원	자동차정비원	자산운용가	장례지도사	재료공학기술자
	전공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전자공학기술자	제과·제빵사	제조·생산 조립원
	조경기술자	조사전문가	조적공 및 석공	주방장 및 조리사	중등학교사
	직업 운동선수	철골공	철근공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청소원 및 가사도우미
	청원경찰	초등학교교사	출판물전문가	캐드원	컴퓨터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큐레이터 및 문화재보존원	토목공학기술자	통신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통신장비 및 방송 송출장비기사	통역사
	투자 및 신용분석가	특수학교교사	패션디자이너	항해사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전망	직업명				
다소 감소 (17)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단조원	대학교수	무용가 및 안무가	바텐더
	사진가	세탁원	악기제조원 및 조율사	이용사	주조원

다소 감소 (17)	증권 및 외환딜러	측량기술자	콘크리트공	택시운전원	텔레마케터
	판금원 및 제관원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감소 (3)	낙농 및 사육종사자	어업 관련 종사자	작물재배종사자		

■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직업적 능력과 태도

- 개인의 독특한 요구와 취향 및 개성을 반영하는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지적능력과 창의력 발휘가 요구되는 직업 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
- 한 기술의 복합 및 융합과 연계가 보편화함으로써 많은 직업에서 타 전문 분야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기 위해 소통, 협력, 인간관계, 협상 등을 포괄하는 정의적 능력과 태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4차 산업혁명은 기술변화 및 생산, 서비스 시스템의 변화로 직업인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태도를 요구할 것임
- 교육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이유임

■ 직업교육의 근본적 개편 및 발전 방향

- 가르치는 교육체제에서 스스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체제(Heutagogy)로 개편해야 함
- 창의력과 사고력 및 태도를 연마하는 학습과정 중심 교육으로 개편해야 함
- 일의 세계와 학습 세계를 통합해야 함
-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화를 추구해야 함
- 지금까지의 산학 협력체를 이해관계가 자세히 맞물려 일하는 공동 운명체로서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운영해야 함
- 직업교육의 전달체계를 학교·교실 중심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야 함
- 학교 중심 교육에서 평생 직업교육 중심체제로 개편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고등직업 교육을 강화 · 개편해야 함
- 새로운 직업교육 연구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능직에 대한 연구 및 직업교육훈련 방안을 새롭게 구축해야 함

4차 산업혁명시대와 교육 1 / 14주차 2차시

1.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 정책과 진로교육의 방향

1) 진로교육정책 변화의 개요

■ 우리나라 진로교육정책의 주요 변화

- 1980년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네스코 사업으로 시작된 한국의 진로교육 R&D는 40여 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정책적 변화를 맞으며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

시기	주요정책	세부내용
1982	한국교육개발원,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사업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연구개발
1990	각 시도교육연구원에 '진로교육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실시
2001	제1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명기
2002	제7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에 '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신설• (2003)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도 '진로와 직업' 배부
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및 지역단위 진로교육 협의체 구성·운영
	「국가진로교육지원체제 구축방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 강조
2006	「평생진로개발활성화 5개년(2007~2011)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 부처 공동 발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대학생 노동시장 진입 지원- 학교 밖에서의 진로개발 지원- 여학생 양성평등 진로교육
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이수제, 학습부담 적정화를 통한 의미있는 학습활동 전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진로집중과정 운영 : 교육과정 재구조화로 선택과목 수준별·영역별 세분화• 국가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포함 9개 부처 공동 발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통합 진로교육 등의 진로교육 활성화 시작- 비교과 창의로운 체험활동 안에 진로활동 포함
2010. 02	「진로교육 종합계획(2009~2013)」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부처(교과부, 복지부, 노동부) 공동 발표교과통합 진로교육 등의 진로교육 활성화 시작•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2010. 10	진로진학상담교사 충원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최초 진로특성화 담당교사 배치 정책 시행• 2011년 :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의 기본방향 설정 (1,500명 배치)• 2012년 : 진로진학상담교사 시도별 배정 (1,500명 추가 선발)
2011	진로전담교사 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의 질적 수준을 신장하는 계기 마련
2011. 03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부처 수준에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및 리더쉽을 발휘하는 부서 신설

2012. 04 (교과부)	학교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수준에서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초·중등 학교급별 및 학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발
2013	교육부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한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제공 소질·적성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 강화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 활성화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2013. 02 (교육부)	201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다양한 진로교육 요구의 수요 증대를 추구
2013	자유학기제 예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생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2015. 06 (교육부)	진로교육법 제정	<p><진로교육법 제정(2016.12.23.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의 법적 기초 수립
2016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생의 보편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2016	진로전담교사 초등학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강화
2016. 04 (교육부)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2016~2020)	<p><국무회의 안건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도입 진로교육 대상 확대(사회적배려대상자, 대학생 등) 진로체험 활성화 및 다양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2017. 01 (교육부)	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	<p><국가진로교육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R&D 강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정 및 위탁 운영
2017. 02 (교육부 관계부처)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 세부 시행 계획 수립	<p><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확대 운영 진로교육 대상 확대(사회적배려대상자, 대학생 등) 진로체험 지원 풍토 조성·확산(공공·민간)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 학교 교육과정 안에 녹아있는 진로교육의 핵심 이슈

① 과거의 국가 교육과정

-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목의 부분적인 요소로 시작된 진로교육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특성화된 선택 교과목으로 교육과정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았음
- 일반교과와 '진로' 요소를 통합하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동이 시작됨

② 2008년 교과통합 진로교육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작됨
- 학생들에게 일반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교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다수의 일반교사들이 스스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교육 연수에 참여하는 변화를 가져왔음

③ 2009년 비교과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

-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요소 중 하나로 진로활동이 자리 잡게 되었음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요소]

- ① 자율, ② 동아리, ③ 봉사, ④ 진로활동

- 4개 요소 중 하나라는 부분적 요소로서의 진로영역이 아니고 창의적 체험활동

4개 요소 전부가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④ 2011년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정책

-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국에 진로교육정책과 신설

- 국가-시도교육청-단위학교'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의 행정적 전달체계를 확고하게 마련한 계기
- 동시에 과거와 달리 진로교육 영역에서 차별적 행정력을 갖추고 국가정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진로전담교사 배치 정책

- 고등학교 배치를 시작으로 2016년에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면서 초 · 중 · 고등학교 약 95%에 달하는 학교에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였음

- 진로전담교사 배치 정책 의의

- 과거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학교 진로교육 전반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학생 · 학부모들이 진로와 관련된 심층 상담과 다양한 진로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일반교사들과 학교는 연차진로교육계획 수립에 따라 상호 소통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음

⑤ 2013년 자유학기제 정책발표

-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

⑥ 2014~2015년 자유학기제 시범 학교 운영

-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강화시키고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성과를 획득함

- 의의

-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1학기의 자유학기 동안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탐색 활동이 학생 개인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해 나가는 여정 안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학습 경험임을 확인하였음
- 학생 · 교사 · 학부모 등 사회 전체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한 학기만으로 종료되는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진로교육과의 수평 · 수직적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발달 단계에 따른 지속적인 진로성숙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후 숙제로 제안되었음
- 이후, 자유학기제의 사전 혹은 사후와 연계되어 모든 학교급에서 진로교육을 집중하여

제공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 제도가 마련되었음

⑦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진로교육으로서 그 의미를 명료히 하는 계기를 마련함

⑧ 2016년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시범학교 운영

- 초 · 중 · 고 모든 학년 또는 학기 중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시범학교에서 운영됨

⑨ 2017년 국가진로교육센터 개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국가진로교육센터 개소

- 국가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R&D 총괄

-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역할

-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진로교 육의 책무성을 강화함
-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수준에서 더 질 좋은 진로교육과 더 튼튼한 진로교육의 전달체계의 틀을 공고히 하는 역할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선진화된 진로교육의 콘텐츠와 정책 리더십을 홍보하는 역할

⑩ 2017년 2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수립

-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를 시범적으로 확대 · 운영

- 의의

- 중학교 한 학기 자유학기제의 경험을 학교급과 연계시킴으로써 학교급별 진로교육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정책 고리를 마련함
- 진로교육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탈북학생 그리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학교 진로교육 체제를 마련하였음

⑪ 현재

-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미래를 이끌어가고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소유한 학습자를 양성하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따라 교육내용, 전달 방식 그리고 담당자의 전문역량 등을 성찰하는 시기임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 및 요구 역량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적 요소

-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3D 프린팅 등의 디지털 기술 혁명이 일어남
- 정보와 통신의 융합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경계성의 모호함이 발생함
- 모든 분야의 기술이 광범위하게 연결 · 융합 · 상호교류를 이루는 초연결성이 나타남
-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화가 과거보다 일반화됨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

- 급변하는 환경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고 진로자립(Self-Reliance)하며(Collard et al, 1996),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세운 진로 목표를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며 추구하는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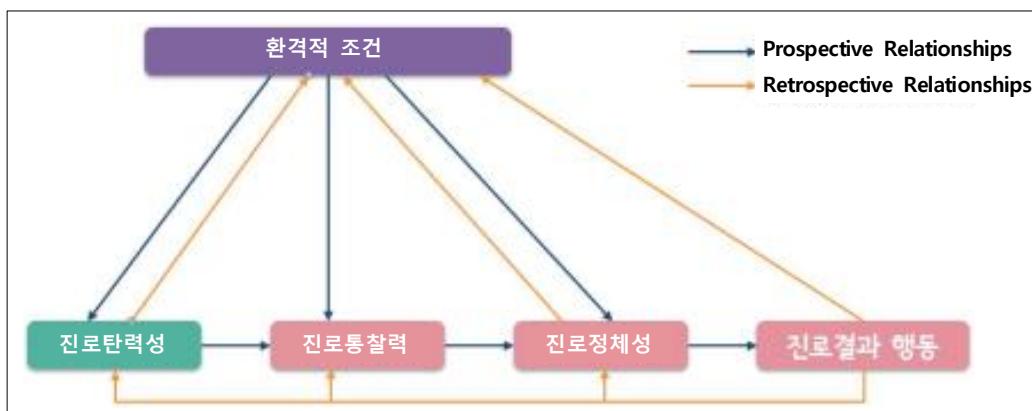
진로개발(Sustainable Career Development)을 위하여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

- 융·복합성

- 다양한 지식과 생각을 상황과 맥락 안에서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 창의성
 - 정보·지식·기술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와 분야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역량
 - 어떤 환경 안에서도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진로를 관리하는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진로교육의 역할

-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융·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분야의 경로를 창출하고 스스로의 삶과 진로를 디자인하여 평생 '지속가능한 진로개발'을 이루도록 준비하고 도와줌으로써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진로동기모델(Career Motivation Model) 활용



- 진로통찰력(Career Insight)과 진로정체성(Career Identity)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떤 환경적 조건에서도 진로 목표를 통제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개인이 수립한 진로결정과 행동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강조하는 모델
- 자신과 환경에 대한 긍정적 마음, '자기주도성', '적응유연성', '사회관계성' 등으로 구성됨

3) 미래사회를 대비한 진로교육의 방향

■ 진로교육의 내용적 측면

- 미래지향적 진로개발역량이 포함되어 강조되어야 함
- 미래지향적 진로개발역량
 - '진로탄력성', '창의성', '융·복합성' 요소를 포함하며 개인이 변화하는 직업세계 속에서 적응적·유연적으로 지속가능한 진로를 개발하고 자신만의 진로를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
 - 기존의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안에서 진로탄력성, 창의성, 융·복합성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내용 보완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진로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응하며 위험 감수를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로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능력인 '적응유연성'을 강화하여 전 생애 발달에 따른 시기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진로교육의 전달방식 측면

-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개발 및 효과적 활용

①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법
- 효율성, 유연성, 접근 편의성, 멀티미디어 기술과의 통합 등의 장점이 있음
- 대면학습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활동과 비판적 사고를 온라인에서도 학습 가능하도록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함

② 크로스오버 러닝(Cross Over Learning)

- 학교 밖, 방과 후 수업 등과 같이 학생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의 경험과 교육콘텐츠를 연결시키는 학습방법
- 일상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한 학습을 통해 교실 내 학습에서의 질문과 지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삶의 맥락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로 학습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③ 적응적 학습(Adaptive Learning)

- 개별 학생의 학습에 따른 필요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플랫폼
- 개별 사용자의 데이터에 반응해서 적절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맞춤형 수업 제공이 가능함
- 대규모 사용자 샘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함

④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방식
- 수업의 주도권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 교사가 교과내용을 가르치기보다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심화된 학습활동으로 창의적, 융·복합적 생각을 키울 수 있음
- 높은 수준의 인지, 적극적인 활동, 프로젝트 기반 등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함

⑤ 게임/게이미피게이션(Game & Gamification)

- 게임의 요소인 즐거움, 몰입성, 맞춤형 목표 설정, 경쟁과 보상 등의 매커니즘과 사고방식을 접목시킨 학습방법

⑥ 스토리텔링 학습(Learning Through Storytelling)

-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의 이해 및 기억을 증진하기 위하여 스토리를 활용하는 학습방법
- 동료 학생들과의 지식 공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지 과정을 성찰하고 지식을 재구조화할 수 있음

-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강화
 -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규명함 : 교수자, 상담/이해자, 공감자, 행정/운영자, 정보제공자, 분석/활용자, 연계자
 - 이를 위해 수시로 변화하는 진로교육 환경과 정책 등에 발맞추어 자신의 전문역량을 스스로 개발하는 '학습자'의 역할이 진로전담교사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로 강조되고 있음
- 미래 진로교육의 발전방향
 - 진로교육 행정·정책
 - Before
 - ☞ 지엽적, 부수적, 추가적 업무
 - ☞ 이벤트성 정부부처 및 기관의 정책으로 이용
 - ☞ 국가 정권 변화에 민감한 반응
 - After
 - ☞ 핵심적 · 중심적 업무
 - ☞ 증거 기반의 정책수립-모니터링-실천의 장기적 추진
 - 수요자 공급자
 - Before
 - ☞ (수요자)중등학교 학생 · 학부모
 - ☞ (공급자)진로전담교사
 - After
 - ☞ (수요자)모든 국민 대상
 - ☞ (공급자)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교과교사, 교수, 지역사회 모든 이해관계자 등
 - 진로교육 제공 시기
 - Before
 - ☞ 진학 및 취업의 결정 시기
 - ☞ 진로문제 발생 시기
 - After
 - ☞ 생애 단계별 생애 전반 시기
 - ☞ 사후대처보다는 예방적 관점
 - 진로교육콘텐츠
 - Before
 - ☞ 일반 주류 초 · 중등학생 중심의 정보제공(자기이해, 직업정보, 진학정보 등)과 선택 강조
 - ☞ 교육과 노동시장 정보의 괴리 존재

- After
 - ☞ 사회적 배려대상 중심으로 전환
 - ☞ 개인 맞춤 진로설계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 ☞ 삶의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는 콘텐츠
 - ☞ 유연한 '전환' 역량 강조
 - ☞ 신뢰성 높은 진로정보 생성/관리
 - 진로교육 제공 방법
 - Before
 - ☞ 정책 기반
 - ☞ 중앙관리
 - ☞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커리큘럼 밖에서 수행
 - ☞ 규제되지 않음
 - After
 - ☞ 수요자 요구에 기초한 서비스 기반
 - ☞ 분권화된 서비스, 중앙관리 모니터링
 - ☞ 서비스 제공의 특성화 강조
 - ☞ 국가교육과정, 대학커리큘럼,
 - ☞ 평생학습 프로그램안 등 서비스 제공의 '표준', '기준' 설정
 - ☞ 새로운 ICT 적극 활용 등
- [출처 : 이지연(2016).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 해외 진로교육 체제 발전과 시사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주년 개원 세미나]

4) 정책적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미래 관점에서 생애 진로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진로교육계획 수립
- 모든 교사와 평생학습기관 종사자들이 진로개발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 및 컨설팅 교육과정 개발
- 유치원생부터 평생학습자까지 지속가능한 진로개발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목표와 성취기준 제시
- 꿈과 행복, 네트워킹구축, 생각 디자인, 문제해결 등 지속가능한 진로개발 역량과 연계된 새로운 교과목 개발
- 정보격차 및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보소외 계층 대상의 진로 요구분석 지원
- 지역진로교육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 및 진로상담 서비스 등의 리더적 모델화 제시
-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 진로교육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로서 국가와 지역 진로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연구 수행

- 지역·부처 간 협력적 진로개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하여 보다 미래 대응적인 진로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 예측과 전망

1) 학교교육의 변화

- 학교교육의 변화
 - 학교의 개념 변화
 - 미래학자들의 예측
 - 극단적으로 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함
 - 전통적 개념의 교육은 학교라는 장소에서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초지능, 초연결사회가 되면 학교 교육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 장소로서의 학교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것임
 - 미래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연결해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임
- 교수자의 역할변화
 - 세계미래학회 (World Future Society)
 - 2030년에 사라질 10가지에 공교육을 포함시켰고, 공장형 교육모델이 도입돼 교사없는 맞춤형 학습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Thomas Frey)
 -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은 20년 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함
 - 위기의 시작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이라고 주장하였음
 - 미래학자들이 사라질 거라 예측한 직업
 - 의사, 변호사, 기자와 함께 교수, 교사도 포함돼 있음
 - 미래교육에서는 지금처럼 교육과정의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나 교수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미래 교수자의 역할은 지식전수가 아니라 왜 학습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코칭해주는 것이다.
 - ☞ 이를테면 가르치는 사람(Teacher)에서 지도하고 조언하는 사람(Mentor)으로 변화할 것이다.
-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 교실환경은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될 것임
 - 디지털 책이 종이책을 대체
 -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개인 맞춤형 온라인 수업
 - 주입식 집합교육보다는 집단지성, 협업, 공유학습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
 - ICT는 교육현장에 점점 더 많이 활용

2) 평생학습의 시대

■ 형식 교육 Vs. 비형식 교육

- 형식 교육

-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학교와 같이 공식적 장소에서 잘 짜여진 교육내용대로 의도적, 계획적,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 비형식 교육

- 의도성, 체계성, 지속성이 결여되거나 매우 약하며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학교 밖 교육)

- 학교교육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도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직장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해도 기업에서는 다시 재교육을 시킨다. 미래에는 형식교육보다는 학교 교육 이외의 비형식교육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 평생학습 시대에 요구되는 능력

- 지식판별과 활용능력

- 암기한 지식의 양보다는 지식의 질이 중요하며,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함

-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일부러 잊고, 새로 배우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한다.
- 일생동안 배우고 새로 배우기를 거듭하는 평생교육을 강조함

3) 기술발전과 과학소양

■ 기술변화와 교육의 관계

- 기술변화가 교육 내용과 방식을 바꾸는 일방적 구조가 아니라 기술발전 흐름이 교육개혁에 반영되는 한편 교육혁신으로 배출되는 창의인재는 새로운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양방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함

■ 과학소양 교육

- 평생교육이나 비형식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과학소양 제고, 과학기술 이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엔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 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4) 인재상

■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

-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 안정성(Skills Stability)'에 영향을 미칠 것
-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함
- 기술능력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제 해결능력'
- 인지능력
- 컴퓨터/IT 및 STEM 분야의 지식(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 시사매거진 이코노미스트

- 2020년에 가장 중요해질 10가지의 업무능력 제시

업무능력		세부내용
1	맥락 파악 (Sensemaking)	이미 존재하거나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보다 깊이 있고 새로운 의미와 신호를 읽어내는 능력
2	사회적 지능 (Social Intelligence)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이고 깊게 교감·교류하는 능력
3	참신하고 적응할 수 있는 사고 (Novel and Adaptive Thinking)	기계적이고 틀에 박힌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4	다문화역량 (Cross-cultural Competency)	문화적 차이를 가진 타인을 이해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5	컴퓨터적 사고력 (Computational Thinking)	정답이 없어도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하고 데이터에 숨어있는 추상적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6	뉴미디어 리터러시 (New Media Literacy)	뉴미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트를 만들고, 주체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7	초학문적 능력 (Transdisciplinary)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
8	디자인 마인드셋 (Design Mindset)	요구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표현하는 능력
9	인지적 부하 관리 (Cognitive Load Management)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판별하고 걸러내는 능력
10	가상 협력 (Virtual Collaboration)	가상팀의 멤버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참여를 끌어내 생산성을 높이는 능력

5) 미래교육의 방향

-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습 방법과 학습의 즐거움을 가르쳐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ICT와 인공지능을 다루는 소양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미래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암기하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지식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길러주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협동심, 소통, 공감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함